금주의 법구-〈중아함경〉
악한 사람과 벗하지 말라.
자신과 같은 사람을 못 만나면
굳은 마음으로 혼자 살아가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221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2년 · 단기 4351년 음력 10월 7일) 2018년 11월 14일 수요일

포교원·수좌회 손잡고 禪명상 대중화 나선다

조계종 11월 6일 '참선입문' 개발공청회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명상 열풍에 대응해 조계종단 차원의 참선 대중화가 추진된다. 일반인들도 접근가능한 간화선 교재, 입문 프로그램을 비롯해 재가지도자와 수좌 스님들과 연계한 지역 수행전법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전국선원수좌회(공동대표 의정)는 11월 6일 조계종 전법회관에서 '조계종 신도 참선 입문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공청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은 위빠사나, 로종, MBSR 등 불교명상에 대한 일반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도 정작 대표 수행인 간화선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자 2005년 간화선 입문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당시 지도인력 양성까지 나섰지만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이에 올해 6월 조계종 포교원과 전국선원수좌회가 힘을 합쳐 조계종 신도참선 입문프로그램 연구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과 전법 포교방안을 연구해 왔다.

지난 6월부터 프로그램 개발
포교 · 수행 현장 목소리 경청
사찰 전법 콘텐츠 제공 계획
간화선 · 명상 접목 생활선 추구

참선전법위로 사업 연속성을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선 전법 실행방안이 논의됐다. 조계종 포교원장 지홍 스님은 "전법포교도 결국 수행과 함께 가야하기에 그 중심인 선수행에 대한 입문 과정 개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의정 스님도 "외형적 불사 외에도 간화선 입문을 이끄는 교재와 프로그램 등이 나와야 많은 포교를 할 수 있다. 선과 명상을 어떻게 접목하고 또 융합해야 하는지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다.

기조발제를 맡은 박희승 연구실무위원(불교인재원 생활참선 교수)은 2005년 이후 대중화 사업이 중단된 원인을 집행부 교체 등에서 찾고 행정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주장했다.

박 위원은 "선수행에 대한 입문교재와 프로그램과 지도인력 양성이 다시금 이뤄져야 한다. 종무행정 영역에서 이를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참선전법위원회를 구성해 실참 수행자와 현장 전법사, 학자 등이 참여한 사업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간화선과 현대과학, 의학 등과 연계한 연구 성과도 나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종립대학과의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명상 접목해 인식 개선 필요

수좌회 부의장 원근 스님은 "생활 속 선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전통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체조, 댄스, 스포츠 활동 중에도 할 수 있는 스포츠의료선(禪), 차와 음식을 통한 선, 직장인들을 위한 노동선 등 현재 명상과 접목해 선도 현대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도자 양성의 지적도 나왔다. 前봉암사 입승 혜우 스님은 "현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선원에서도 실질적으로 간화선을 지도하고 이끌어 주는 선지식의 부재가 초심자 수행의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처음 불교를 접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명상마을에서 이런 방식을 제대로 이끌 수 있을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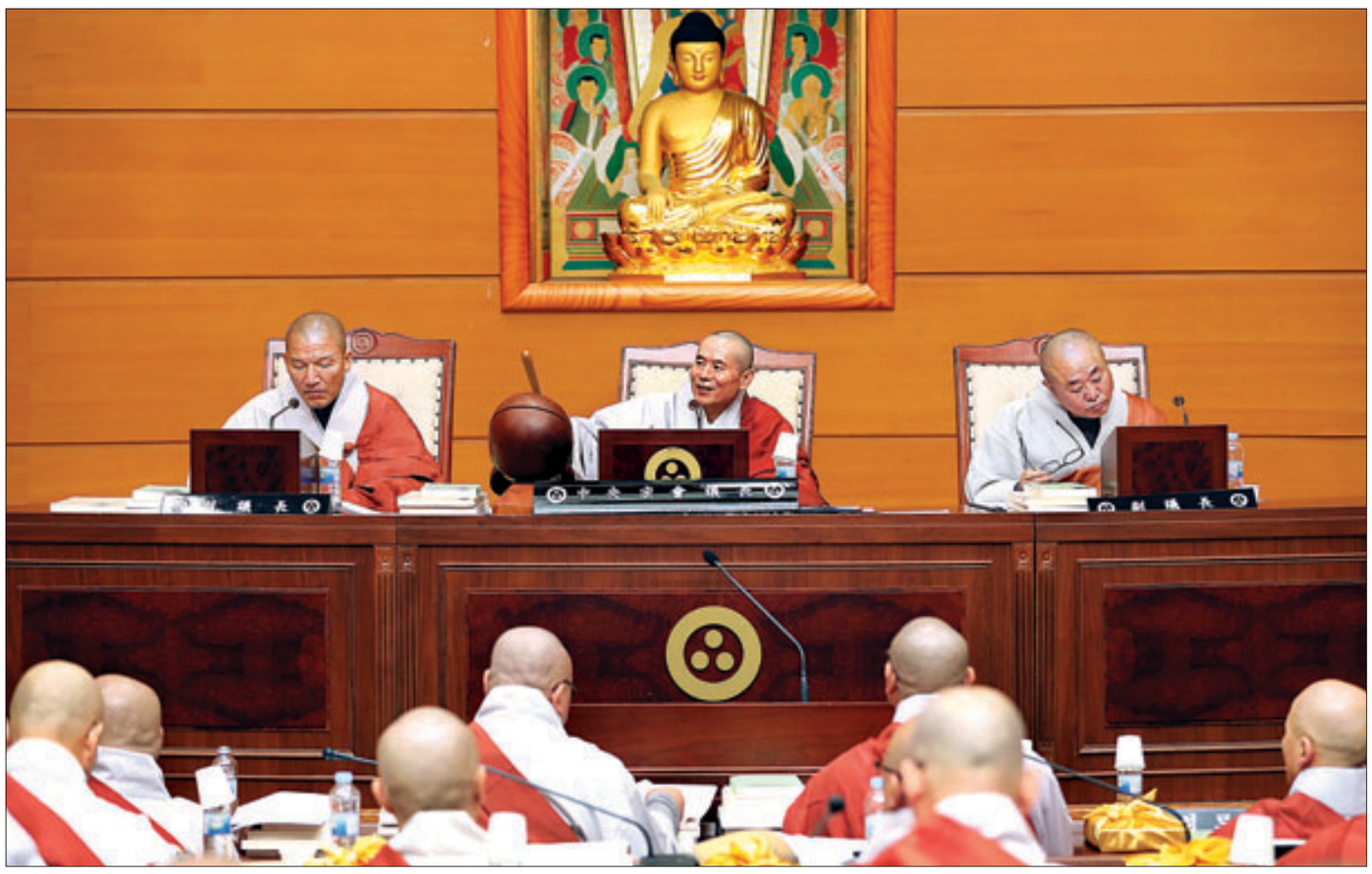
이와 함께 재가자를 활용하는 방법과 인식의 변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준영 명상나눔협동조합 이사장은 "선수행에서도 일반인들을 이끌 수 있는 재가불자들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인식이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근 간화선연구소장은 "조사선의 경우 조사어록을 공부하고 이를 설명해주는 중간단계의 지도자가 가능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화두를 들게 하는 간화선은 중간단계 지도자의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며 "현대인들이 화두를 어떻게 들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무엇보다 선수행 실참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생선원 선원장 무각 스님은 "체험을 해야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원인과 결과가 한 집안 소식이 된다"며 "문사수를 통해 법문을 듣고, 참구하는 체험의 장이 지역사찰 외에도 곳곳에서 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찰과 포교단체, 스님과 수행지도자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사람의 향기로 대중들을 지도하고 있는 해남 미황사 금강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선수행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골자로 각 분야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기대를 가져본다"며 "한국불교 정체성에 기반해 실참수행을 통해 대중을 교화하는데 불교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도참선입문프로그램 연구실무위원회는 참선입문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선원수좌회와 현장 지도인력 양성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4년간의 의정활동을 위한 첫 시동을 걸었다.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개원종회서는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사진 가운데), 수석부의장에 장명 스님(오른쪽), 차석부의장에 주경 스님(왼쪽)을 선출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개원

11월 9일 개원종회 및 정기회…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

수석 · 차석 부의장엔
장명 · 주경 스님 선출
사무처장 호산 스님 임명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 전반기 의장에 범해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서 열린 제17대 중앙종회 개원종회인 제213회 정기회서 4선의원인 범해 스님을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회의에는 재적의원 7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종회 운영규칙에 따라 최다선(5선)의원인 초격 스님이 임시의장을 맡았다.

의장 범해 스님은 "부족함 많은 소납에게 제17대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이라는 큰 역할을 맡겨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한 뒤 "중앙종회는 통합종단 이래로 지금까지 조계종 대의기구로서 종단 안정과 발전, 화합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잘 해왔다. 앞으로 종단과 집행부의 여러 사안을 살피고, 급변하는 사회 흐름에 맞춰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올바른 승가상 구현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범해 스님은 또한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는 말이 있다. 제가 그런 격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종도들이 17대 종회를 원만한 종회로 인식하고, 종단 미래를 위해 노력한다고 느낄 수 있도록 의원스님들께서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후 중앙종회는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 각각 4선의원인 장명 스님과 주경 스님을 선출했다. 중앙종회 사무를 총괄할 사무처장에는 16대 종회서 사무처장을 역임한 호산 스님을 다시 임명했다.

이어 상임분과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을 통해 총무분과 각림 스님(3선), 교육분과 비구니 상덕 스님(재선), 포교분과 정현 스님(재선), 사회분과 무관 스님(4선), 재정분과 등운 스님(3선), 호법분과 제정 스님(3선), 법제분과 만당 스님(3선)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각 분과별로는 위원장 포함 총무분과 15명, 교육분과 10명, 포교분과 9명, 사회분과 9명, 재정분과 14명, 호법분과 10명, 법제분과 11명을 배정했다.

각종 추천 · 선출직 등의 인사를 심의하는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심우 스님(3선)이, 위원으로는 성행 · 현민 · 일감 · 상덕 · 태효 · 자공 스님이 선출됐다.

중앙종회는 불기2562(2018)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 직영 · 특별분담사찰 종정감사를 위해 휴회에 들어갔다. 다만 중앙종회는 논의를 통해 교구본사에 대한 감사는 제외키로 결의했다.

한편 중앙종회는 정기회에 앞서 조계사 대웅전서 제17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거행하고, 종단발전을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개원식에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17대 중앙종회는 종단의 여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해 원로대덕 스님들의 고견을 금언으로 받들고, 사부대중의 중의를 경청해 종단의 질서와 결속, 화합과 안정에 주력해야할 것"이라며 "중앙종회는 종단의 중추적인 기구이고 소임이 막중하니 종회의원스님들은 전력을 다해 종단을 반석위에 우뚝 안치해 주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제17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의원선서 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개원사에서 "오늘 제17대 중앙종회의원스님들이 종단의 변화와 혁신의 막중한 소임을 맡게 됐다. 종도와 종단을 위해 봉사와 헌신의 길을 걷게 될 중앙종회의원스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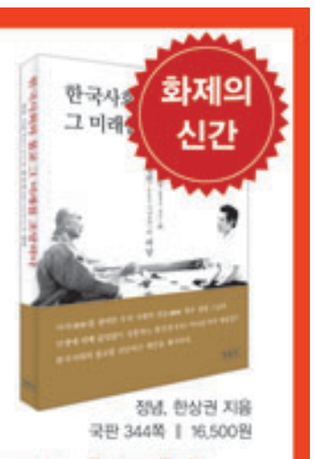
원행 스님은 이어 "종회의원스님들께서는 우리종단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에 따른 산적한 과제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 저는 승가의 위의를 확립하고 승가공동체 정신회복을 위한 길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여러분 역시 지혜를 모아 제36대 총무원과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한국사회와 불교 그 미래를 조망하다

정념 스님 | 월정사 주지 | 과 한상권 | KBS 아나운서 | 의 대담





정념, 한상권 지음
국판 344쪽 | 16,500원

"이대로 가면 한국불교는 10년 내에 제3의 종교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기의 한국불교! 위기의 한국사회!

통찰력과 지혜를 겸비한 퇴우 정념 스님과 한상권 KBS 아나운서의 대담집, 정념 스님은 이 책에서 불교와 사회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념 스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행승으로서 한국불교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 미래를 조망하는 한편, 한국사회의 전반에 대하여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한국불교가 처절한 위기의식 속에서 거듭나야 한다는 쓴소리도 주저하지 않는다.

도서출판 민족사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1131호 TEL 02.732.2403~4 EMAIL minjoksabook@naver.com

※법보시는 최상의 공덕입니다. 불서의 명가 민족사 도서를 법보시 하실 분은 문의 바랍니다.

조계종 내년 예산 1천억 원, 불사 '본격화'

특별회계 713억 원, 전년 대비 155억 원 증액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불기 2563(2019)년 조계종 예산이 처음으로 1000억 원대에 진입했다. 무엇보다 특별회계가 대폭 늘어나면서 각종 불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내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 291억 3619만원 △특별회계 713억2100만원이다.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8.1%, 특별회계는 154억9650만원이 늘어났다.

일반회계서는 일반직(무기계약직 포함) 종무원 임금 3% 상승과 교역직 종무원 수당 상향 조정, 무기계약직 호봉테이블 일반직과 동일 조정 등에 따른 예산 증액이 눈에 띈다. 그간 중앙종무기관은 2014년부터 임금을 동결한 채 호봉에 따른 자연상승분만 반영해왔다. 또한 당일로 치러지는 법계품서식 대신 법계산림을 봉행하라는 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내년도 3급 법계산림을 위한 예산이 추가됐다.

백년대계본부 예산은 올해 4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현재 백년대계본부의 조직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관계로 사업 재구성을 예측해 반영한 것이다. 재무부는 2018년 대비 29.6% 증가된 81억3429만원으로 편성됐다. 종교인과세로 인한 소임공제 업무, 전통사찰 부동산 전수조사 사역도 제작 사업 등을 반영했다. 아울러 위례와 세종 등 신도시종교용지 매입비 일부와 차입금 이자를 납부하기 위한 타회계 전출금이 대폭 늘었다. 사업부는 사찰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 연구기획으로 전년대비 60.8%가 늘어난 876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위례·세종 종교용지 매입비
서울 내 토지 매입 계획 등
각종 불사에 예산 확대 편성
표준불교성전 편찬기금 책정

특별회계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2018년 78억5200만원이던 시설 특별회계가 185억 원으로 100억 원 가량이 대폭 확대된 점이다. 조계종은 이 예산을 바탕으로 서울 용산구 토지와 남산 한옥마을 충정사 매입에 나설 계획이다. 미군기지 이전 개발 등에 따른 거점포교 일환이다.

이에 대해 윤승환 기획차장은 "두 곳 모두 종단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매입 계획을 세웠다. 무엇보다 도심포교를 위한 거점 마련 목적이 가장 크다"며 "서울시내 미약한 불교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승려복지 특별회계 약 22억 원, 총본산성역화 특별회계 약 20억 원, 신도시시설건립 특별회계 약 10억 원이 증액됐다. 반면 본지점 특별회계와 승려연수교육 특별회계는 각각 14억3520만 원, 9660만원이 줄어들었다.

조계종은 내년도 예산에 '종단표준불교성전 편찬기금'을 신규로 편성했다. 예산은 1억8300만원. 전출된 1억33000만 원과 희사금 5000만원이며, 이 사업은 2020년까지 추진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성보환수를 위해 마련한 대출금 상환을 위해 내년도 성보환수기금은 3억8490만 원 감액한 8억401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이 같은 예산안은 11월 9일 개원하는 조계종 제213회 정기회서 최종 확정된다.

승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법산 스님

제115차 이사회, 총장 성문 스님 의원면직 인정

현재 공석인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직무대행에 법산 스님〈사진〉이 선임됐다.

승가학원은 11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115차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을 비롯해 △임원 선임 △어린이집 재위탁 승인 △총장 의원면직(사직)에 관한 확인 등의 안건을 다뤘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조계종 前총무원장 설정 스님의 퇴진으로 공석이 된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법산 스님을 선임했다. 법산 스님의 직무대행 체재는 현 총무원장 원행 스님의 이사직에 대한 교육청 인가가 날 때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승가학원 법인 정관에 따르면 이사 정원 15명 중 총무원장, 교육원장, 종회의장, 중앙승가대 총장 등 8명은 당연직 이사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승가대 총장 성문 스님의 의원면직에 대해 이사회는 '의원면직이 맞다'고 확인했다. 성문 스님은 지난 8월 9일 조계종 총무부장 임명을 위해 총장을 사임했다가 하루 만에 총무부장직에 사의를 표하고 총장으로 복귀해 논란이 됐다.

성문 스님의 의원면직이 인정됨에 따라 중앙승가대는 총장 대행 체재로 전환됐으며, 정관에 따라 교학처장인 김응철 불교사회학부 교수가 총장 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사회는 개방형 이사로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과 기획실장 오심 스님을 선임했으며, 안암어린이집을 재수탁하기로 결정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진각종 집행부 2기 구성
총무 관명·기획 덕운 정사

진각종이 총무부장 등 부실장 인사를 통해 제30대 집행부 2기를 구성했다.

진각종 통리원장 회성 정사는 11월 1일 통리원장 접견실에서 통리원과 교육원 부실장 등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총무부장 겸 진각대학원 교학처장은 관명 정사(관음심인당 주교), 교무부장은 법경 정사(남부심인당 주교), 기획실장은 덕운 정사(유가심인당 주교), 교법연구실장은 수각 정사(밀각심인당 주교), 교무국장은 효광 정사(행대심인당 주교)가 임명됐다.

윤호섭 기자

"고속도로 사찰표지판, 국토부와 협의 중"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서 진행경과 보고

약 1년 전 국토부가 고속도로 표지판에 표기된 사찰과 4대강 보(洑) 등 지역명소를 삭제하려다 불교계 반발에 잠정중단한 가운데, 현재 표기 기준을 놓고 양측이 의견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2018년 제3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비공개로 열고, 고속도로 안내표지판 사찰 표기 관련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조계종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는 세계문화유산이거나 국보를 보유한 고속도로IC 반경 15㎞ 이내 사찰을 표기하는 것을 종단에 제안했다.

여기에 조계종은 국가지정문화재 5건 이상 보유한 사찰도 포함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국토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지만 현재 해당 경우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최종 결과를 도출할 전망이다.

회의서는 이뿐만 아니라 △제36대 총무원장 취임법회(11/13) 계획 △불기 2563(2019)년도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약 291억 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관련 대응경과 △포교원 마음거울 108앱 5부작 개발 보급 현황 등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종단 목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각 기관과 부서별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했다"며 "어려운 고비를 넘겨온 종단에 가장 필요한 건 화합과 혁신이다. 종단 운영에 교구본사의 관심과 협조를 진심으로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호섭 기자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염불로 이고득락 합시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법화경 보문품에서는 누구든지 관세음보살을 일심칭명 염불하면 현세의 어떤 발원도 성취한다고 했습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아미타불을 일심칭명 염불삼매하면 어떤 죄업도 소멸되어 금색광명으로 극락세계에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염불은 참선과 더불어 불교의 중요한 수행방법입니다. 근기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아무데서나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염불의 장점인데, 하근기의 타력신앙이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선삼매에 들 듯 염불삼매에 들어 번뇌망상을 소멸하고 고통을 여읜 그 자리가 염불의 목적인 현세의 이고(離苦)이며 왕생이며 열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효, 지눌, 나옹, 보우 스님 등 선종의 고승들은 염불을 권장했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미타염불신앙이 보편화되어 집집마다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거리에서는 가난하고 무지한 이들이 춤을 추며 염불을 했습니다. 원효 스님이 어려운 교학보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염불 수행법을 널리 전파하면서 민중이 극락왕생의 꿈을 갖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염불방법은 다양하지만 주로 칭명염불을 합니다. 생각을 일념으로 모아 간절히 불보살의 명호를 끊임없이 불러 '나'와 하나되게 하는 것이 칭명염불입니다. 염불신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건강해야 원(願)이 청정하고 조건없는 비움의 염불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욕심이 담긴 소원을 비는 자기중심적 염불은 줄이고 비워야 할 자아를 오히려 확장하는 기복입니다. 행동과 말과 생각이 청정해야 공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염불은 참 성품을 지키는 깨달음입니다. 부처님이 부처님을 품은 진여염불에 이르면 저절로 텅빈 것임을 알아 큰 지혜가 밝고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명백해 집니다.

염불의 공덕은 가피로 나타납니다. 가피는 집착을 내려 놓은 곳, 무량수 무량광의 환하게 밝은 곳에서 이루어 집니다.

*염불수행의 가피를 타력이라고 부정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불교의 의식 자체가 염불이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타력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염불, 참선, 교학은 달(여래)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피안으로 가기 위한 뗏목입니다. 달을 보았고 피안에 다달으면 손가락도 뗏목도 자력으로 내려 놓습니다.

산승은 '원효 스님이 왜 염불신앙을 민중에게 심었는가'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에 한국불교학회 회장직을 퇴임하면서 '성운학술상'을 제정했습니다. 학문적 연구를 뒷받침하여 염불 수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불교 대중화를 위한 불사인데 산승의 일중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자부심을 느낍니다.

불교신도가 줄고 있습니다. 민중에게 현세의 이고득락과 극락왕생의 꿈을 심어준 원효 스님의 염불대중화 운동이 이 시대에 다시 꽃피길 발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염불독송-영혼을 깨우는 소리 그림 · 조항숙

선종의 고승들 염불권장
조건없는 비움서 가피나와
염불장려 대중화 위해
'성운학술상' 연구 뒷받침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사)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은 불조의 혜명에 굳건히 의지하고 현재 봉착한 한국불교의 위기를 진단하여 종파의 분열과 무너진 법계질서를 바로잡아 새로운 승풍을 진작하여 일불제자의 승가정신을 구현하고 이를 통한 한국불교의 중흥을 목표로 하는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정진의 길에 함께 할 제방의 큰스님들과 법사님을 모십니다.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연구 및 납골당 운영사업
- 승려등 수행자의 복지사업

승 정 원 장 월해 총 무 원 장 법천당 청운
감 찰 원 장 성호 종 회 의 장 법륜 호 법 원 장 해월
포 교 원 장 덕해 교 육 원 장 영호 규 정 원 장 혜성
감 찰 부 장 경오 호 법 부 장 문경 포 교 부 장 장문
규 정 부 장 성철
서울교구원장 법혜 대전교구원장 수진 충남교구원장 혜성
울산교구원장 정오 부산교구원장 법진 경남교구원장 불해
경북교구원장 천호

한마음 108종도 일동

본 종은 종도화합의 종풍을 확립하고자 상생을 위한 상호협의를 종무행정의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본 종단은 문화관광부 허가 제 2017-7호. 법인등록 194621-0000530으로 등록된 사단법인 종단입니다.

한마음조계종에 대한 많은 격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제방의 대덕 큰스님이하 대중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한국불교의 발전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종단이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도모집

입종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사본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내 외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 입종 종도에게는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사찰 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에 한하여 추대장 및 위촉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 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 대한불교한마음조계종
총무원장 법천당 청운

■ 총 본 산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1122번길 74-35
전화 055)867-0024.0025 / 팩스 055)867-8009
■ 서울 총무원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81, 두산위브파빌리온 808호
휴대전화 011-870-0021

‘수화’로 전한 부처님 가르침 30년

창립 30주년 맞은 조계사 원심회 걸어온 길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전법단체 중 한 곳인 조계사 원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장애인전법팀 원심회(회장 김경환)는 11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백유경〉 수어(수화언어)영상 고불식 및 창립3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한다. 행사서 최초로 영상이 공개되며 제작된 DVD는 무료 배포된다.

원심회는 “불교는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가 아닌, 청각장애인들에게도 활짝 열려있는 종교임을 알리고, 이들이 수화를 통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애인 포교의 중심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심회는 해당 영상 제작 프로젝트를 2년간 진행했다. 먼저 경전에 실린 불교우화 중 30편을 선정한 뒤, 청각장애인 회원은 출연 및 감수를, 수화통역사 회원은 촬영·편집을 맡아 22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제작했다. 조계사(주지 지현)와 초대회장 덕신 스님의 후원도 있었다.

불교 대표 수화포교단체의 시작

원심회는 불교를 대표하는 수화포교단체로, 청각장애인과 수화언어통역사가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유일한 불교계 단체이다.

초대회장 덕신 스님(1988~2005, 대구 대륜사 주지)은 1980년대부터 범종교 봉사단체와 인연을 맺으면서 불교가 이웃종교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활동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시작했다고 전한다. 스님은 1988년 원심회의 전신인 강남 원심포교원서 수화교육을 받고난 뒤, 강사·수강생 10명과 함께 원심회를 창립했다.

초창기에는 사무실과 법당 없이 옮겨다녔지만, 1992년 조계사불교대학 지하에 원심회 법당을 마련했다. 원심회는 이후 조계사 내 장애인전법팀으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 전국 불자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50명 가운데 원심회 출신은 10명으로, 원심회 내 수화통역사 7명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1989년부터 청각장애인법회를 개설해 정기 수화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비장애인 대상 초·중급 수화교육 강좌를 상시 운영하고 각 단체에 수화강사를 파견하는 등 장애와 수화에 대한 사회적 인지도 제고와 인식 개선에 진력을 다해왔다.


불기 2562년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4월 14일 열린 ‘조계사 장애인 불자대법회’서 원심회 회원 스님들이 수화공연을 하고 있다.

88년 창립… 초대회장 덕신 스님
불자 수화통역사 20% 배출
의식·찬불가 등 ‘불교수화’ 정립
1998년엔 〈불교수화집〉 발간

창립 30년 ‘백유경’ 프로젝트
불교우화 30편, 수화영상 제작
11월 18일 고불 및 기념법회

‘불교수화’ 표준화·정립 성과

특히 불교 수화언어를 표준화하고 정립한 이들이 바로 원심회다. 이전까지 청각장애인들은 불교를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없었다. 원심회는 한국수화 단어 내 불교관련어가 5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기본의식인 삼귀의, 사홍서원, 반야심경 등 ‘불교수화’를 창안했다.

1998년 〈불교수화용어집(자비의 손길)〉을 출간한 원심회는 2010년부터 불교수화 표제어 1,071개를 웹사이트에 업로드해 누구나 불교수화사전을 검색할 수 있도록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수화로 연극을 만들어 공연하거나, 찬불가를 수화로 통역하는 방법 등을 통해 청각장애인들이 불교를 접할 수 있게끔 시도했다.

원심회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불교수화 동영상 제작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간 불교수화단어와 찬불가, 경전 등을 수화언어로 번역해 영상화한 뒤, 전국 법회와 청각장애인 및 불교수화를 알리고자 하는 곳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업이다. 2008년 창립 20주년 사업서는 찬불가 55곡 및 불교수화단어를, 2013년에는 불교의식 및 찬불가 총 46편을, 2015년 창립 27주년 사업으로 〈천수경〉 수어 역경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최초 청각장애인 포교사 배출

그간의 노력 끝에 원심회는 2010년 8월, 청각장애인 최초로 조계종 포교사를 배출한 값진 성과를 얻었다.

김경환 원심회 회장은 “원심회는 30년간 어떤 영리적인 목적 없이 청각장애인들에게 불교의 실천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정표 역할을 해왔다”며 “부처님 말씀을 보고 싶어도 실질적으로 갈 곳이 원심회 한 곳뿐인 현실이 부끄러우면서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어쩌면 이런 사명감이 지금까지 원심회를 지탱해올 수 있는 버팀목이 된 것 같다”고 소회를 전했다.

처음 수화법회에 참석한 1992년만 해도 불교수화도 몰랐고, 교리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김 회장은 “보는 언어를 쓰는 청각장애인 특성상, 청각장애인 포교는 문자로 의미를 전달하기보다 영상을 통한 포교가 가장 좋다. 원심회가 관련 영상 제작에 힘을 쏟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며 “지금까지 불교기본의식을 수화언어화한 것처럼 앞으로 기초교리, 부처님 일대기 등 포교자료로 활용할 동영상 제작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조계종 포교원 장애인전법단장 도륜 스님은 “장애인전법에 예산 및 인력이 전담된 이웃종교계에 비해 현재 불교계는 일부 스님과 불자 외에는 관련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청각장애인 포교사도, 수화로 포교 가능한 스님도 각각 1명밖에 없다”며 “각 사찰과 불자들의 지원이 절실하다. 숨어있는 불자 장애인들을 발굴하는 첫 걸음은 격려와 작은 관심임을 잊지 말자”고 당부했다.

불교계 생명존중 문화 위해 힘 모은다

불교상담개발원·포교사단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MOU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과 조계종 포교사단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11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협약에 따라 불교상담개발원과 포교사단은 불교계 생명존중과 자살예방활동을 위한 연구 교육 및 대내외적 활동을 함께 해나가기로 했다.

업무협약에 따르면 불교상담개발원은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며, 공동 사업 확산을 위한 대외 홍보 등도 함께 진행한다.

포교사단은 사업운영에 필요한 포교사 인력 등 인적 연계를 맡으며 자살예방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지방 단위 조직을 지원한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정부가 보건복지부 내 자살예방과를 만드는 등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은 사회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가톨릭과 원불교 등이 참여하는데 불교계는 동력이 부족했다”며 “포교사단이 함께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 포교현장에서 활동하는 4700여 포교사들이 있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포교사단은 포교사 인력을, 불교상담개발원은 교재 및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OECD 회원국 중 노인자살율 1위라는 한국의 상황에서 생명존중운동은 꼭 필요한 것”이라며 “불자들은 5계 중 불살생계가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갈 필요가 있다. 포교신행단체가 생명존중운동에 네트워크를 보탠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못 찾은 세월호 희생자도 극락왕생을”

조계종 사회노동위
11월 6일 목포신항서
故조은화·허다윤
추가 유골 수습의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수색작업 종료를 공식선언한 가운데, 조계종은 추가 수습된 유골 추모의식을 치르고 마지막까지 희생자 전원의 아픔을 보듬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혜찬, 이하 사노위)는 11월 6일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 신항서 ‘미수습자 조은화, 허다윤 학생의 추가 수습 유골 의례식’을 봉행했다. 이날 사회부장 덕조·국장 해청 스님과 사노위 소속 스님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 해수부 및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 희생자 유가족, 목포 시민 등 각계 1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희생자들을 기렸다.

故조·허 학생의 유해는 2017년 5월 최초 발견, 수습됐다. 그 해 10월 장례식을 치른 뒤, 다른 미수습자 수색과정서 두 학생의 유골이 추가 수습됐다. 해당 가족들은 아직 찾지 못한 미수습자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으로 1여 년간 유골을 목포신항에 안치한 채, 다른 추가 수습을 기다렸다.


추가유골 수습의례 중 세월호 전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는 모습.

사회부장 덕조 스님은 이 자리서 “故조은화, 허다윤 학생은 참사 4년 6개월 만에야 비로소 가족 품으로 돌아와 쉴 수 있게 됐다”며 “두 학생과 끝까지 흔적을 찾지 못한 나머지 미수습자들 모두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한다”고 말했다.

사노위에 따르면 故조·허 학생 유가족들은 그동안 기도, 오체투지 등으로 희생자들을 위해 애쓴 종단 스님들에게 이날 의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다. 스님들은 두 학생 추가 수습유골을 두고 극락왕생을 축원했다.

수습 의례를 마친 두 유골은 수원 연화장으로 옮겨져 화장됐다. 이후 기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봉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기자

조계종 화쟁위 원효 발자취 더듬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화쟁사상을 주창한 원효대사의 발자취를 더듬는 순례를 실시한다.

화쟁위원회는 11월 23~25일 경산 초개사·제석사와 경주 분황사·골굴사·기림사·월정교 등을 돌아보는 ‘화쟁의 원류를 찾아서-원효의 발자취 순례(이하 원효순례)’를 개최한다.

화쟁위원회는 “원효순례는 걸림 없이 자유롭게 대중을 보듬어 안은 원효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의미를 사색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원효순례에서는 원효 스님이 주석했던 사찰 참배뿐만 아니라 다큐멘터리 ‘원효를 만나다’의 김선아 감독의 특강도 진행된다. 아울러 원효순례는 조계종 교육원 연수인증교육으로 인증돼 참여한 스님들에게는 연수점수 30점이 주어진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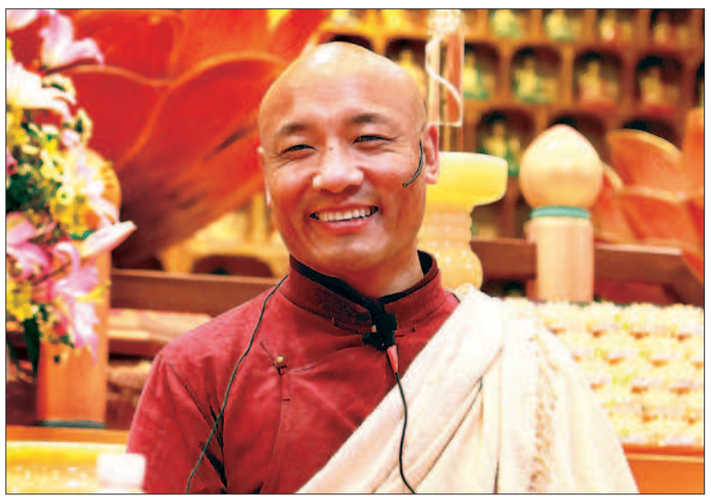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

티베트 수행, 한국 소개의 장 열린다

아남 툽텐 린포체 방한
대중 · 집중수련회 열어

12월 7~8일 국제선센터 강좌
9~14일 백담사 집중수행 개최
"마음 고통, 행복 바꾸는 방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아남 툽텐 린포체는 12월 7~14일 일주일간 티베트 전통 수행법을 전한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인해 국민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아남 툽텐 린포체가 다시 방한한다. 두 차례에 걸쳐 로종 수행에 대한 강좌와 함께 집중수행도 진행할 예정이다.

세첸코리아(대표 용수)는 12월 7~8일 국제선센터에서 아남툽텐 린포체 초청 '로종' 대중강연을 개최한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티베트에서 태어나 닝마파 전통수행을 익혔다. 라마 추르 로와 라마 갈왕으로부터 사사받은 뒤 1990년대 초 미국으로 건너가 티베트 불교 수행 전파에 나섰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캘리포니아주 리치몬드에 다르마타 재단을 설립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다.

아남 툽텐 린포체는 현재 미국을 비롯해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50여 개가 넘는 다르마타 상가를 운영하고 있다. 또 온라인 생방송 플랫폼 '라이브스트림' 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과정의 〈다르마 리더쉽 프로그램〉을 조건 없이 가르치고 있다.

2018년에는 다르마타 한국상가도 형성돼 10월 첫 행사로 티벳 오명불학원을 설립한 직메 푼촉 린포체의 직계 제자인 올겐 최왕 린포체 방한법회를 개최했다.

특히 아남 툽텐 린포체는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언어와 자신의 경험, 인간적인 유머를 통해 가르침을 전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방한에서 지도하는 로종 수행은 '마음의 본성' 을 깨닫는 수행으로, 티베트불교의 체계적인 명상원리에 기반하고 있다.

세첸코리아 측에서는 "로종 수행을 통해 자비심을 기르고 다른 내 안의 좋은 성품을 올려 자비심을 발현하는 것" 이라며 "자비 실천을 통해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지는 프로그램"이라고 소개했다.

12월 7~8일 진행되는 로종 수행에 대한 대중강연은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서울 국제선센터에서 열리며, 선착순 120명에 참가비는 8만원이다. 세첸 & 행복수업 회원과 스님의 경우 6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이어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5박 6일간 진행되는 '마음의 본성' 백담사 집중수행은 선착순 90명에 참가비 38만원이다. 역시 세첸 & 행복수업 회원과 스님의 경우 32만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세첸코리아 대표 용수 스님은 "로종 수행은 고통의 심리를 행복의 심리로 바꾸는 현대화된 명상수행법"이라며 "많은 현대인들이 강연을 듣고 삶속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문의 010-4442-3960

"한암 스님 수행처 北맹산우두암 복원"

원행 스님 등 종교지도자,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와 논의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사진 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국내 종교지도자들과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 관계자들이 회의 이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조계종 초대종정 한암 스님의 수행처인 북한 평안도 맹산우두암 복원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계종 원로의원 원행 스님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서 열린 '제109주년 안중근 의사 의거기념식' 이후 진행된 남북종교지도자 기념회의서 우리나라 종교지도자와 북한 조선종교인협의회(회장 강지영)는 이 같이 협의했다.

원행 스님에 따르면 양측은 △한암 스님 수행터인 평안도 맹산우두암 방문 및 복원 △오대산 월정사 중창주 만화 스님 고향인 평안남도 덕천군 방문 및 뿌리찾기 △2019년 안중근 110주기 기념행사 △천주교 안중근 터 해주성당 복원 △전남교육청 학생순례단 방문 등에 대해 협의했다.

행사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원행 스님과 북측 강지영 조선종교인협의회장, 김철웅 장충성당 회장, 허일용 조선카톨릭교협회 중앙위원회 서기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호섭 기자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이해 돕는 자리 열린다

7월 라오스 댐 붕괴 사고, 9월 인도네시아 지진 재해 발생으로 국제구호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요즘, NGO 단체 활동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열린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은 11월 20일 오후 2시 서울 중림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서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을 주제로 미래복지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더프라미스 상임이사 묘장 스님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사업', 지구촌공생회 前 케냐지부장 탄하 스님이 '국제개발협력 현장 이야기', 김규환 굿월드 자선은행 사무국장이 '불교계국제개발협력협의회 소개 및 봉사단원 모집 안내' 를 주제로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행사는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구글독스(https://goo.gl/forms/xlUXvC2mexa8VX2P2) 또는 재단 홈페이지(http://www.jabinanum.or.kr)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11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02)723-5101 김지원 기자

"자타불이 근거한 실천, 불교 신뢰 높여"

한국불교발전硏, 11월 5일
개원 25주년 학술심포지엄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은 11월 5일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 을 주제로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 현안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이사장 혜총)은 11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한국불교의 현안과 진로 모색' 을 주제로 개원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한국불교발전연구원 이사장 혜총 스님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한국불교의 역할' 을 주제로 한 기조 강연에서 모든 제도가 수행 위주로 전환돼야 함을 강조했다.

혜총 스님은 "종단은 운영체계의 근간인 종헌 종법을 수 차례에 걸쳐 개정했지만 승가의 근본인 부처님 계율과 율장이 하나도 스며들지 못했다"면서 "이제 주지 중심의 관리불교가 조실 중심의 수행불교로 돌아가고, 행정 위주로 된 모든 종단제도는 수행 위주의 외호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승가는 오랜 역사를 이어온 원로 중심의 수행가풍과 사자상승의 빛나는 전통을 갖고 있다"며 "원로 스님을 중심으로 수행가풍을 진작하고 사부대중이 화합해 전법교단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불교 각 분야에 대한 현안 진단과 발전 방안들이 제기됐다.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는 '한국불교 현실과 사회적 신뢰 구축' 에서 현재 한국불교가 교단적 · 사회적으로 위기임을 되짚고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냉정한 비판과 자타불이에 근거한 자비로운 분노 ·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한국불교의 포교현실과 전법교화 전략' 에서 전법 활성화를 위해 한국불교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핵심 신도 교육과 조직화에 힘쓸 것을 제언했다.

또한 우희종 서울대 교수불자회 불이회 회장은 불교 재가운동의 발전 방안을 짚었으며, 이덕진 前 창원문성대 교수는 '사부대중, 어떻게 소통하고 개혁할 것인가' 를 통해 한국불교의 소통 방안으로 △베풀기와 더불어 살기 △사부대중 위치 바로잡기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을 제언했다. 신성민 기자

월서 스님, 미얀마 미래세대에 희망 심다

천호월서희망재단, 미얀마 오지 중학교 건립


11월 3일 열린 쉐띳중학교 낙성식.

천호월서희망재단 이사장이자 보은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이 미얀마 오지 마을에서 교육을 통한 자비보시행을 실천했다.

천호월서희망재단은 11월 3일 미얀마 바간의 쉐띳마을에서 중학교 낙성식을 개최했다. 쉐띳마을은 작은 시골 오지마을로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나무로 된 건물 1동을 쓰고 있었다.

이런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단은 5월부터 학교 건립을 위한 불사를 시작했고, 월서 스님의 학교 건립 기금 후원과 마을 주민들의 노력으로 6개월 만에 낙성식이 열렸다.

이번에 세워진 쉐띳마을 중학교는 60명씩 5개반으로 총 30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학교는 2019년 6월부터 1학년 신입생 20여 명을 시작으로 운영된다.

낙성식에는 미얀마 정부 및 교육청 관계자, 국회의원 등 정부인사 30여 명이 참석했고, 학생 140명, 교사 14명, 마을주민 700여 명이 동참했다.

낙성식은 700여 주민과 학생들이 꽃을 뿌리며 스님의 공덕을 축복하는 축복경 합송으로 시작됐다.

1부 행사로 중학교 낙성식을 알리는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으며, 학교 경내에 천호월서희망재단 이름이 적혀있는 비석이 제막됐다. 2부 행사에는 준공 기념 월서 스님의 인사말과 정부 관계자들의 축사가 이어졌다.

월서 스님은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며 " '십년수목백년수인(十年樹木百年樹人),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 는 말처럼 미얀마 장래는 바로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 교육에 있다. 교육 지원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는 11월 6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개최했다. 사진은 불국사 성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 테이프를 자르며 개관을 축하하는 모습.



박물관 라운딩을 하며 전시된 유물을 둘러보는 스님들.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



故남석환 선생 사진을 들고 있는 하라다 히로코 여사.

53년만 귀환 '석가탑 사리장엄'… 불국사서 만난다

11월 6일 불국사 성보박물관 개관 법회 현장

경주=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문화재 도굴 시도, 각종 사건으로 인한 파손과 손상 등 아픈 역사를 반복하다 불국사를 떠났던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다시 불국사의 품으로 돌아왔다. 반세기만의 귀환이다. 불국사는 사리장엄구의 귀환을 단순한 의미인 '귀속', 소유를 뜻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갖추고 헌신할 마음으로 비로소 얻은 '소유의 자격'이라고 천명했다. 스스로 성보를 보존·관리하게 된, 불교문화재 보존의 진일보를 보여주는 불국사 성보박물관이 문을 열었다.

조계종 제11교구본사 불국사(주지 종우)는 11월 6일 성보박물관 개관식을 박물관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

개관식은 청운교와 백운교에서 개관을 축하하는 사물놀이로 시작해 내빈들의 테이프 커팅, 육법공양으로 개관을 알렸다. 이어 대중은 삼귀의 및 삼배로 마음을 모으고 불국사가 박물관 개관을 통해 찬란한 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줄 것을 발원했다. 이어 헌화가 진행됐다. 헌화는 故남석환 선생 부인 하라다 히로코 여사가 꽃을 올려 의미를 더했다.

남석환 선생은 독립운동가 남복수 의사의 후손으로 일본 나고야대학 졸업 후 한국과 일본 친선교류에 앞장섰으며, 특히 한국문화에 관심이 높아 문화재 연구와 보존에 힘써왔다. 그는 유물 300여 점과 역사 문화재 관련 도서 1만2000여 권을 불국사 박물관에 기증해 건립의 기틀을 마련했다. 아울러 故황수영 박사의 자녀 황유자 박사, 故정영호 박사 부인 민대자 여사도 차례로 꽃을 들고 헌화했다. 황수영·정영호 박사도 도서 및 유물을 기증해 문화재를 모든 이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도왔다.

내빈들도 이후 함께 헌화했으며 개관식은 △인사말 △경과보고 △치사 △축사 △발원문 낭독 △축시 △축가 순으로 진행됐다.

개관식에는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총무원장 원행 스님, 관장 종상 스님, 주지 종우 스님, 불국사 승가대학장 덕민 스님, 부주지 정문 스님, 주낙영 경주시장, 이대원 동국대 경주캠퍼스 총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해 축하했다.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은 "박물관 개관은 불교의 이해와 불교문화의 가치, 정신이 승화 구현된 문화재를 통해 우리 문화의 소중함과 위상을 다시금 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며 "많은 어려움을 넘어 어엿하게 자리 잡은 박물관이 불국사를 찾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바람 속에 더욱 빛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966년 출토 당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석가탑 사리와 장엄구,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불국사를 떠나 있었다. 이후 2009년에는 종단으로 그리고 불국사로 돌아와 의미가 크다"며 "지나온 천년을 환하게 비추며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축하했다.

천왕문 우측 언덕 3500평 부지
지상1층·지하1층 규모로 완공
〈무구정광대다라니경〉 비롯해
각종 유물·도서 등 다량 보유
독립운동가 후손 유물 기증도
"불교 위상 다시 새기는 계기돼"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들.

개관식을 마치자 대중은 박물관으로 들어가 신라 천년의 문화를 품고 있는 문화재를 살펴보며 감탄했다. 박물관에 들어선 대중은 먼저 불국사에 대한 가치를 알려주는 문화재와 설명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새로운 사실에 놀라워했다.

박물관은 경내 천왕문 우측 언덕 위에 위치한다. 2013년~2014년 건립예정부지 발굴 조사가 진행됐으며 본관 건립은 2006년~2011년 동안 이어졌다. 2013년~2014년 국보 제126호 석가탑 사리장엄 수장을 위한 수장고 시설을 확충하고 학예 연구실, 도서 자료실, 유물 운반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본관 부속 연구 관리동이 건립됐다. 2018년 9월 20일에는 석가탑에서 출토되어 국립박물관에 기탁됐던 석가탑 사리 장엄구 일괄(국보 제126호,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 포함)이 불교중앙박물관을 거쳐 불국사박물관으로 이관됐다.

불국사 박물관은 부지면적 3,523평으로 전시실, 수장고, 작업실, 학예연구실, 도서자료실, 영상실을 갖췄으며 지상1층 지하 1층 규모로 총 사업비 128억 원이 소요됐다. 또한 전문인력으로 학예연구실장과 학예연구사 3인, 회계 및 시설관리인 각 1인이 박물관에서 활동한다.

불국사 박물관은 현재 불국사에 대한 '역사 및 주요건축물' '불상과 불화' '석가탑 사리장엄' '기증유물전' 등 4가지 주제로 나눠 문화재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석가탑 사리장엄 전시는 박물관을 개관한 목적이라 할 만큼 의미가 있다. 불국사는 세계 최고(最古)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석가탑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바르게 알리고, 문화재 지식을 온전히 전해 문화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였다. 1966년 석가탑에서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함께 출토된 사리장엄구 일괄품(국보 제126호)이 53년 만에 본래 자리인 불국사로 환지본처 한 것도 큰 의미로 평가된다.

차윤정 학예실장은 "이제 불국사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한국 석탑을 대표하는 아름다운 석가탑과 세계 최고 목판 인쇄물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파편화된 지식이 아닌 실물 체험을 통해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먼저 〈무구정광대다라니경〉과 사리장엄구를 보며 "문화유산의 성지다운 불국사의 모습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현석(45) 씨는 "교과서로만 보던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것에 마음 벅차고 오늘 가족들과 휴가를 내서 우연히 왔는데 더 좋은 경험을 했다"며 "석가탑 유물인 것을 새롭게 알아 불국사의 중요 가치를 다시 새기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연등시공전문기업 대광불교
연등자동승강장치 최초개발시공업체
대광불교는 연등전문 기업입니다. 대광불교만의 독특한 디자인과 숙련된 노하우로 각종 연등을 제작 보급하고 있습니다.
항상 등불을 밝히는 마음가짐으로 등 제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화등
공단등
만월등
극락왕생
연등 자동 승강장치
연등 시공
자동승강장치 특허
자동승강장치 특허
절첩식 연등 특허
LED 전구
대광불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매자리길 113 e-mail : hskhsg@naver.com | 010-9446-1862 | 010-2788-7270 | 031)768-7270 | 031)768-7271

4·3 사건 70주년 제주불교 흔적 바로 세우기

〈12〉 도평동 서관음사

제주불교 혁신 주도… 4.3광풍에 희생



4.3 당시 제주 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해 무장대 활동에 나선 이세진 스님은 1942년 서관음사를 창건했다. 사진은 도평리 사라마을에 남아있는 서관음사 터.

이병철 제주불교 기자



제주서 강원교육 첫 실시하는 등 변화 이끌어
4.3사건 발발하자 제주인 무장대서 적극 활동
1949년 관음사 전투서 패배한 후 하산해 체포
주정공장 구금됐다 풀려난 후 다시 잡혀 수장

이세진 스님〈오른쪽 사진〉은 1910년 8월 25일 제주도 한경면 저지리에서 출생했다. 스님은 18세에 내장사에서 한고벽을 스승으로 출가하고 백양사에서 유금해를 계사(戒師)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스님은 내장사 총무직을 역임했으며, 백양사에서 법계를 품수받았다. 이후 내장선원에서 약 3년간 강사로 활동했고, 강원도 금강산 표훈사 중향강원 강사로 약 2년간 활동했다. 중향강원은 불교경전과 함께 근대 신학문을 교육하는 개혁적인 전통강원이었다.

1930년대 제주불교는 불교활동을 위한 불교단체를 구성해내 관음사 창건 이후 가장 왕성한 사찰의 증가와 전통불교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신앙 양상의 변화를 위한 노력만이 아니라 본사가 다른 사찰의 통합 활동을 제주불교 인물들이 주체적으로 이끌어 내는 등으로 제주불교가 활성화된 시기였다.

백양사 주지 송종헌 스님은 이세진 스님을 제주도로 보냈다. 1939년 2월 백양사 한림포교당 포교사로 부임하여, 1939년 제주불교연맹 교육부장으로 활동했다. 제주불교연맹은 1930년대 제주불교의 통합 활동을 이끌었던 단체로 제주도 전역의 순회강연을 주도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이세진 스님도 불교와 신앙 등을 주제로 함께 순회강연에 참여했다.

또한 1940년 관음사포교당인 대각사의 제주강원에서 근대 제주불교의 첫 강원교육을 실시하고 1941년 20여 명에게 비구 수계를 주었다. 이세진 스님은 도평리 서관음사에서 기와 공장을 운영하며 승가의 경제 독립과 전통강원 설립을 의도하기도 했다.

이세진 스님은 전통불교를 지키려는 임제종 운동을 한 송종헌 스님과 백양사 활동을 했으며, 신학문을 교육한 중향강원의 강사를 역임하고, 사찰의 경제적 독립을 추구하는 등 혁신적인 사상을 가진 인물이다.

1948년 제주4·3사건이 일어나자 이세진 스님은 제주사회의 현안에 적극 참여해 무장대 활동에 나선다. 무장대의 제주도당사령부 소속으로 관음사를 무대로 활동했다. 1949년 2월 12일 관음사 전투의 패배로 귀순하여 3월경 산에서 내려왔다. 1949년 3월 토벌대의 선무 공작으로 귀순 권고 삐라를 뿌린 후에 내려온 것으로 파악된다.

이세진 스님은 귀순 후 토벌대에 포로로 잡혀 주정공장에 수용됐다. 주정공장은 군부대의 조병창으로 사용하던 것을 1948년 초토화 작전 이후 수용소 시설로 사용했다. 제주4·3사건 당시 가장 규모가 큰 수용소였다. 1948년 겨울부터 고구마를 저장하던 주정공장 언덕 위 10여 개 창고를 수용소로 쓰기 시작했다.

토벌대가 1949년 3월부터 선무공작을 펼치면서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급격히 늘어났다. 1949년 4월 12일 상황 보고에 의하면 포로는 3,600여 명으로 파악됐다. 포로라는 이들 중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산간 마을 주민들로 초토화 작전으로 인한 무차별 학살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후 이세진 스님은 잠시 풀려나 관음사포교당에서 은신하다가 1949년 7월 9일 사복경찰에 잡혀나가 수장됐다.

한금순 박사가 바라본 제주 4·3

서관음사

이세진 스님 적극 무장대 활동
토벌대, 도평리 주민 70명 학살

서관음사는 제주시 도평리에 있었으나 제주4.3사건으로 폐사됐다.

서관음사는 1942년에 이세진 스님이 창건했다. 이세진 스님은 1939년 제주불교연맹에서 교육부장으로 활동했고, 강원도 표훈사 중향강원의 강주, 대각사의 제주강원에서 학인을 배출한 강사 스님이었다. 이세진 스님은 사찰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서관음사에 기와공장을 운영하기도 했다.

제주4.3사건이 발발하자 이세진 스님은 입산해 이덕구가 이끈 무장대의 도당사령부에서 활동했다. 도당사령부는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세진 스님은 유격대장 이덕구와 함께 관음사를 근거지로 활동했으며 권총을 차고 다녔다고 한다.

1949년 1월 4일 토벌대 대장 함병선은 육해공군 통합작전으로 대대적인 소탕작전을 전개했다. 1949년 2월 12일 관음사가 불 질러지고, 무장대가 관음사전투에서 패하면서 이세진 스님은 귀순했다. 비행기로 귀순 삐라를 뿌렸는데 그 무렵쯤 귀순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이세진 스님은 주정공장에 감금됐다. 당시 관음사 스님과 신도들이 면회하러 다녀오기도 했다. 면회를 다녀온 광순 스님은 밀밥을 먹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과 취조하는 비명 소리와 고함 소리, 죽어나오는 시체 등으로 주정공장 면회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세진 스님은 주정공장에서 풀려나 관음사포교당에 머물고 있던 중 다시 잡혀가 산지 바다에 수장됐다. 1949년 여름 무렵이었다. 이와 관련 이세진 스님에 대한 연구가 있다.(한금실, '이세진의 제주불교혁신운동 연구')

서관음사가 있던 도평리는 1949년 1월 3일 토벌대의 함정토벌로 도평리 마을주민 70여 명이 학살됐다. 외도지서 경찰과 군인이 무장대로 가장하고 주민들에게 무장대에 협조할 것을 종용하면서 무장대 협조 세력을 찾아내기 위한 함정을 꾸몄다. 그러나 이들의 얼굴을 알아본 주민들은 경찰 등이 위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지 않았다. 토벌대는 주민들을 도평국민학교 운동장에 집결시켜 주민 70여 명을 총살했다. 그리고 도평리 마을을 불 질렀다.

도평리 사라마을에 있던 서관음사도 토벌대에 의해 불태워졌다. 1980, 90년대 경까지도 서관음사 터에 미륵석불이 남아있었다고 전한다. 서관음사는 이세진 스님의 수장과 토벌대의 방화로 재건되지 못하고 폐사됐다.



한금순(제주대 외래교수)

대한불교조계종 제36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 금산사
제17교구 신도회

회 장 이근재
차석부회장 홍대법성
부 회 장 문석순 조영석 김영섭 나유인 강철기
최병헌 박두섭 강석춘 정순례 이정희
한덕남 홍영옥
사무처장 이원일



전북 김제시 금산면 모악 15길 1 전화 063)548-4441~2 | 팩스 063)548-1390

우주의 신비가 호흡에 있다 - 호흡의 비밀을 풀다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30분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고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뇌의핵심 <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 (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제6차크라 열리기 전·후 비교사진



2015년 8월 4일



2017년 1월 9일

※ 페이스북에서 'Sung Ho Park' (처명선광) 검색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 (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 후원계좌 : 국민은행 (611225-92-121426 박성호)

만트라 염불禪치료 명상과학연구소 (소장 : 처명)

조선 승려·儒子·중인 교류 계기는 '다산'



박동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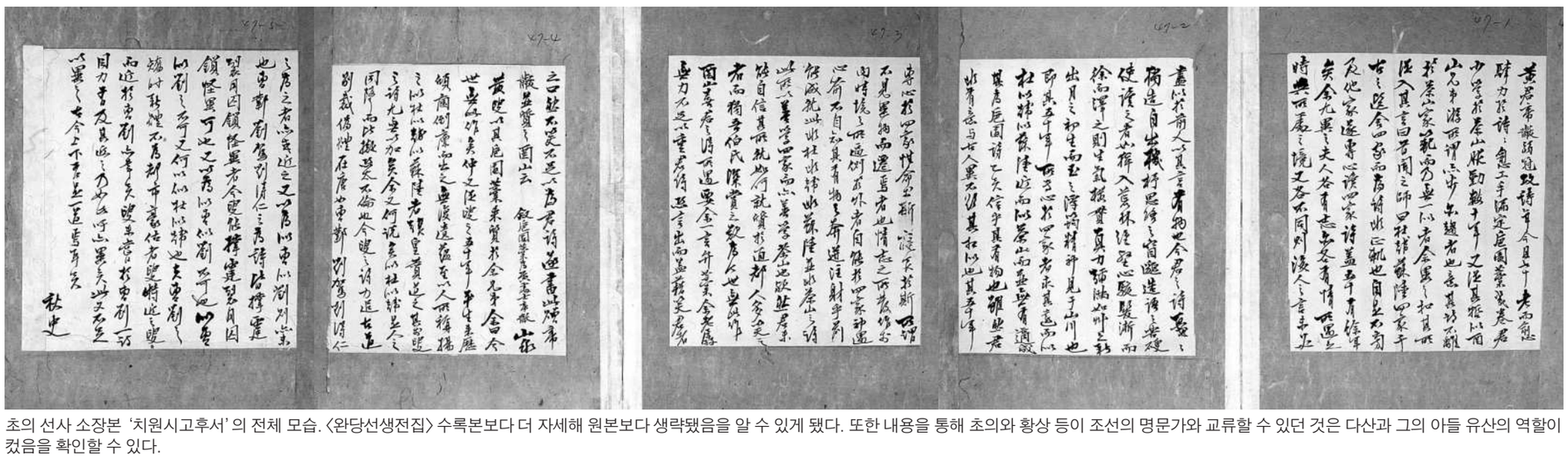
초의스님 前上書

㉑ 추사 김정희의 '치원시고후서'

조선 후기의 인물 황상(1788~1863)은 다산 정약용이 강진 유배 시절에 기른 첫 제자 그룹에 속한다. 시에 밝았던 그가 스승에 대한 의리를 평생 잊지 않고 지킨 인물됨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자신이 지은 시에서 골라 편집한 시 뭉치를 들고 추사 김정희(1786~1856) 형제를 찾아가 질정을 요청했던 사실은 〈완당선생전집〉 권6에 수록된 '치원시고후서(巵園詩藁後序)'에서 확인된 바이다. 그런데 〈완당선생전집〉에 수록한 '치원시고후서'는 원래 지었던 글보다 생략되었고, 이 사실은 초의 소장본 '치원시고후서'를 통해 밝혀진 셈이다.

특히 이 자료는 추사체와 비슷한 서체로 필사된 것이라는 점에서 초의 주변 인물의 필사본으로 추정된다. 필사본 '치원시고후서'의 크기는 24.3×20.9cm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초의 선사 소장본 '치원시고후서'의 전체 모습. 〈완당선생전집〉 수록본보다 더 자세해 원본보다 생략됐음을 알 수 있게 됐다. 또한 내용을 통해 초의와 황상 등이 조선의 명문가와 교류할 수 있던 것은 다산과 그의 아들 유산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할 수 있다.

초의 소장 필사본 '치원시고후서'
〈완당전집〉수록본 보다 더 자세해
다산 中人 제자 황상 詩格 상찬

승려 · 중인 등 명망가 교류 뒤엔
다산과 아들 유산이 있어 가능해

황군 제불(帝黻, 황상의 호)은 20세(弱冠)에 시(詩)에 능했다. 지금 나이도 칠십이나 되어 늙었는데도 더욱 시에 힘써 시가 더욱 공교(工巧)하며 치원시고(巵園詩稿) 수권(數卷)을 손수 편정(編定)하였다. 황군은 젊어서 다산에게 배워 수십 년을 부지런하게 따랐으며 또한 그러한 사람을 따라 유산형제 같은 이들과 교유하니 소위 걸으면 따라 걷고 빨리 걸으면 따라 빨리 걷는 자이다. 그 시가 다산의 규범을 떠난 것은 아닌데도 곧 하나도 비슷한 것이 없는 것이 나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따라 들어가는 바를 물으니 말하기를 옛날에 들으니 스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보, 한유, 소식, 육유, 사가(四家)는 천고에 뽑을 만한 사람들이니 사가를 버리고 시를 짓는다면 바른 규범이 아니다' 라고 하셨다. '스스로 다른 집의 근방에도 가지 않고 마침내 전심으로 사가의 시를 읽은 것이 거의 오 십 여년이나 되었다' 하니 내가 더욱 이상하게 여겼다. 대저 사람은 각기 뜻이 있고 또한 각각 정이 있어서 만나는 때와 처한 경우도 각기 다르니 즉 후인의 말이 반드시 앞 사람과 다 같지는 않아서 그 어떤 물건을 말한 것이다.

지금 황군의 시는 어근버근하게 혼자 만들어 스스로 베틀과 북에서 나와서 생각의 길이 멀고 만든 말이 세련되지 않아 읽는 사람들에게 마치 갑자기 황림과 절애에 들어가 마음으로 놀라고 머리털이 젖지만 천천히 풀어보면 생기가 이리저리 뚫리고 진력이 더욱 가득차서 마치 풀이 새 달에 처음 나온 것 같으며 옥이 윤기가 흐르며 정신이 산천을 보는 것과 같게 한다. 즉 오십년 동안 사가를 전심하여 멀리는 두보와 비슷하고 한유와 비슷하며 소식과 비슷하고 육유와 비슷하며 가까이는 다산을 닮기를 구했지만 모두 똑같이 만들지 않고 그 치원의 시를 만들었을 뿐이다. 그 물건 됨을 믿을 수 있다.

하지만 황군은 그 생각이 고인과 다른 것은 아니며 서로 닮고자하지 않았다. 그가 오십년 동안 사가에 전심하여 여기에서 성명(性命)을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침식하였으니 물건이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옮긴 것이라고 한다. 정과 뜻은 마음에서 나온 것이며, 때와 상황은 몸에 가까운 것이니 스스로 능히 사가의 정신을 만나서 마음으로 깨달은 것이며, 스스로 유물이 흩어지고 뿌려짐을 알지 못한 것이로다. 앞서 능히 이것을 성취하여 두보, 한유, 소식, 육유도 아니며 아울러 다산의 시도 아니다. 이것은 사가를 잘 배우고, 또한 다산을 잘 배운 것인가. 그러나 황군이 아직 스스로 그 나아갈 바를 믿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아가 거리의 다니는 사람에게 물으면 비웃는 자가 많고 오히려 나의 형만이 깊이 감탄하여 지금 세상에서 이렇게 짓는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였다. 유산이 황군을 얻고 만난 것을 기뻐하여 나에게 한마디 말과 글을 요구하였다. 내가 늙고 힘이 없어서 황군의 시에 거듭 하기는 부족하다. 말을 하면 그대의 입가에서 웃음이 낭자할까 두렵다. 그러나 웃지 말고, 부족하지만 그대의 시를 위해 마침내 이것을 써서 황상(제불)에게 주며, 아울러 유산도 참고해 주기를 바란다. (치원시고에 서문을 쓰는 것은 황 처사 제불을 위해서이다.)

황수(黃叟)가 그 시 치원고(巵園藁)를 가지고 와서 나의 형제에게 질정(質正)하므로 나는 '지금 세상에는 이런 작품이 없다' 고 말했고, 내 아우는 또 황상(黃叟)의 오십 년 평생 내력에서부터 시작하여 아낌없이 있는 대로 다 털어 내어 다시 남겨둔 것이 없었으며, 심지어 사람들이 칭송하는 두보(杜甫)와도 같고 한유(韓愈)와도 같으며 소식(蘇軾)·육유(陸游)와도 같다는 것을 장황히 늘어놓아 찬양하였으니 황상의 시에 있어서는 더욱 더할 수 없이 했다. 나는 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러나 두보와도 같고 한유와도 같다는 것은 본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요, 내 아우가 초창하여 비유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는 유독 시인하는 반면에 부인도 곁따른다. 두보는 시에 있어 만상(萬象)이 혼륜(混淪)하여 아무리 한유(韓)나 또는 소식(蘇)·육유(陸)라도 같게 할 수 없는 것이며 소식·육유가 한유에 있어서도 역시 같게 할 수 없다. 비록 사람들이 소리를 동일하게 하여 비의(比擬)한다 해도 너무나 어울리지 않을 성싶다. 지금 황상의 시는 힘써 고도(古道)를 따르고 위체(僞體)를 별재(別裁)하였으니 당(唐)에 있어서는 조업(曹鄴)·유가(劉駕)·유득인(劉得仁)이 한 것과 같다는 것은 혹 근사하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조업과 같고 유가와 같다고 한다면 역시 아니다.

조업·유가·유득인이 시를 하는 것은 모두 번갯불을 떠받고 달을 찢고 괴이(怪異)를 수쇄(囚鎖)한 것들인데 지금 황상은 능히 번갯불을 떠받고 달을 찢고 괴이를 수쇄한다는 것은 옳겠거니와 또 조업과 같고 유가와 같다고 한다면 불가하다. 조업과 같고 유가와 같다고 해도 불가한데, 또 어떻게 두보와 같고 한유와 같다고 할 수 있겠는가.

무릇 조업·유가의 그 당시 신체(新體)를 바로잡아 도시의 호고(豪估)를 위하지 않은 것만은 황치원이 특별히 가깝고 황치원도 조업·유가에 가까우니 역시 다행인 것이다. 치원이 일찍이 조, 유의 시를 한번 보고 미치기에 힘쓴 적도 없었는데 그 가까운 것이 곧 이와 같으니 또한 이상하다. 이것은 또 이상하다하기에는 부족하니 옛날과 지금, 위와 아래에 이르도록 이 일도(一道)가 있는 것이다. 추사

黃君帝黻 弱冠攻詩 年今且七十 老而愈肆 力於詩 詩愈工 手編定巵園藁幾卷 君少學於茶山 服勤數十年 又從其哲 似酉山兄弟游 所謂亦步亦趨者也 意其詩不離於茶山家範 而乃無一似者 余異之 扣其所從入 其言曰 昔聞之 師曰 杜韓蘇陸四家 千古之選 舍四家而爲詩 非正軌也 自是不旁及他家 遂專心讀四家詩 蓋五十有餘年矣 余尤異之 夫人各有志 亦各有情 所遇之時與所處之境 又各不同 則後人之言 未必盡似於前人 以其言有物也 今君之詩 戛戛獨造 自出機杼 思路之窅邈 造語之苦硬 使讀之者 如猝入荒林絶壑 心駭髮淅 而徐而澤之 則生氣橫貫 眞力彌滿 如草之新出月之初生 而玉之浮筠 精神見于山川也 卽其五十年 所專心於四家者 求其遠而似杜似韓似蘇似陸 近而似茶山 而並無有適成 其爲巵園詩已矣 信乎其有物也 雖然 君非有意與古人異 不欲其相似也 其五十年專心於四家 性命於斯 寢食於斯 所謂不見異物而遷焉者也 情志之所發作於內 時境之所逼側於外者 自能於四家神遇心喩 不自知其有物之奔迸注射乎 前能成就 此非杜非韓非蘇陸 並非茶山之詩 此所以善學四家 而亦善學茶山也歟 然君未能自信其所就 如何 就質於通都大人 多笑之者 而猶吾伯氏深賞之 歎爲今世無此作 酉山喜君之得所遇 要余一言弁藁 余老孱無力 不足以重君詩 恐言出而益藉笑君者之口 然不笑不足以爲君詩 遂書此贈帝黻 並質之酉山云 (敍巵園藁爲黃處士帝黻) 山泉黃叟以其巵園藁來 質於余兄弟 余曰 今世無此作矣 仲又從叟之五十年 平生未歷傾困倒廩而出之 無復遺蘊 至以人所稱揚之 似杜似韓似蘇陸者 張皇贊道之 其於叟之詩 尤無以加矣 余又何說矣 似杜似韓 是人之同聲 而比擬恐太不倫也 今叟之詩 力追古道 別裁僞體 在唐如曺鄴劉駕劉得仁之爲之者 亦或近之 又以爲似曺似劉 則亦未也 曺鄴劉駕劉得仁之爲詩 皆撐霆裂月囚鎖怪異者 今叟能撐霆裂月囚鎖怪異可也 又以爲似曺似劉不可也 似曺似劉之不可 又何以似杜似韓也 夫曺劉之矯時新體 不爲都市豪估者 叟特近之 叟而近於曺劉 亦幸矣 叟未嘗於曺劉一詩目力有及 其近之乃如此 吁亦異矣 此又不足以異之 古今上下有是一道焉耳矣 秋史

추사는 '치원시고후서'에서 황상은 시에 대한 관심이 컸으며, 이미 약관의 나이에 시에 능했던 인물이라 하였다.

황상은 중인이었다. 반상(班常)이 분명했던 사회의 분위기에서도 추사는 그의 시집에 서문을 써 주었으니 이는 추사가 어떤 인품의 소유자이며, 황상의 시격(詩格)이 얼마나 출중했던 지를 짐작하게 한다.

대개 조선시대 선비는 당송시대 필명(筆名)을 날렸던 두보(杜甫, 712~770)·한유(韓愈, 768~824)·소식(蘇軾, 1036~1101)·육유(陸游, 1125~1210) 등의 시품(詩品)을 흠모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두보는 당대의 인물로, 시성(詩聖)이라 칭송됐고 한유 또한 당송팔대가(唐宋八大家)로 이름을 올렸다. 이뿐인가. 소식은 조선의 선비가 가장 흠모했던 인물로, 그의 호는 동파(東坡)이며, 송대를 대표하는 문장가이다. 육유는 남송의 대표적인 시인으로, 중국 역사상 가장 많은 시를 남긴 인물로 회자된다.

바로 황상은 "오십년 동안 사가(四家: 두보, 한유, 소식, 육유)에 전심하여 여기에서 성명(性命)을 만들었으며 여기에서 침식하였던" 것이다. 물론 그는 다산에게 영향을 받았지만 그의 시에 근간은 당송의 문장가들인 셈이다.

한편 추사가 황상의 시집에 글을 써 준 또 다른 연유는 바로 유산 정학연(1783~1859)의 역할 때문이었으니 이런 사실은 "유산이 황군을 얻고 만난 것을 기뻐하여 나에게 한마디 말과 글을 요구하였다."라고 한 것에서 드러난다.

아무튼 황상과 초의, 이들이 지체 높은 명문가와 교유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유산의 역할이 컸다. 황상이나 초의가 당대의 걸물로 칭송될 수 있었던 실질적인 토대는 다산과 그의 아들 유산이었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한 자료라고 하겠다.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창 종 공 고

사단법인 대한불교대경조계종

(문화관광부허가 제2017-10호 법인등록171321-0004642)



총무원장
천고당 태룡 스님

(사)대한불교대경조계종은 불조인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의지하고 본 종은 석가세존의 자각자타 각행원만한 교리를 봉체하고 대승불교 사상과 중도관을 용으로 진언밀교 종풍을 선양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과 호국불교 생활불교 실천불교로 광도중생함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창종의 변을 제방에 고합니다. 제방의 큰 스님들과 법사님 및 포교사를 모십니다.

승정원장 **일월** 감찰원장 **혜성** 법계고시원장 **정란** 교육원장 **해룡**
호법원장 **성담** 포교원장 **정허** 연수원장 **도국** 비구니원장 **용정**

❑ 종단사업 :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사업 · 장례문화 및 납골당 사업 · 승려 등 수행자 복지사업 · 교정사업 · 다문화 전통문화사업

입 / 종 / 안 / 내

◆ 입종 구비서류
승려 및 법사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반명함판 사진 3매
법당 안팎 사진 1매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1부.

▶ 입종 종도는 승려증(법사증), 사찰등록증, 주지 임명장과 간부스님 한해서 위촉장 및 추대장 수여합니다.

▶ 본 종단은 개인사암의 재산권에 대해서는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 총본사 / 총무원 : 천룡사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1길 27-15호 (송천동) ✪ 총무원 전화 054)823-6777 직통 010-4053-2722

*본 종단은 상호간의 협의를 통한 종무행정을 기본으로 삼고자 합니다





안동 석탑사에서 도난과 유출로 사라진 불화들, 사진 왼쪽부터 석탑사 아미타불도, 삼장보살도, 신중도.

도난 정보·옛 조사 차이… 연구 필요한 불화들



최선일의
다시 찾아야 할 聖寶들

㉑ 안동 석탑사의 도난 성보

한국 유교문화의 산실인 안동에 많은 사찰이 운영된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동안 유교가 지켜야 할 덕목과 규범을 가르칠 수 있지만, 돌아가신 망자(亡者)에 대한 추모와 내세관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인간의 삶과 죽음은 사찰 전각 배치에서도 알 수 있는데, 조선 후기 대웅전을 중심으로 좌우로 영산전과 명부전이 건립된 것은 당시 스님이나 신자들이 바라던 믿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경북 지역에서 안동에 가장 많은 사찰이 건립되어 운영된 것은 이러한 지역민들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동에 있는 사찰은 사적기를 비롯한 많은 문헌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에 한계를 느끼는 경우가 많다. 석탑사(石塔寺)도 그 중 하나의 사찰이다.

석탑사는 학가산 자락 계곡을 낀 평지에 지어진 사찰이다. 석탑사의 남쪽 넓은 터에 안동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이 자리하고, 탑의 북서쪽 모서리에서 20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사찰이 위치해 있다. 석탑사에는 원통전, 산령각, 범종각, 요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그 주위로 돌담이 쌓여 있다.

석탑사는 1913년 2월 사찰령에 의하여 고운사 본말사법이 시행됐고, 현재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孤雲寺)의 말사이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에 창건된 사찰이라고 전하지만, 창건연대 및 창건주는 알 수 없다.

석탑사라는 절 이름은 주변에 돌무지로 쌓은 네모난 석탑과 관련된 듯하고, 이 석탑은 신라시대 의상(義湘)의 제자이며 봉정사(鳳停寺)의 창건주인 능인(能仁) 스님에 얽힌 설화가 전한다. 〈영가지(永嘉誌)〉에 보면 능인대사가 이곳의 굴에서 은거하는데, 영주 부석사 스님 1천여 명이 그를 만나러 왔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게 되었다. 이 때 스님들은 각각 돌을 모아서 한 곳에 쌓았고, 이것이 남아있는 방형의 석탑이라는 전설이 전한다. 고려와 조선시대 사찰의 연혁을 알 수 있는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석탑사에 전하는 '학가산신흥암기'(현판)를 보면 1790년에 중건되고, 1803년에 후불도가 조성되었다.

현재 사찰 내에 남아있는 성보문화재는 목조관세음보살좌상(도 유형문화재 368호)과 안동석탑리방단형적석탑(도 문화재자료 343호)뿐이다. 목조관세음보살좌상은 높이 42㎝의 소형보살상으로, 조선 전기 보살상의 양식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산신도는 19세기 전중반의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을 그린 불화이다.

20세기 전반 석탑사에 소장되었던 성보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과 조선총독부 관보본에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20세기 전반에 작성된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에 의하면 석탑사에 봉안된 성보문화재는 17건 28점으로, 이 중에 불상 1점, 불화 4점이 소장돼 있었다. 또한 1932년 12월 24일에 작성된 조선총독부 관보에는 불상 1점, 불화 5점으로 산령탱 1점이 늘어났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재산대장을 살펴보면 20세기 전반 석탑사에 봉안된 불화는 아미타불도, 지장시왕도, 감로도, 제석도, 산신도이다. 그러나 석탑사에서 1991년 1월 20일에 도난당한 불화는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에 신고되지 않았고,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에 삼장보살도(1699년), 후불도(아미타불도, 1803년 제작), 신중도(1844년 제작)만 신고되어 있다.(〈불교문화재 도난백서 증보판〉, 2016년 간행)

따라서 도난당한 유물 가운데 삼장보살도는 원래 석탑사의 불화가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후 다른 사찰에서 이운되었다가 도난당한 것이고, 감로도는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조선총독부 관보 제1790호 9면(1932년 12월 24일)					비고
명칭	품질	수량	명칭	수량	품질	형태	크기	
阿彌陀佛畵幀	紙紗	1	阿彌陀佛幀	1	紗製	掛圖	縱 3尺8寸 橫 5尺8寸	도난
觀世音菩薩等像	木 塗金	1						
地藏菩薩幀	紙紗	1	地藏菩薩幀	1	同	同	同 6尺 同 6尺5寸	도난
甘露幀	〃	1	甘露幀	1	同	同	同 2尺2寸 同 3尺3寸	유출
帝釋幀		1	帝釋幀	1	同	同	同 1尺8寸 同 1尺4寸	도난
			山靈幀	1	紗製	掛圖	縱 2尺4寸 橫 2尺4寸5分	

안동 학가산에 자리한 석탑사
불상 1점, 불화 5점 있었지만
현재 불화 도난·유출로 유실
신고 내역과 근대기 조사 차이

목련존자가 돌아가신 어머님을 위해 천도재를 지냈다는 〈우란분경〉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그려진 감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16세기 이후부터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석탑사 감로도 또한 화기와 형태를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남아있지 않지만 영가천도를 위한 의식용 불화로 조성 봉안되었으리라 여겨진다.

아미타불도는 세로 115㎝, 가로 176㎝(조선총독부 관보본에는 세로 3척8촌 가로 5척8촌) 크기로 1803년 마바탕에 그려졌다.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불은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모습으로 아미타수인을 결하고 있다. 양협시 가운데 관음보살의 보관에는 화불이 표현되었고 대세지보살의 보관에는 정병이 그려져 있다. 협시보살을 비롯한 보살들의 자세가 자유스럽게 묘사되어 있고 아미타불의 두광 양옆에 배치된 아난과 가섭 등 제자들의 시선 처리와 가사 끝단에 그려진 문양표현이 다채롭다. 적색과 녹색 청색을 주로 사용하면서 채운과 서기 등의 표현에서는 백색으로 강조하고 있다.

삼장보살도와 함께 아미타불회도는 도난백서에 신고된 내용과 일제강점기 당시 재산대장의 기록과 달라서 불화의 재질이 삼베인지 비단바탕에 그려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실정이다. 19세기에 그려진 불화의 특색이 신광 시문의 새로운 범례와 중간색의 사용 등에서 엿보인다.

삼장보살도는 1699년 마바탕에 채색되어 그려진 세로 165㎝, 가로 200㎝ 크기의 중단의궤용 불화이다. 삼장보살은 앙련과 복련의 연화대좌 위에 가부좌한 모습의 좌상으로 표현되었으며, 화면 중앙에 천장보살을 그리고 향좌측에 지장보살, 향우측에 지지보살을 배치하였다. 화기는 보이지 않아서 잘려나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림의 박락이 심하여 훼손돼, 보존상태가 좋지 않다. 원형의 두광과 신광이 표현된 삼장보살도는 모두 정면을 향해 가부좌한 모습으로 보관을 쓰고 아미타수인을 결하고 있다. 어깨는 둥글게 표현되었으며 가슴에는 화려한 영락을 표현했고 어깨에서 내려오는 천의의 선을 굵은 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원형 두광의 바탕은 녹색으로 채색되었으나 중앙의 천장보살의 신광, 지장보살의 두광에는 화문이 그려져 이색적이다. 천장, 지지, 지장의 삼장보살도는 소의경전이 없어서 도상의 형식과 존명의 명칭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문헌 등을 통해서 수륙재 등의 불교의식용으로 조성 봉안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신중도는 문헌에 제석탱(帝釋幀)으로 기록된 불화로, 도광 24년인 1844년 마바탕에 그려진 1폭의 세로 101㎝, 가로 100㎝ 크기이다. 신중도의 구성을 살펴보면 위태천과 제석천이 화면의 중앙에 크게 자리를 잡고 배치되어 있으며 에워싸듯이 권속이 화면을 가득 채워 표현한 형식이다. 화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크기와 배치를 통해 천상의 위계를 표현했다. 좌우 대립적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있으면서 또 상단과 하단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에는 적색 바탕에 묵서로 쓰여진 화기가 있다. 위태천과 제석천은 모두 화면의 정면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며, 위태천은 깃털장식이 달린 투구를 머리에 쓰고 있다. 제석천은 오른손을 가슴 위까지 들어 올려 연꽃 한 송이를 손에 쥐고 있는 형상이다. 바로 아래 천신들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얼굴을 약간 비스듬하게 좌우로 향하고 있으며 머리엔 화려한 보관을 쓰고 원형의 두광을 두르고 있다.

안동 석탑사 신중도 화면의 크기를 살펴보면 1932년 관보본에 기록된 크기는 세로 1척 8촌, 가로 1척 4촌으로 도난신고된 크기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불화의 재질에서도 조선총독부 관보본에서는 비단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본 유물대장에서는 종이바탕에 채색되어진 것으로 적혀있다.

〈문화재청 인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감정위원〉
공저=홍은미 옥천사성보박물관 학예실장



보시·생산 간 선택은 원칙·실존의 고민



조기룡의
사찰경영, 산문에 들다

㉑ 사찰의 상업행위



보시를 하는 불자들의 모습. 신도들은 사찰에서의 보시가 불교공동체의 운영 기반이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부동산 광고매체에 교회 매물이 넘쳐나고 있다. 교회매매 전문 사이트가 있을 정도다. 교회매매에는 신도 수까지 계산되어 가격이 책정된다는 뉴스가 공중파의 유명 탐사 프로그램에서 보도되기도 하였다. 종교의 차이를 떠나 현시대의 종교인으로서는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불교계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불교계 신문에는 사찰과 포교당 매물 광고가 지면을 차지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는 사찰매매 전문 사이트들이 존재한다.

종교시설 매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종교는 영리사업이 아니다'라는 당연한 명제에 기인한다.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런데 종교시설 매매가 영리사업으로 되는 것은 교회의 규모 즉 건축물의 크기와 신도의 수를 일정 부분 성장시킨 후 매매하여 수익을 챙길 때다. 이는 분명 종교적으로 비난 받아야 할 영리행위이다. 그런데 순수한 신앙심으로 전도 또는 포교를 하고자 종교시설을 건립하였지만 재정 부족으로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에 대해선 이해를 달리해야 한다. 불교적으로 설명하면, 전법교화의 순수한 원력으로 사찰과 포교당을 창건하였으나 현실적인 운영상의 문제로 폐사(閉寺) 혹은 매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선 비난이 아닌 분석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사찰이 문을 닫는 가장 큰 이유는 재정의 부족이다. 그 원인에 대해선 신도의 감소 또는 사찰경영의 미흡 등 여러 가지를 들 수도 있으나 종국에는 재정의 부족으로 귀착된다. 여타의 조직운영과 마찬가지로 사찰의 운영에도 재정 즉 재화가 소요됨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혹자는 스님의 삶을 무소유라고만 여긴 채 사찰의 운영에는 세속적 고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가분물(可分物)과 불가분물(不可分物) 그리고 이외 물건에 대한 율장의 소유 조항에 대한 적용을 떠나서, 스님의 삶이 무소유라고 하여도 사찰의 운영에는 상응하는 재화가 든다. 스님의 수행자로서 삶과 사찰의 살림살이는 상당부분 다른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하여, 한국불교에는 이판(理判)과 사판(事判)이 존재해왔다. 이판은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을, 사판은 사찰의 살림살이에 힘쓰는 스님을 지칭한다. 이사무애(理事無礙)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대부분의 사찰에서 스님들은 사(事)에 부딪혀 이(理)에 장애를 겪는다. 출가자라면 누구나 이판승으로서 수행자의 삶이 원칙임을 알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실존을 위한 살림살이를 책임져야 하기에 사판승의 소임을 사는 스님도 있어야 한다.

이(理)는 원칙이요, 사(事)는 실존이다. 다시 말하면 수행은 원칙이요, 살림살이는 실존인 것이다. 인간의 삶에 있어서 원칙과 실존은 모두 중요하다. 그런데 원칙을 지키면서도 실존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적지 않다.

흔히 사람들은 원칙이 아닌 실존을 선택하는 행위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비난한다. 하지만 서산(西山)대사로 보다 더 잘 알려진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의 선택을 사례로 생각하면 원칙과 실존 간에서 실존의 선택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음을 알게 된다.

서산대사는 일반인들에게 의승군 또는 승병장으로 대부분 기억되어 있다. 아마도 초·중등학교 국사시간에 그렇게 배우고 외웠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서산대사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선승(禪僧)이었다. 그런 선승에게 있어서 임진왜란의 참전은 곧 불교의 최고 금계(禁戒)인 불살생계를 범해야 함을 의미한다. 어찌 고민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서산대사는 조선불교의 실존을 위하여 참전을 결정했다.

숭유억불(崇儒抑佛)의 조선에서 불교는 부모를 떠나서 임금이 아닌 부처를 섬기는 무군무부(無君無父)한 집단이었으며, 수행이라는 이유로 일하지 않고 방에 들어박혀 있는 무위도식(無爲徒食)한 집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국가인 조선에서 승려는 최하층 천민이었다. 이런 처지에서 임금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서산대사에게 승려들의 참전을 요청한 것이다. 당시 서산대사는 승려의 최고 지위인 도총섭(都摠攝)이었으며, 참전의 거절은 유교적 명분이 없었던 조선불교의 멸절(滅絶)을 초래할 수 있었다. 서산대사는 지계(持戒)의 원칙과 조선불교의 실존 사이에서 갈등하고 최종적으로 실존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선택을 어찌 말 몇 마디로 간단하게 비난할 수 있겠는가.

재정부족, 폐사의 주원인
일부 사찰생산으로 재정 충족
재산 증대 · 영리 추구 경도 경계

굳이 청허 휴정의 사례까지 든 이유는 현재 많은 사찰들이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실존의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들 사찰들이 실존을 위하여 율장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물건을 사고파는 매매행위를 하고자 고민하거나 실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불교와 상황과 정도는 다르지만 현대 한국불교도 지계의 원칙과 사찰의 실존 간에서 선택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사찰의 재원은 신도의 보시에 의하여 충당됨이 원칙이다. 하지만 한국불교에서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찰이 실존을 위하여 생산행위를 하고는 한다. 실제로 한국사찰에서는 보시와 생산이 병존하는 경우가 많다.

초기불교에서는 남에게 무엇을 베풀어준다고 하는 보시(布施)의 공덕이 크게 강조되었다. 특히 출가자에 대한 보시는 종교적인 공덕을 가져오는 것이라 하여 매우 권장되었다. 그렇다고 보시의 덕이 재가자에게만 설해진 것은 아니었다. 출가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중요한 덕목이었지만 출가자는 가족과 재산을 여의고 떠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베풀어줄 물건이나 재화가 없었다. 그리하여 물건이나 재화 대신에 설법을 재가자에게 베풀어주도록 하였다. 출가자는 법시(法施)로써 재가자는 재시(財施)로써 서로 보시하는 상호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이 출가자와 재가자는 법시와 재시로써 상호 연결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가자의 재시는 사찰의 주요한 재원이 되었다. 특히 초기불교 교단에서는 출가자의 경제 행위가 일체 금지되었기 때문에 재시가 유일한 사찰의 재원 충족 방법이었다. 즉 당시의 출가자는 직접 경제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다만 이 보시물을 잘 관리함으로써 불교교단을 유지하여야 했던 것이다.

그것은 당시의 다른 교단도 모두 그러했던 것으로 출가자의 생활목표의 첫 번째가 수행하는 데 있었고, 수행자는 걸식으로 식생활을 해결하는 것이 인도 고래의 사회풍습이었으며, 또한 거처도 수하암상(樹下巖上)이 권장되었기 때문에 생산 활동을 할 필요가 없었던 데 연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일체의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없었으며 재가자의 보시물만이 사찰 재원이었다.

그러나 초기불교의 인도 상황을 현대 한국불교에 그대로 접목할 수는 없다. 초기불교에서 물질적 · 경제적 토대가 무시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출가자들이 그러한 토대 없이도 수행자로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 · 자연적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는 재가자의 재시에 의하여 사원이 운영이 가능하였으며, 자연적으로는 온화한 날씨로 인하여 출가자가 수하암상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현대 한국불교의 상황은 이와는 전혀 다르다. 재가자의 재시만으로는 사찰이 존속될 수 없으며, 엄동설한(嚴冬雪寒)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무 아래와 바위 위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국, 중국 또는 일본은 인도와는 그 사회적 · 자연적 환경이 전혀 달라서 출가자들은 의식주 등 생존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대부분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농경시대의 동북아 스님들은 선농불교(禪農佛敎)를 선언하고 직접 논과 밭에 농사를 짓거나, 사하촌 사람들에게 소작을 주었다. 그리고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선농불교에서 나아가 생산불교를 도모한다. 사찰이 소금이나 된장 등 식품류의 생산 및 판매, 건강보조제 성격의 약품류의 생산 및 판매, 사찰음식이나 국수를 파는 음식점의 운영, 불교용품점이나 찻집의 운영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초기불교 인도와는 다른 시대적 · 사회적 환경에 적응한 한국불교의 실존적 노력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핵심은 사찰을 유지 · 운영하는 수단이 재가자의 보시에서 사찰의 생산 활동으로 변화한 것이다. 즉 보시와 더불어 생산 활동이 사찰 재원의 충족 방법이 된 것이다.

하지만 사찰 재정의 충족 원칙은 분명히 신도의 보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가자의 마음에는 '보시가 최선이고 생산은 차선이다'라는 생각이 자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조직으로서 정체성을 망각하고 영리조직처럼 수익 창출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출가자는 사찰의 생산 활동이 스님의 소유 재산 증대나 영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승가공동체의 소유로써 재원을 충족하는 행위이고 나아가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쓰여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chokiryong@dongguk.edu〉

참 된 나를 찾는 60일간의 여정
불기2562(2018) 무술년
재가(在家) 동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되시길 발원합니다.

수행기간
불기 2562(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부터
불기 2563(2019)년 01월 22일 화요일 까지

방 법
- 부처님의 제자임을 자각하는 [삼귀의]
- 나와 이웃의 행복을 발원하는 [수행서원문 염송]
-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1일 1선행]
- 대중의 역량에 맞추어 수행하는 [선택수행]

대 상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접수 및 문의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051)501-7554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수계를 받은 이를 불자라 하고,
삼귀의·오계 수계를 받은 불자만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듯이….

불교신도로서 책임과
지혜로운 생활을 다할 때
우리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지켜갈 수 있습니다.

좋은 인연에
동참 바랍니다.

삼귀의·오계
수계대법회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문의 : 051)501-7554
접수 : 소속사찰 종무실
등참금 : 1만원

전계사
성우 대종사
(대한불교조계종 전계대화상)

일시
2018년 11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장소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컨벤션센터

중생 위해 부처님께 수행법 묻다



원욱 스님의 경전산책

⑩ 〈원각경(圓覺經)〉 3

중생이 부처님처럼 살기를 원하면 그 때부터 보살이라 불린다. 보살의 수행은 자리이타로 일체 모든 생명을 나와 더불어 평등하게 여긴 곳에서 출발한다. 중생의 마음, 보살의 마음, 부처님 마음 이 중에서 우리를 사로잡는 것은 당연히 부처님 마음이다. 바로 원각(圓覺)이다.

"선남자여, 이 〈원각〉은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과 바라밀을 언제나 갖추고 있어서 다 이 원각을 밝게 비춤으로 인하여 청정한 경지에 이르러 무명을 영원히 끊어버리고 부처님이 되신 것이다."

문수보살에게 들려주는 가르침이다.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을 등불 없이 어둠에 갇혀있다 하여 '무명(無明)'이라 부른다. 그 무명으로부터 벗어나는 법이 원각의 길이니 지혜를 가까이 하여 그 지혜에 의해 존재의 '空性'(공성, 조화와 공존)을 잊지 말라 하신다. 불성이 있다고 누구나 성불하진 않는다. 스스로 불성을 빛나게 하는 이라야 부처가 되는 것이다.

문수보살의 2, 3번의 질문에 대한 답도 상세히 알려주신다.

"알거나 느끼는 것도 마치 허공과 같고, 허공인줄 아는 것도 허공 꽃의 모양이거니와 알거나 깨닫는 성품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있다, 없다하는 이 분별심을 넘어서야 비로소 청정원각을 수순한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공의 성품은 본래 고요하여 요동하는 법이 없다, 여래장 속에서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없기 때문이며 알거나 보는 것이 없으며 법계의 성품이 원만하여 시방에 두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인지법행이다. 보살수행자들은 이로써 대승법에 청정한 마음을 일으킬 것이고 말세의 중생들도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삿된 견해의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원각경〉은 12명의 제자들이 부처님께 원각에 이르는 길을 날카롭게 질문하고 상세한 답변을 들려주시는 내용이다.

먼저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인지법행에 관해 묻자 부처님은 무명을 청정한 원각으로 물리치며 부처의 경지로 전진하라고 답하신다.

두 번째 실천의 상징인 보현보살은 수행의 실체에 관해 묻자 환(幻, 허망한 성품)을 벗어나는 방법을 원각묘심인 본각(本覺)에 대해 설명하신다.

세 번째 보안보살은 마음쓰는 법을 질문하자 부처님은 점차적으로 수행하고 반드시 방편을 세워 관행하여 부처님 세상을 보도록 인도하신다.

네 번째는 금강장보살로 중생미혹의 본질에 대해 묻자 미혹의 생성과 소멸을 낱낱이 분석해주며 의심을 타파한다. 또한 중생이 원각 그 자체임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신다.

다섯 번째 미륵보살은 중생이 윤회하는 까닭을 묻자, 부처님은 의심을 풀어줘도 중생심이 꿈틀거리는 것은 오로지 근본욕망인 애욕 때문이니 애욕은 자비심으로 풀도록 하고, 윤회의 본질과 벗어나는 길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잊지 않으신다.

여섯 번째는 청정혜보살로 어리석은 중생심을 청정케 하는 수행의 계위를 묻자 수행은 체험이니 단계적으로 설명하신다.

일곱 번째는 위덕자재보살로 관법수행을 묻자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3관수행을 말씀하신다. 분노를 다스려야 하는 순간에 수행해서 화내기 전으로 돌아가 평온을 유지하라신다.

여덟 번째 변음보살은 앞에서 말한 삼관을 닦는 순서를 묻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 25가지 방법으로 설명하며 수행에 관한 총체적인 설명을 하신다.

아홉 번째 정제업장보살이 등장하여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인 미세한 업장, 바로 사상(四相)을 제거하는 방법을 물으니 미혹을 끊고 성불의 원인을 완성하라며 상세히 설명한다.

열 번째는 보각보살로 참선하는 중에 생기는 병은 어떻게 고치는가 질문하니 스승을 의지하여 작지임멸(作止任滅)의 병을 치유해야만 청정이 무엇인지 안다고 말씀하신다.

열한 번째는 원각보살로 여래가 떠난 후 말세중생의 수행을 묻자 업장 참회를 위해 자신의 근기에 따라 날짜를 정해 참회와 사유하는 수행에 관한 도량수행법을 말씀하신다.

열두 번째는 현선수보살로 후대에 제자들은 어떻게 수행하고 살 것인지에 대한 신수봉행(信受奉行)을 질문하자, 경전의 이름 다섯 가지를 설명하며 유통공덕을 말씀하신다. 〈끝〉

〈서울 반야사 주지〉

내 속의 아는 능력 생기는 과정



김원수의 〈금강경〉 강의

㊴ 마음수행법

선지식의 가르침대로 '어머니는 허약해서 내가 없으면 죽을 것만 같다'라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치니, 내 안에 있는 불쌍하게 보는 마음(소질)을 어머니에게 단단히 붙여 놓고, 정말 불쌍한 존재로 착각한 것이 분명하게 알게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분별심을 상대에게 탁 덮어씌우고 보니 상대가 제대로 보일리가 있느냐는 선지식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내 마음(분별심)이 바로 세상을 만들었다는 것을 공감하며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실감났습니다.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너를 효자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밝은 이가 보면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네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네 어머니는 실은 네 어머니가 아니요 어머니라는 네 생각일 뿐이다. 그것은 네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왜냐하면 마음 밖의 모든 현상(어머니를 포함)은 네 분별심이 만들어낸 허상이기 때문이다. 네가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 세상에 나간다면, 너는 세상에 나가서 반드시 불쌍한 존재가 될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 이치로 네가 세상을 꾸짖는 것은 실상 세상을 꾸짖는 것이 아니요, 바로 자신을 꾸짖고 욕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딱하고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이 자신을 불쌍한 존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도장에서 어머니를 불쌍하게 보는 그 마음을 해탈하지 않고 사회에 진출하게 되면, 나는 불쌍하고 무능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선지식께서는 어머니와의 업보를 해탈하지 않는 한, 즉 내 마음 속에서 사람을 불쌍하게 보는 사고방식을 없애지 않는 한, 제대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고 단정하여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은 불교수행과 사회생활을 연관시키는 법문인데, 이 법문이 처음에는 상당히 생소하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불교수행이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불교는 마음 닦아 생사해탈을 하는 가르침일 뿐, 현실에서 잘 사는 것이나 무능력자가 인재가 되고 영재가 된다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소질이 어머니를 불쌍한 존재로 보게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그 생각을 부처님께 바쳤습니다.

나는 내 마음속 불쌍하게 보는 소질에 대고 '미륵존여래불'을 정진한 결과,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에서 차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에는 반드시 어머니의 딱한 모습이 떠오르곤 하는데, 그 얼굴에 대고 '미륵존여래불'을 계속 염송합니다.

정진을 하는 중에 어느 때는 어머니가 노란 옷을 입고 나를 향해서 오는 모습이 떠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이면 어머니가 노르스레한 옷을 입고 수도장으로 나를 찾아오곤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금강경〉 공부를 통하여 어머니가 올 것을 미리 알게 된 것입니다.

어느덧 내 속에도 부처님처럼 무엇인가 아는 능력이 분명 존재한다는 믿음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금강경〉 공부 결과 비몽사몽 간에 알게되거나 보는 현상을 우리는 '경계'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경계로 현실을 파악해 알 수 있었고, 또 꿈으로도 궁금하였던 여러 가지를 알게 되어 해답을 얻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해답은 분별이 소멸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지혜라 할 수 있습니다. 큰 분별심이 사라지면 더 큰 지혜가 나타날 것입니다.

〈사회복지법인 바른법연구원 이사장〉



청운 스님의 생활속 '이뭣고' 수행

불자(拂子) '이 뭣고'

백장선사가 마조선사를 친견하러 갔을 때 마조가 불자(拂子)를 꼿꼿이 세우자, 백장이 물었다.

"이것 그대로 마음을 씁니까?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씁니까?"

마조가 불자를 선상 귀퉁이에 걸어놓고 말없이 있다가 물었다.

"그대는 훗날 이렇게 두 입술을 함부로 놀리면서 어떻게 사람을 가르치려는가?"

이에 백장이 마조의 불자를 빼앗아 꼿꼿이 세우자 마조가 말했다.

"이것 그대로 마음을 쓰는가? 아니면 이것을 떠나서 마음을 쓰는가?"

백장이 불자를 들어 선상 귀퉁이에 걸었더니 마조가 우렁찬 할을 내지르니, 백장은 그 소리를 듣고 3일 동안 귀가 먹어 버렸다.

마조는 일없이 불자를 세워 잠잠한 백장의 가슴에 파란을 일으키려 했으나, 백장은 스승의 의중을 간파하고 먼저 질문을 던진 것이다. 백장이 제기한 문제는 가문의 비밀을 백일하에 누설한 것이며, 마조 자신의 보검(寶劍)을 탈취해 휘두른 것과 같았다.

불자(拂子)를 우진(拂塵)이라고도 한다. 이는 수행자가 마음의 티끌, 번뇌를 털어내는 데 사용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불구(佛具)이다. 그러나 '이 뭣고'는 생활속에서 반야지혜를 살려 쓰는 활용(活龍)이며 찰나에 번뇌(煩惱)를 소멸시키는 금강보검(金剛寶劍)의 작용(作用)이다.

수산주가 지장계침선사를 찾아가니, 수산주에게 묻기를 "어디서 오는가?"

수산주는 "남방에서 옵니다" "남방의 불법(佛法)은 요즘 어떠한가?" "분별(分別)이 끝이 없습니다." 이에 선사가 "어찌 여기서 밭에 씨앗을 심어서 밥을 먹는 것만 하겠는가?"하시니, 수산주는 수천 리를 걸어서 산 넘고 물을 건너 와서 친견했으나, 선사의 의중(意中)을 바로 깨치지 못하고 한 번은 돌아갔다.

조사(祖師)들이 제시한 본분의 의표(意表)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언하(言下)에 번갯불 속에서 바늘귀에 실을 꿰는 것과 같이 해야한다. 신심(信心)과 도심(道心)이 철저한 수산주가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계침사를 천신만고 끝에 찾아왔다.

그런데 계침선사께서 병석에 누워계시니, 수산주가 인사 드리고 신세타령 하며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걸려 찾아왔건만 큰스님께서 열반에 드시게 되니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모두 다 허사가 되었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누워계시던 계침선사가 조용히 일어나 좌정하시더니 불자를 잡고 하시는 말이 "이 불자는 영겁에 한 찰나도 너를 등진 적이 없느니라"고 하셨다. 그러자 수산주가 언하대도(言下大道) 하였다. 뼈에 사무친 일구월심(一久月心)이 일언지하에 도(道)를 성취하게 한 것이다.

운봉성수선사가 선지식으로 명성이 자자한 혜월선사를 친견하고 물었다.

"삼세의 모든 제불(諸佛)과 역대 조사는 어느 곳에서 안심입명(安心立命)하고 계십니까?"

이에 혜월선사께서 양구하니, 성수 스님께서 냅다 한 대 치면서, "산 용이 어찌하여 죽은 물에 잠겨 있습니까?"라고 하니 "그럼 너는 어찌 하겠느냐?"고 말했다.

성수 스님이 불자를 들어 보이니 혜월선사께서 "아니다" 하시니 성수 스님께서 다시 응수(應酬)하길 "스님, 기러기가 창문 앞을 날아간 지 이미 오래입니다"라고 하자, 혜월선사께서 한바탕 크게 웃으시며 "내 너를 속일수가 없구나" 하시며 성수 스님을 인가하시고, 호를 운봉(雲峰)으로 정하고 전법게를 내렸다.

일체유위법(一切有爲法) 본무진실상(本無眞實相) 어상약무상(於相若無相) 즉명위견성(卽名爲見性) "일체의 유위법은 본래 진실된 모양이 없으니 저 모양 가운데 모양이 없는 줄 알면 곧 이름하여 견성이라 함이라"는 말이다.

〈남양주 선재사 주지〉

기봉 전통 범패 의식 강원

전통 불교의식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식 전문 학인을 모집합니다.

◆ 응 시 자 격 ◆

① 입 학 과 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생(음악,국악과) 등 일반
② 제 출 서 류 : 본 강원 소정양식 ····· 1부
반명함판 사진 ·····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 ····· 1부(사본, 해당자)
③ 전 형 일 정 : 2019년 1월 8일까지
④ 개강 기초반 : 2019년 1월 8일 (매주 화요일)
⑤ 상주 권공 : 2019년 1월 11일 (매주 금요일)
⑥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⑦ 장 소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대흥로 26번지 대은사

※상 담 문 의 : 010-9170-3631

법고무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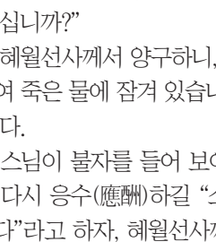
개 강 | 2018년 11월 19일 (매주 월요일) ~ 2019년 1월 28일 까지
시 간 | 오후 1 시 ~ 4 시 까지
지도 강사 | 기봉 스님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전수 조교)

74개의 명당자리가 한 곳에 모여있는

화제의 신간

신비의 명혈명당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천하(天下)를 지배한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세상(世上)을 변화시킨다!
명혈명당을 가진 자(者)가 입신양명(立身揚名)한다!



천하대지(天下大地)인 천조명당(天造明堂)이 한 장소에 74개씩 네 곳에 296개가 모여있는 명혈명당(名穴明堂)의 실체(實體)를 밝히다.

전국 서점, 인터넷 판매중!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동선호 지음 / 신국판 / 468쪽 / 정가 30,000원

금강삼매경요해, 드디어 나왔다!!

천년千年의 보물,
붓다지혜佛智慧의 비밀을 세상에 내어놓았다.
그토록 찾던 불佛지혜 깨달음의 보물!
성불成佛의 심오한 비밀 지혜들로와
그 지혜 과정을 상세히 모두 밝혔다.
깨달음 보살세계 무위지혜의 차별차원
대승, 일승, 일불승, 불승, 불佛의
최상 깨달음과 지혜세계를 모두 밝혔다.



최고지혜경전, 금강삼매경 문지혜로 깨달아 자성의 두루 밝혀
5종금강삼매경(고려장경·대정장경·원효론·원정주해·주진불종기)
하나로 묶었다.
대구시 소재 불국법회 세웅스님 신국판양장 / 936쪽 / 정가 70,000원

원 각 경 요해
圓 覺 經 了 解

깨달음, 구경성불 과정의 깨달음 지혜를 모두 밝혔다.
여래겉정경계 원각삼종자성 수행의 실상,
심오한 각성세계를 밝히며, 대승, 일승, 불승보살
각성차별과 깨달음 각성과정을 모두 밝혔다.

◆ 깨달음 각성과정 지혜세계를 모두 밝힌 지혜법문 책이다.
◆ 구경성불 수행과정 깨달음 경계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분기정정 인지법행 삼종자성 각성지혜를 두루 밝혔다.
◆ 깨달음 상승과정 세밀한 각성체험 세계를 두루 밝혔다.
◆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의 수행삼매와 각성세계를 밝혔다.
◆ 생주멸멸 분제무수 무소한 원융각성의 비밀을 밝혔다.
◆ 대승(大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일승(一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불승(佛乘)의 수행과 지혜, 각성세계를 두루 밝혔다.
◆ 반야 법화 화엄경과 보살 3승과 사법계의 각성관계를 밝혔다.

대구시 소재 불국법회 세웅스님 관음출판사 / 신국판 / 644쪽 / 정가 33,000원

新사주학핵심비결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817쪽 / 50,000원

사주풀이의법수
송월스님 지음 / 신국양장본 / 616쪽 / 75,000원

새로운 滴天髓풀이 1,2,3권
불교 羅明珠 지음 / 신국양장본 / 1,2권 40,000원 3권 50,000원

관음출판사

홈페이지 : www.gubook.co.kr E-mail : gubooks@naver.com
Tel. (02) 921-8434 Fax. (02) 929-3470 입금계좌 :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은행나무 아래 가을축제

완주 옥련암, 내비둬 콘서트

아름드리 노란 은행나무가 도량 입구에 줄지어서 불자들을 맞는 완주 옥련암(주지 일감)은 11월 3일 작은 가을 축제를 열었다.

'은행나무 멋 있는 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평화바람 한마당, 참석자들이 일감 스님과 함께 평화바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내비둬 콘서트 '그대로 행복하기' , 평화기원 예불, 평화바람 소원지 달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바람 한마당은 대금밴드 '이창선과 대금스타일' 의 연주, 이은미 관장의 조선세법 검도시연, 재즈밴드 김영주와 퀘텟의 음악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도량 한 가운데 '평화 꽃피어라' 는 깃발이 휘날리는 대형솟대가 세워졌으며 참석자들은 전통 한지로 제작된 평화의 등에 각자 평화에 대한 생각과 희망을 적은 소원지를 달았다.

일감 스님은 "대중과 함께 평화에 대해 말하고 고민하면서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바라는 염원을 담아 음악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음악회가 진행되는 동안 도량 곳곳에서는 이승호 작가의 사진이 전시됐고, 일감 스님은 대담집 〈그대로 행복하기〉에 직접 사인을 해 참석자들에게 선물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인니 피해 복구 동참"

봉은사 · 선운사, 지원금 기탁

지난 9월 강진과 쓰나미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은 인도네시아를 돕기 위한 불교계 자비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와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는 11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원 등 기금으로 각 3000만, 1335만 원을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원행)에 전달했다.

이사장 원행 스님은 이날 "앞으로도 종단이 직면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종단에서도 사찰과 신도 분들에게 될 수 있는 한 많은 도움을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봉은사 측이 위탁한 기금은 인도네시아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다문화가정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논서 '청정도론' 한글로 만나세요"



Interview

〈청정도론〉 완역한 전재성 회장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상좌부 불교 난해한 논서
1년 6개월 걸쳐 완전 번역
100여 쪽 해제 · 도표 첨부
3832여 주석으로 이해 도움



"〈청정도론〉은 빠알리 원어 〈비쑤디막가(Visddhimagga)〉로 그 의미는 '청정의 길' 이라는 뜻입니다. 청정은 궁극적으로 '열반' 을 지칭합니다. 다시 말해 〈청정도론〉은 결국 '열반의 길' 이라는 말이죠. 이 논서를 통해 많은 대중이 바른 깨달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면 합니다."

전재성 한국빠알리성전협회장〈사진 위〉은 11월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청정도론〉 완역 발간의 의미에 대해 이 같이 밝히며 말머리를 풀었다.

〈청정도론 · 사진 아래〉은 남인도 출신인 붓다고사가 AD5세기경 마하비하라파의 초청에 스리랑카로 들어와 저술한 논서다. 전 회장의 설명에 따른다면 "〈청정도론〉은 빠알리대장경에 속하지만 빠알리삼장뿐만 아니라 주석서에 이르기까지 가장 방대하고 정교하게 통합된 남방 테라바다 불교의 입문서"라고 할 수 있다.

〈청정도론〉이 쓰인 역사적 계기도 주목할 만하다. 대승과 소승간 일종의 경쟁이 불교 역사상 가장 난해한 논서가 저술되는 연유가 됐기 때문이다.

"붓다고사가 스리랑카에 온 이유는 아쇼카왕의 아들 마힌다 장로의 법맥을 계승한 마하비하라파가 초청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스리랑카는 산스크리트적 대승불교 사조가 유입되면서 테리바다 불교 전통에 위기가 왔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하비하라파는 붓다고사를 초청해 경 · 율 · 론 삼장뿐만 아니라 고대 싱할리본 주석을 섭렵하게 해 〈청정도론〉을 완성케 했습니다. 이를 통해 붓다고사와 마하비하라파는 정통 테라바다 불교의 기초를 세울 수 있었죠."

〈청정도론〉은 크게 계행과 삼매, 지혜로 나눠지지만 각 부분마다 여러 문제들을 굉장히 정교하게 설명하고 있어 그 양도 방대하다. 색인 포함 1533쪽이 달하는 이 논서를 번역하는 데 전 회장은 약 1년 6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짧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만, 평생을 빠알리 성전을 번역하는 데 매진했던 공력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의 공력은 100여 쪽이 넘는 해제와 〈청정도론〉에 나온 법수들을 정리한 도표, 총 3832개의 주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노력의 산물은 독자들이 난해한 논서를 조금이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나침반이 된다.

이 같은 〈청정도론〉은 어떤 독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전 회장은 조금 더 전문적 수행으로 나아가려는 불자들은 〈청정도론〉을 읽기를 권했다.

"〈청정도론〉은 매우 치밀하고 시스템화된 논서입니다. 고도로 형이상학화된 대승불교적 공사상이나 유식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궁극적 청정에 이르는 우리의 마음을 관통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전문적으로 초기불교 수행하시는 불자들이 읽으면 자신의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불교합창단, 화합 무대 열어

2018 부산불교합창제 성료
각 종단 합창단 9팀 참가

부산불교 합창단이 한 자리에 모여 화합의 무대를 선보였다.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회장 정임숙)는 11월 5일 부산금정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8 부산불교합창제' 를 개최했다.

합창제는 1부 개회식에서 내빈들의 축사와 환영사 등 인사말이 이어졌으며 2부에서 화려한 화음의 무대를 선보였다.

공연은 동명불원 가람소리합창단, 관음사 환희합창단, 총지종 만다라합창단, 혜원정사 합창단, 삼광사 화엄합창단, 진각종 유가합창단, 미륭사 바라밀합창단, 한마음선원 선법합창단, 범어사 합창단 등 9팀이 찬불가와 자유곡으로 무대를 꾸몄다.



11월 5일 열린 부산불교합창제 무대 모습.

마지막에는 부산불교지휘자 중창단의 특별무대가 열려 박수를 받았고, 부산불교연합합창단과 지휘자가 함께하는 무대로 마무리됐다.

정임숙 부산불교합창단연합회장은 "합창제는 불음의 향기가 흘러나오는 법회이자 수행의 결과다"며 "우리 모두의 범음이 온전히 부처님께 공양될 수 있도록 예불을 올리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은 "화엄경에 이르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그 땅에서 끊임없이 아름다운 소리가 들렸다' 고 한다"며 "찬불가는 법석을 여법하게 갖추는 장엄일 뿐 아니라 듣는 이들에게 환희심을 일으키는 법문이다"고 격려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 회장 경선 스님, 부회장 세운 스님, 상임부회장 심산 스님, 진광 정사와 정미영 금정구청장과 왕선자 여성불자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선율로 물든 가을산사"

청도 운문사, 경북도계음악회 개최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11월 3일 대웅보전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도계음악회를 개최했다.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은 "풍요로운 계절에 경북도계음악회를 개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운문사의 아름다운 자연 안에 종자기와 같은 지음으로, 리(理)를 듣고 바로 뜻을 아는 성공적인 음악회가 펼쳐져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 인사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반야학술상 이자랑 교수 수상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서 시상식 열려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안)은 11월 4일 통도사 반야암에서 시상식을 열고 이자랑 교수에게 제8회 반야학술상 저술상을 수여했다. 이자랑 교수는 연구 저서 〈율장의 이념과 한국불교의 정향〉으로 수상했으며, 올해 논문상은 해당자가 없어 선정되지 않았다. 한편, 반야학술상은 불교학 및 불교문화 우수 연구자를 격려하기 위해 제정됐다.

신성민 기자

걸음으로 실천한 '자비행'

(재)아름다운동행, 걷기 모금행사 '성료'



(재)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원행)은 11월 3일 서울 종로구 일대서 '엽서워킹투어-동행, 우리 함께 걸을까' 걷기 모금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아름다운동행 지원단 및 참가자 50여 명은 사찰 순례 및 문화유적지 탐방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를 통해 모연된 기금은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들의 문화탐방을 위해 전액 사용된다.

김지원 기자

굴셀건
80ml × 60팩
13만원


지리산 다슬기 眞 골드
無색소, 無방부제, 無화학첨가물로 만들어진 다슬기 엑기스!
껍찔채 가마솥으로 재래식 중탕해 고농축 멸균처리로 누구나 안심하고 드실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 강화에 좋은 다슬기, 간 기능에 좋은 껍질까지 들어간 2배 엑기스!
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물 맑고 공기 좋은 지리산 일대 국산 야생 느릅나무 껍질(유근피)!
가마솥에 오래 달여 진공포장해 편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위장을 맑게! 염증은 싹~ 가라앉히는 효과!
100ml × 60팩
6만 5천원
평안할 康
제품문의 : 칠성상회 (02) 879-2007
입금안내 : 농협 1282-17-003433 (주)한메소프트
입금금액 : 지리산 다슬기 진골드 130,000/느릅나무 유근피 원액 65,000원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천년의 향기 가득’ 내소사 산사음악회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년의 향기’ 주제로



전북 부안의 대표적인 천년고찰 내소사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이 한데 어우러지는 산사음악회가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성)는 11월 2일 가을색이 짙어가는 고색창연한 산사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는 ‘2018 내소사 음악회’를 개최했다. 음악회는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과 순창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정읍 정토사 주지 일묵 스님, 권익현 부안군수, 이한수 군의회 의장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령 1,500년 된 당산나무와 천년고찰의 전각을 배경으로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지역민과 함께하는 천년의 향기’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산사음악회는 부안 우도농악의 길놀이와 여는 마당에 이어 국악프로젝트그룹 리음, 정상급 성악가로 구성된 벨라보체, 트로트 가수 홍진영이 출연해 경내를 가득 메운 관객들과 하나 되는 열정적인 공연을 선보였다.

진성 스님은 “천년의 불교문화가 숨쉬는 내소사의 문화적 가치를 살리고, 전통예술과 대중문화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천년고찰의 문화도 즐기고 마을 주민들의 넉넉한 인심도 맛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에 앞서 경내에서는 지역 먹거리와 특산품을 즐길 수 있는 나눔장터를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 단청그리기, 전통차 시음, 연꽃등 만들기 등의 체험부스가 운영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100원으로 전하는 희망 콘서트”

부산생명나눔 11월 16일, 시민회관 소극장서

‘100원’이라는 작은 정성이 모여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콘서트가 개최된다.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 · 이하 부산생명나눔)는 11월 16일 오후 7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제13회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를 개최한다. 100원 희망 불씨 콘서트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한 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콘서트에서는 희망나눔에 동참하는 봉사자 표창과 기금전달식이 진행된다. 기금은 사단법인 미소원과 해동고교 학생들이 1년 동안 모은 것이다. 콘서트는 자명 스님, 백련싱어즈 등 불자 가수들이 나와 무대를 장식하며 참가비는 무료다.

부산생명나눔은 “의학의 지속적인 발전에도 장기이식만이 마지막 치료 수단인 환우들을 위해 장기기증 결연사업을 펼치고 치료비 후원으로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 콘서트를 개최한다”며 많은 관심을 독려했다. (051)853-0429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韓日 여성불자, 양국 문화 교류로 화합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 부산 · 운문사서 열려

한국과 일본 여성불자들의 교류 및 화합의 자리가 마련됐다.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 여성부(회장 백명숙 · 이하 한일불교교류협)는 11월 5~7일 제13차 한일불교여성교류대회를 부산 및 운문사 일대에서 개최했다.

본격적인 교류대회에 앞서 5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열린 환영만찬에서 양국 대표와 임원진들은 교류의 의미를 되새기고 환영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후 양국 불자들은 운문사에서 한국 사찰음식 체험과 특히 추석 명절 고유 음식인 송편을 직접 만드는 문화의 자리를 열었다.

백명숙 회장은 “한국과 일본은 이웃사촌과 같다. 서로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지구촌에 좋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타카노 후세키 회장은 “올해 이상할 만큼 일본에 자연재난이 많았다.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서로 돕고 잘 극복할 수 있길 바라며 앞으로 양국의 신뢰를 공고히 하자”고 화답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최대 규모 템플스테이관 ‘門 활짝’

부산 내원정사 11월 4일 개관… 국제힐링센터도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1972년 10여 명의 신도와 함께 천막법당으로 시작한 내원정사가 국내 최대 규모의 템플스테이시설을 건립하고, 아울러 세계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한 국제명상힐링센터 완공 소식을 알렸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는 11월 4일 ‘템플스테이 생활관 및 국제명상힐링센터’ 개관식을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생활관 앞마당 특설무대에서 봉행했다.

행사는 동국국악예술단 및 내원 · 혜원연합합창단 음성공양으로 축하 무대를 시작해 개식을 알렸으며, 대중은 삼귀의와 반야심경으로 마음을 모았다. 이어 내빈소개 및 불사경과보고가 진행됐으며 내빈들은 축사로 완공을 축하했다. 주지 정련 스님의 인사말을 끝으로 대중은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현판식을 바라보며 첫 출발을 기뻐했다.

앞으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 생활관 및 국제명상힐링센터는 수행과 힐링의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에게 회향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생활관은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2014년 2월 착공한 생활관은 국비 13억 원, 지방비 20억 원, 자부담 87억 원 등 총 120억 원이 투자됐으며, 부지 4만5282㎡(1만3600여 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6,202㎡(1,877평) 규모다. 수련실, 간경실, 사경실, 명상실, 예경실, 발우공양실 등을 갖췄으며 250여 명을 동시 수용할 수 있다.

국제명상힐링센터는 건축면적 1,497㎡(453평) 규모의 지상 1층 건물이다. 생활관 바로 뒤에 위치하며 세계 각국의 불교문화와 한국불교를 안내하는 요람이 될 전망이다.

총 사업비 120억 원 투입

250명 동시 수용 가능해져

개관까지 2000일 기도정진

“참 나 찾아가는 행복여정”

2007년부터 템플스테이를 진행한 내원정사는 부산은 물론 인근 경남과 울산 그리고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시민들이 찾는 힐링 명소로, 템플스테이 참여 집계 인원만 17만 명에 달한다. 그러나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에 공간이 부족해 신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정련 스님은 “오늘 개관식이 있기까지 2000일을 기도 정진하며 발원에 동참해 주신 내원정사 신도 여러분과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수행을 통해 본래 자기면목을 찾아가는 구도의 여정을 제공할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참실수의 기회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원정사는 11월 4일 국내 최대 규모의 템플스테이시설을 개관했다. 사진은 내빈이 현판식을 하는 모습.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앞으로 내원정사 템플스테이와 국제힐링명상센터는 일상에 지친 현대인에게 마음의 안식처이자 한국의 정신문화와 불교의 선문화를 체험하고자 하는 세계인들의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참 나를 찾아가는 행복여행이 확산될 것을 믿는다”고 축하했다.

내원정사 신도를 대표해 이법륜화 신도회장은 “큰스님이 50여 년간 쏟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원력이 이뤄낸 결실에 깊은 찬탄을 올린다”며 “종교, 세대, 지역을 떠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대중과 더욱 친근하게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개관식에는 원로의원 월탄 · 암도 · 정관 · 철웅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법계위원장 종진 스님, 포교원장 지홍 스님, 통도사 주지 영배 스님, 삼광사 주지 세운 스님 등 승가 내빈과 오거돈 부산시장, 전재수 · 유기준 · 최인호 · 윤준호 국회의원, 공한수 서구청장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동참했다.

“청소년 합창으로 연 맑은 세상”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11회 청소년합창제 성료

청소년들의 아름다운 화음이 부산시에 울려 퍼졌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협회장 백명숙 · 이하 부산파라미타)는 11월 3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는 청소년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펼치는 장으로 마련되며 바른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 제11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시상식 후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합창제는 예심을 통과한 곡정고 라일라스 합창단, 금정중 금정쇼콰이어, 마산제일여고 합창단 등 5팀이 참여했으며 대상은 한스쇼콰이어에 돌아갔다. 금상은 성암국제무역고 합창단, 은상은 곡정고 라일라스, 동상은 금정중 금정쇼콰이어와 마산제일여고 합창단이 받았다. 시상은 대상에 상금 300만원, 금상 200만원, 은상 150만원, 동상 100만원이 각각 수여됐다.

부산파라미타 총재 경선 스님은 “오늘 여러분은 무대에 올라 여러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아름다운 합창의 향연을 펼쳐줬다”며 “단원들과 호흡을 맞추고 하나의 곡을 완성해 가는 일이 쉽지 않았겠지만 그 과정 속에 성장하고 화합의 고리가 더욱 단단해졌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백명숙 협회장은 “치열한 경쟁사회 가운데 놓쳐버린 많은 이야기가 있다”며 “11회를 맞이하는 파라미타 청소년 합창제가 여러분의 멋진 삶에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노력해 아름다운 화음을 완성했다’는 행복한 이야기 한 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합창제에는 총재 경선 스님, 백명숙 협회장, 김석조 종로학원 이사장, 양재생 부산불교총연합신도회 수석부회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부산파라미타는 ‘맑은 세상을 청소년에게’라는 구호를 내걸고 출발해 창립 22주년을 맞았으며,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는 전국 규모의 청소년 문화의 장으로 성장했다. 부산파라미타는 문화관광부에 등록되어 있는 청소년 기관으로 40여 개의 분회와 1500여 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광수련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2018@naver.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모든 일의 근본은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와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법구경〉



관상(손금)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암,질병,묘터, 송사재판,산소,낙태유산, 조상영가,교통사고,직장운, 승진운, 재물운,이혼수)
- **성철스님 사주 비법전수**
- 철학원 하실 분 천기누설 전수
- 스님, 무속인, 일반인

010-4014-8822

범불교조계종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종도모집 및 승려증 발급종단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0-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모집안내

사암, 포교원 등록
종단, 연합회 등록
불교문화원 시설 등록
지방 종무청 설치 등록

한국불교 종무청
종무집정기관 종무집정관
종통정승 011-412-8040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의식은 불교의 꽃입니다.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의식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문의 010-3263-6544
010-5530-2388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책-검색★

①천기누설운(運비밀공개)
②종교의본질(최상기도법)
③대박재테크운(運재테크)
④천기소설예언자(삼인도)
⑤손도사(6신통大도사)

책이름검색,1권구입해보세요
문의 010-5105-5000

신을 움직이게 한다

뇌강검의 비밀?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불교용품 고가매입 전문

법당철거, 퇴불 정성을 다해 모셔드립니다. 소, 대불
탱화, 개금, 석불, 동불,
특수불 취급, 수미단 제작
이조불교재활용센타
010-9177-7842

산문철학 1개월 완성

- ▶ 책임지도
- ▶ 고승비급 전수

동국대 대학원 졸업(석사)
정 광 합장
010-3936-2295

곽민 신기원

【예약상담만 가능】

농협 계좌
302-1325-1333-31
곽영리

문의 010-8620-2334

출가하실 분

▶ 45~60세 ◀

금니사경, 달마도,
문인화 전수

010-9208-3835
스님 010-4504-6565

불교용품양도

일신상 관계로 스님께서 사용하신 **탱화, 소불, 석탑, 석불** 등 사찰 운영에 필요한 불교용품 일체를 양도 하고자 합니다.
필요하신분 연락 바랍니다.

010-3508-2223

토굴구함

- 정업수행에 적합한 토굴을 구합니다. 산속이나 마을과 떨어진 조용한 곳이면 가능합니다.
- 임대나 매매가능

010-7678-5536

(사)한국불교 조계종 영락사

요양하실 분 / 기도 하실 분

위치 :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033) 435-9556
010-7137-5924 / 010-4717-1960

부전스님

들어가고 싶습니다.

〔지역은 관계없음〕

010-8955-9485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①

아름다운 서울의 사찰에서 조석예불 보시는 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좋은 인연 맺으소서
010-8688-3580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②

경상도 고향인
30대 비구니 스님을
부전으로 모십니다.

010-6893-5040

사무장구함

공기좋고 물좋은
한마음 선원 문경지원에서
여자 사무장님을
모십니다.

- **컴퓨터 가능자**
- **숙식제공**
- **선원 신도만 가능**

010-9373-3778

생사해탈,윤회졸업 진아,大我 찾다

- 신전 두뇌 속 령신, 上天氣와 연결, 단전 속 진아 佛, 결수기 전수
- 신명, 불, 미륵불, 천주들로 탄생 성불한다.

아미타불, 化身, 아사라불
正道 010-6778-8960

불면증 무료 보시

불면증 무료로
보시해드립니다.
누구든지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010-7453-3544

사주팔자/관상/손금 수강생 모집(비범)

① 스님 우대, 무속, 일반인, 철학관 개업하실 분
② 말문이 잘 열리지 않는 분(속성지도)
③ 수강 3개월 지나면 개업 가능(뒷바라지 계속 지원함)
④ 개인 지도 가능(상담 후 시간조절)

부산 미래 예측 연구원 원장 **도 담** 합장
H·P 010-5823-2710 TEL 051-804-8688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스님 상좌 및 예비수행승(행자)모집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 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교육비 전액지원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 해외도량,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 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 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문의 : 054-753-8228, 010-8852-0075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가격 ~~10만원~~ ⇨ 90,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불교 공부 모임 (무료 공부방)

(1) 회원 간의 자율적 공부, 수행 (2) 지도법사 수행안내, 집중수행 지도

- 대상 : 누구나 가능 ● 회비 : 자율보시(점심공양은 각자 지출)
- 일정 : 주말(토)에 진행예정. 차후 개별적 일정 안내함
- 모임 : 묘법연화경 강독모임 / 참선모임 / 명상모임

무료 인생상담, 무거운 짐 내려놓는 법 강의

문의처 : 묘진사(대구 내당동 소재)
053)652-2714/010-9616-2477(우송스님)

수인작법 사주팔자

- 옛 고승과 도인에게만 전수되어 내려온 수리 비술
- 수리의 비밀과 의미를 알려 드립니다.
- 손 하나만으로도 몇 년, 몇 월, 몇 일, 몇 시 전 후의 운세를 예측할 수 있는 운세 작법
- 명리나 운명학을 배웠어도 시원치 않는 분

천지조화의 수치를 열어 보입니다
010-7703-1188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사찰화재 보험

목조건축물 OK!

010-7344-1881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욜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욜
상·중·하 단전 차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심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이메일 jabi2018@naver.com | 02) 2004-8214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실제는 내가 죽지 않고 항상 여기서 법을 설한다.

〈법구경〉



삼 보 사 찰 안 내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0억

◎ 위치 : 인천
◎ 대지 : 101평
◎ 법당 : 약 34평
◎ 요사 : 34평
◎ 양도액 : 12억

◎ 위치 : 경북
◎ 총 : 2000평
◎ 법당 : 20평
◎ 요사 : 20평
◎ 가액 : 2억 8천

*오랜 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절대 비밀보장...전국사찰 급히 구합니다.

*사찰, 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이 이용하시여 뜻을 이루시고 나날이 발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의전화 010-6722-2211

사찰안내(전세)

- 위치: 부산 구서동(지하철 3분)
- 새로 개금불사 및 법당 모두 수리
- 오르막 없는 평지. 주차 넉넉함
- 하천부지 100평(산신각 포함)
- 시설비, 권리금 한푼도 없음
- 전세, 월세 조건 맞추어 드림

010-7121-3030
010-3574-330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 1140평, 주차장
- 건물 : 대웅전30평, 요사채
- 기도방 6칸, 산신각, 스님친견실, 창고, 일주문
- 가액 : 5억 6천만원 (대출 1억)

010-8916-5680

사 찰 안 내

- 위치: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 대지:254평, 하천부지 330평 총 580평 사용중
- 건물 : 대웅전,산신각,관음전, 공양간, 요사채(방 5개)
- 종무소 2층 건물, 주차장
- 답사 후 절충

010-6514-0405
010-2041-818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서구 소재 (송도해수욕장 인근)
- 대지 : 약 130평
- 건물 : 한옥 2동 (법당 및 공양간 약 22평, 주지실 7평 등)
- 가액 : 보증금 일천오백만원, 월50만원/시설비 : 상담 후 결정

010-3262-1005

광 진 불 사

◎ 위치 : 강원도 천년도량
◎ 부지 : 7000평
◎ 법당 : 50평
◎ 요사 : 70평. 외
◎ 매가 : 20억 3천

◎ 위치 : 서울
◎ 대지 : 100평 사용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 역세권
◎ 매가 : 11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군
- 전원 주택형, 요사채 25평 법당 33평 • 총대지 300평
- 정자(3×5m) 원목
- 진주20분 도로 잘되어 있음
- 삼존불, 영단, 신중단, 지장단, 소불(한쪽 벽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가액 2억3천만원

문의처 010-2607-7114

포교원안내

- 위치: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신원시장 부근 2층
- 지하철2호선 신림역 5분거리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세 110만원(부가세 포함), 시설비1300만원
- 약 25평

02-856-1558

사 찰 안 내

- 위치: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 대지200평,군임대부지 약300평, 법당 10평,산신각 2평,용왕각 6평, 요사채 20평,황토방 5평,창고 약5평
- 외불미륵불, 지장보살
- 가액 : 2억. 절충가능
- 레미콘 차량 진입 가능한 포장도로

010-3757-3699

사 찰 안 내

- 위치: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385-17 중심지
- 대지:100평,건평 70평,1층 전체
- 건물: 대웅전, 삼존불, 법당 외 방3, 화장실3, 도시가스
- 보증금1,000만원/ 월100만원/ 시설비1,200만원(상담조절가능)
- 대구 최고 중심지. 단독 1층 전체

010-6674-135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사하구 전망좋은 사찰 • 대지: 350평
- 대웅전,삼성각,요사채2동 (1동은 3집 월세받음)
- 많은 주차, 남향집, 도시가스
- 가액: 13억 5천만원

010-3269-1023

사 찰 안 내

- 법당, 요사체, 토지 3,971.1 ㎡ / 1,201.26평
- 전북 군산의 조용하고 불심을 다스리기 좋은 최적의 도량
- 인가도 멀지않아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주변이 둘레길 산책로가 형성되어 접근성이 좋음

010-5870-3358
063)451-2505

포교원 안내

- 위치 : 울산시 북구 화봉로
- 2층 : 33평. 방2,화장실2,법당,난방 완비
- 몸만 오시면 법회 가능, 준비 할것 없음
- 가액 : 전세 3,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 1,900만원(가격 절충)

※ 불사관계로 (급)

052-287-8526
010-7572-8526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부산진구
- 면적: 부지 약 600m², 건물 약 80m²
- 법당, 삼성각, 방2, 부엌
- 마을 가깝고, 포장도로 주차가능
- 기도하기 좋은 곳
- 가액: 1억 8천만원

금호부동산 연산 가-13-1645(박춘식)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157(연산동, 호성빌딩)

010-5346-4138
051-861-2233

사 찰 안 내

- 위치: 용인터미널 10분거리. 버스, 빌라, 주택많음. 아파트 단지 건설중
- 대지 456m². 138평. 목조 5칸. 법당3칸. 방2개. 식당 큰방 1개. 창고
- 인연되면 몸만 와도 됨(비구니 최적도량)
- 매일 새벽 4시 도량석,종성 문제없음
- 30년 이상된 고찰. 생활불편없음
- 주변 고속도로 완공예정. 무한 발전 지역
- 가액 : 4억 5천

010-3565-0087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대지: 121평
- 대웅전 1동, 삼성각 1동
- 소불당 1동(600불 봉안) 요사채 1동, 주지실 1동 용왕당, 사시사철 자연수
- 사찰연력 130년 완전고찰
- 가액 : 4억

연락처 010-7273-1529
010-2720-1580

암 자 안 내

- 위치:경북 영주시 이산면 영봉로 1031번길
- 토지 120평. 건평 약25평 (등기되어있음)
- 지상권만 양도(정남향.지하수)
- 토지 1년 도지세 쌀 한가마
- 삼존불 봉안 양도 금액 1900만원

010-6783-2513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금정구 서동 339-9
- 법당 30평
- 방1개, 친견실,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절충
- 몸만 오시면 법회가능

010-7257-4242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효목 2동 437-5 동구시장 맞은편. 명보약국. 골목
- 4층건물 내 2층 40평 중 내실. 상담실 주방. 세탁실. 화장실. 법당 29평내
-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신중탱1점 소불 관세보살 지장보살
- 보증금, 시설비 포함 1,700만원 월 45만원,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748-4737

토굴(급)안내

- 위치 : 충북 단양 소백산
- 물 좋고, 공기 좋은 곳, 조용히 공부하실 분 적합
- 불기 일체, 집기 일부, 수도, 전기, 보일러 유
- 벽돌기와건물, 35평, 텃밭, 대형주차
- 총평수 7백14평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가 2억
- 낮 12시 이후 4시전 통화가능

010-4747-3468

포교원 안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산동
- 3층 40평 법당 삼존불 시설원만
- 방2 주방 화장실 옥상사용함
-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5분 거리
-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 1,000만원(가격절충가능)

010-7536-258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청통면 보성길70 (산을 끼고 아주 조용한 사찰)
- 단청, 주련 현판
- 총평수465평, 현대식 건물 2동 1층 요사 30평, 14평 2층 30평 법당
- 가액 : 3억 9천만원

011-503-0517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시내
- 대지 : 200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40평
- 산신각 : 10평
- 몽땅 : 1억 1천만원

010-8861-1785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강학리
- 총75평(1층,2층)/ 법당,신당, 사주카페 등 • 주차장 확보
- 팔공산 명마산 자락 대로변. 위치 최상권
- 보증금 3천만원, 월 60만원 전세7천만원
- 시설비 1500만원 (시설완벽, 주거살림가능)

010-6418-9944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고성군/대전통영 고속도로 고성IC에서 약15분거리
- 대지: 총 3,356평. 건물 84.5평 (대웅전 37평 포함)
- 120미터 지하수 사용. 가건물 약 60평(숙소 및 식당 등)
- 용도: 사찰 및 요양병원, 복지관 등 조건 좋음
- 사찰이 필요치 않고 요양병원 등이 필요만 할시 분할 매각 가능. 분할 매각시 [대지 1,490평. 건물 47.2평(단독주택)] 가능. 지하수 공동 사용가능함
- 매각대금은 상호 절충가능함

010-8785-1574

암자 부도전 수목원

- 부도전 및 수목원 가능
- 위치: 강원 동해시내(바다조망) 임야 3,349(대지 400평)포함
- 건물: 5동.약120평(1동80평 신축건물)
- 특징:유명한 약수물 있음. 방13개. 시내지만 산속같음. 경내 차량진입
- 창건: 1945년 암자.소쿠리터
- 은행설정. 2억5천. 안고 1억

010-2873-3446

사 찰 안 내

◎ 요사채 30평 1개, 40평 1개
◎ 법당 30평(깨끗)
◎ 노천불, 용왕당 대지 100평

◎ 田(밭) 1,000평
◎ 국유지 500평
◎ 가액: 5억 5천

◎ 유실수 과수원, 田(밭) 700평
◎ 가액: 2억

- 위치: 경북 예천. 현지점에서 신도청 8㎞, 예천군청 8.5㎞
- 현 땅값 시세 5억 5천~6억 사이
- 사단법인 종단 함께 인수가능 • 답사 후 가격 절충

010-3526-7066

펜션 별장 토굴

- 위치 : 경북 북부 지역 일월산 자락에 아담한 곳
- 현대식 목재건물
- 건평 30평, 대지 밭 1천평
- 앞마당 계곡, 법당 부지 있음
- 가액 : 2억 4천만원
- 가격 절충 가능

010-5424-4969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내서읍 내서 IC 5분
- 법당: 약 23평. 단청필
- 요사체, 친견실, 산신각 각 1동
- 주차장: 넓음
- 가액: 2억 8천만원

010-4001-8476
010-5550-9725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 법당 및 사무실40평, 요사채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중앙선,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양군 석보면
- 종교부지 250평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30평 창고 및 화장실 15평
- 철골, 지붕강판기와
- 가액: 1억 4천

054-683-6496
010-4726-6496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망우산
- 대지: 140평, 1층-요사, 공양간, 접견실 2층-대웅전 40평 법당
- 보증금: 3,000만원 월 1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 매매가능 12억, 가격절충 가능

010-8019-9339

포교원 안내

- 위치: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역 1, 5호선 7분거리
- 3층 건물 중 2층 40평, 법당 18평(시설완비)
- 가액: 보증금 1500만원/월세 70만원 시설비 2500만원(절충)

010-3167-1774
02-848-1774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절임
- 건물 : 법당, 산신각
- 평수 : 470평 • 가액 : 7억
- 조건 : 양도시 모든 기물 포함(불상,불화등 기타)
- 주변 주차 시설 양호함 • 도시가스, 상수도 임
- 대중교통 편리함(도보로 5분 거리임)
- 위치는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쪽 임

010-8716-2399
(부재시 문자 남겨 주시면 연락 드리겠습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주시 안강읍 소재지
- 법당 : 아미타불 외 (삼존불) 호신불(관음지장)-400위, 십대대왕
- 마당 : 삼층석탑, 포대화상, 관음석불
- 법회 즉시 가능함 • 도시가스 완비
- 급 양도 • 가액 : 2억 1천만원

010-3828-9898

포교원 안내

- 위치: 경남 양산 남부시장 옆
- 4층 건물 내 2층 40평. 법당, 요사, 공양간
- 보증금 1000만원 / 월 30만원 시설비 2500만원
- 최고시설.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709-0108

토 굴 안 내

- 경북 영양군 영양읍 상원리
- 건축물 15평, 대지 150평
- 남향. 앞개울. 도로. 전기. 급수
- 용도 추천 토굴 귀촌 좋은 조건
- 최저가 평가 7500만 급매
- 문의전화 바람. 보살님 소유직

010-8899-8899

친환경 삼베타올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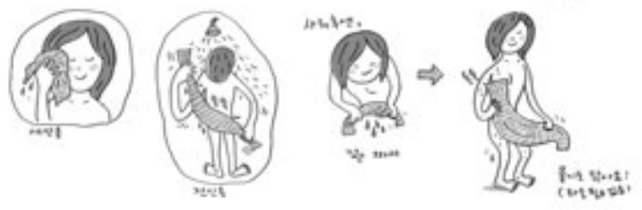
삼베타올은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포함)

법회, 환갑, 돌잔치, 칠순 명절 등 각종 행사용 선물로 아주 좋습니다!



■ 건포, 습포 마사지 특징

10분 정도 마른 수건 또는 젖은 수건으로 손발 끝에서부터 심장 쪽으로, 배꼽을 중심으로 둥글게 피부를 마사지 합니다. 외출 후 샤워 전 워밍업으로 건포마사지를 해주면 몸의 신진대사가 왕성해지고 혈액순환이 활발해져 체내에 독소가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피부 보호 및 면역력 향상에도 좋고, 감기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삼베샤워타올 (건포마사지)
* 혈액순환 및 피부 신진대사를 좋게 합니다.
* 피부의 더러움과 묵은 각질을 제거해 줍니다.
* 지치고 활력 없는 피부에 탄력과 윤기를 부여 합니다.
* 피지분비가 줄어드는 피부에 피지선의 기능을 활발히 해줍니다.
* 환자목욕용으로 사용해도 좋습니다.

값 15,000원





■ 삼베세안타올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적신 후 얼굴전체를 마사지 하듯 닦아줍니다.
* 특히 코 주변을 닦아주면 피지가 제거됩니다.
* 삼베세안타올을 물에 헹군 후 닦아줍니다.

값 6,000원





■ 삼베수세미
* 세제없이 식기세척이 가능합니다.
* 항균, 항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과일세척에도 세제없이 세척이 가능합니다.

값 4,000원



현대불교 현불샵 T.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신비한 동물사전2’ 속 불교 캐릭터는?

한국배우 수현 분한 ‘내기니’, 부처님 수호신 모티브

박정현 객원기자

불교와 영화 ‘해리포터’ 사이에는 어떤 불교적 연관성이 있을까. 티베트불교 지도자 페마 초드론이 한때 해리포터 시리즈의 ‘protagonist’를 ‘초발심 불자’로 일컬은 적은 있으나, 사실 많은 관련이 없었다. 그런데 곧 개봉을 앞둔 영화 ‘신비한 동물사전2’에 흥미로운 불교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전언이다.

불교 언론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신비한동물사전2(신비한 동물들과 그린델왈드의 범죄)’ 역(役) 중 한국배우 수현이 맡은 내기니 역할이 불교 전설과 연관 있다고 11월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비한동물사전2는 파리를 배경으로 전 세계 미래가 걸린 마법 대결을 벌이는 내용이다. 그 중에서도 내기니는 극중 에즈라 밀러의 친구이자 저주를 받아 뱀이 되는 역할이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예고편이 공개된 직후 내기니 역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내기니는 앞서 소설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등장인물 볼드모트가 데리고 다니는 큰 뱀이었는데, 내기니를 인간이 연기하는 것이 ‘해리포터’ 세계관을 뒤흔든다는 지적이었다. 실제로 내기니는 원작과 영화에서 그동안 뱀으로 묘사됐으며, 인간이라는 복선도 사실상 없었다. 특히 아시아인 배우가 이 역할을 맡는 것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도 컸다.

‘해리포터’ 스핀오프 성격 영화
내기니 役 성격에 논란 일어
JK롤링 “불교 전설에 뿌리 둬”
11월 14일 국내서 개봉 예정

이에 저자인 JK롤링은 20년 동안 비밀에 부쳐왔던 내기니의 이야기가 사실 불교 전설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JK롤링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내기니는 ‘말레딕투스(Maledictus, 짐승으로 변하는 저주를 받은 사람)’다”라면서 “날개가 달려 있으며 반인반사(半人半蛇)로 묘사되는 신화적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배우인 수현이 내기니 배역에 발탁된 것에 대해서도 “인도네시아는 자바족(Javanese), 중국인, 베타위족(Betawis) 등 수백 개의 인종으로 구성된다”고 옹호했다.

즉 불교 전설에 나오는 여자뱀신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산스크리트어로는 나가(Naga)로 불린다. 석가모니 부처님 설화에서 부처님이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행할 때 미물 또는 잡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준 신으로 알려진다. 이 때문에 동남아시아 불상 뒤편에는 뱀 형태의 신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힌두교 설화에 가까운 인물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배우 수현이 맡은 내기니는 극중 에즈라 밀러의 친구이자 저주를 받아 뱀이 되는 역할이다.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한편 영화 ‘신비한동물사전2’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스핀오프인 ‘신비한 동물사전’의 후속 작품으로, 11월 14일 국내 개봉 예정이다. 에디 레드메인, 캐서린 워터스턴, 앨리슨 수돌, 댄 포글러, 주드로, 조니뎁 등 유명 배우들이 주연을 맡아 화제를 모으고 있다.

캄보디아 불교지도자 “남중국해 중국 것”

베트남 대립 인식… 정치적 발언에 누리꾼 지적

아시아의 지중해로 불리며 영해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남중국해에 대해 캄보디아 불교지도자가 중국을 지지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1월 2일 ‘니프티 뉴스’ ‘리코드 차이나’ 등의 언론은 캄보디아발 소식들을 인용해 문제가 된 발언을 전했다.

10월 31일 중국 광동성 심천시에서 12개국의 불교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남해 불교 원탁회의’서 캄보디아의 상가라자(sangja raja) 부어크리(Bour Kry) 스님은 “남중국해 지구는 중국의 영토다. 캄보디아 정부와 불교계는 중국이 남중국해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남해 불교 원탁회의는 심천시에 소재한 흥법사(弘法寺)가 중심이 되어 남중국해를 해안으로 하는 나라들과 관련국의 불교지도자들이 모이는 회의다. 이번이 3회째인 원탁회의는 남중국해 지역의 평화와 조화, 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어크리 스님은 회의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위와 같이 발언하고 “중국은 남중국해와 세계평화를 위해 막대한 노력과 공헌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남중국해 지역과 관련된 많은 국가들은 전통적으로 불교국가이다. 불교와 사회각계의 의견을 결집해 분쟁을 해결하고, 남중국해의 조화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아야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중국을 방문한 상가라자 부어크리 스님. 사진출처=신화통신

이 같은 발언의 배경에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베트남과 중국 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측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역사적으로 베트남과 대립해 왔다. 프랑스에서 독립한 후로는 베트남에 대항하기 위해 친 중국 전략을 이어오고 있다.

한편 부어크리 스님 발언에 대해 베트남 등 타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이 발언이 퍼지면서 “캄보디아 불교 전체를 대표하는 상가라자의 발언으로 적절치 않다” “정치적인 발언을 불교최고지도자가 하는 것은 문제”라는 등의 누리꾼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박영빈 객원기자

틱낫한 스님 고향으로 돌아가다

“남은 시간 스승 · 제자들과”
92세 고령, 건강회복 주력

베트남 출신의 세계적인 선승(禪僧)이자 평화인권운동가로 유명한 틱낫한 스님(92)이 베트남으로 영구 귀국을 결정했다. 지난 11월 2일 ‘라이언스 로어’ ‘베트죠 뉴스’ 등 불교계 언론과 베트남 현지 언론들은 스님의 귀국을 대서특필했다.

틱낫한 스님은 1942년 출가한 이래 불교에 입각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참여불교 운동을 이끌었다.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국에서 반전운동을 이끈 경력으로 베트남 정부에 의해 귀국 금지조치를 당했다. 1973년 프랑스로 망명한 이래 세계 각국에 활발한 전법활동을 펼쳤다.

베트남 정부의 귀국 금지조치가 풀린 후로 해외에 머물며 포교에 힘쓰던 스님은 지난 2014년 가을에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건강이 크게 악화됐다. 그 후 집중치료를 받아 상당히 회복됐지만 여전히 건강을 장담할 수 없다. 최근까지는 태국에서 요양에 힘썼다.



다낭에 도착한 틱낫한 스님. 사진출처=스푸트니크 베트남

스님은 이에 제자인 틱삭꽝 스님에게 편지를 보내 “남은 나날을 스승과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가 왔다”며 영구 귀국을 결정했다. 스님은 편지에서 “은사스님께 부탁받은 참여불교의 사명을 70년간의 활동을 통해 베트남 불교계와 세계에 전했다. 이제 내 생의 수레바퀴가 멈추어 간다”고 밝혔다.

또한 “이 몸이 다해가는 나날을 뚜 히에우에서 보내기 위해 베트남 귀국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뚜 히에우는 틱낫한 스님의 출가본사다. 틱삭꽝 스님은 “틱낫한 스님께선 뚜 히에우에서 큰 일정 없이 조용히 요양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틱낫한 스님은 10월 26일 베트남 다낭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지난해 중순 잠시 방문한 이래 1년 만에 영구 귀국하게 됐다. 공항에는 틱삭꽝 스님을 대표로 많은 베트남 사부대중들이 틱낫한 스님을 맞이했다. 스님은 당분간 다낭에 머물며 휴식을 취한 후 뚜 히에우로 돌아갈 예정이다.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과 일화를 책으로 엮은 베트남 학자 누엔 닥쏸은 “베트남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고 싶어 한다. 스님께서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스승과 제자들이 있는 땅으로 돌아오신 것”이라며 “스님의 귀국 의의는 매우 소박하며, 정치적, 종교적 의의를 두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박영빈 객원기자

‘태국 재벌’ 레스터시티 구단주 불교식 장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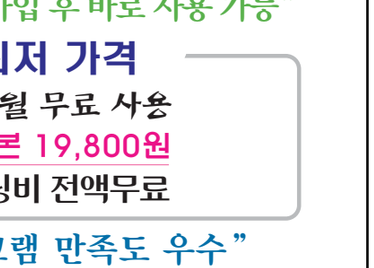
프리미어리그에 ‘불교 명상 훈련법’ 도입해 성과

영국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FC 구단주인 위차이 시왓다나쁘라파(60)의 장례식이 태국 방콕의 한 사원에서 불교식으로 치러졌다고 11월 3일(한국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시왓다나쁘라파는 지난 10월 27일(현지시간) 헬리콥터 추락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그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끝난 후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킹파워 스타디움 인근에서 추락, 당시 4명의 동승자 모두 사망했다.

태국 재벌로 알려진 그는 2부 리그인 챔피언십리그에 속해있던 레스터시티를 2010년 인수한 후 ‘불교’를 접목한 구단 운영 행보를 보여 주목받았다. 태국 승려를 데려와 개보수한 홈구장 개장식을 치르는 한편, 선수들에게도 불교 명상 훈련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운영 방법으로 2016년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거머쥐어 큰 화제를 낳았다.

장례식은 생전 불심이 깊었던 고인의 유지에 따라 사찰에서 불교식으로 치러졌다.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일가친척 및 태국 고위 정치인들, 레스터시티 소속 선수들, 프리미어리그 축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위차이 시왓다나쁘라파 생전 모습. 사진출처=레스터시티

레스터시티 주전 공격수 제이미 바디는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보냈다”며 “우리는 한 가족과 다름없었다. 비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디프시티전을 연기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구단주의 생전 철학과 배치된다는 의견에 따라 경기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현 객원기자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 民衆醫術 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 당뇨, 고혈압 에서 간단하게 벗어 나는 법
- 척추, 디스크, 협착증 및 각종질병 에서 벗어나 죽을때까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을 자세히 수록해 놓았다.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 경 상 도 010-4187-0062
강 원 도 019-396-1110 | 전 라 도 011-248-6298
충 청 도 010-6545-3350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사찰신도관리프로그램

“번거로운 설치없이 이용가입 후 바로 사용 가능”

동종업계 최저 가격
최초 가입시 1개월 무료 사용
➔ 월사용료 : 기본 19,800원
설치비 없음, 세팅비 전액무료

“이용 사찰의 프로그램 만족도 우수”



부가서비스
- 원격지원 – 해당 사찰의 컴퓨터를 원격으로 제어하여 실시간 프로그램 설명 및 오류 수정
- 적립 포인트 제도 시행 – 접속률, 이용후기작성, 사용료 3% 등 최대 22,000P 제공
- 축원문출력, 삼재관리, 회계관리, 우편라벨 출력, 신도생일 및 신도영가 기일 자동 표시 / 물품관리, 전국 날씨정보, 메모장, 일정관리, 등록된 모든 자료 파일 다운로드 가능

NAVER 지엠소프트

대표전화 070-7633-2525 / 010-8588-2525
상담문의 : 평일 09:30 ~ 17:3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무
홈페이지 http://www.gmst.co.kr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

아잔 브람

〈10〉 마음챙김의 자리잡음(사념처)

지금 이 순간의 마음챙김

오늘은 '사띠빳타나', 사념처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미얀마의 위빠사나 수행 전통에서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곧장 위빠사나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행법의 근거로써 '숙카 위빠사까', '마른 위빠사나를 닦는 자'라는 용어를 제시합니다. '마른 위빠사나를 닦는 자'는 사마타 수행을 하지 않고 위빠사나 수행을 하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사마타의 습기가 없어 건조하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물건을 소유하고 해야 할 일도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장점도 있습니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경전을 컴퓨터로도 읽을 수 있고 검색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컴퓨터의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빨리어 경장에서 '숙카 위빠사까', '마른 위빠사나를 닦는 자'라는 용어를 검색하면 '검색 결과 없음'이라고 표시됩니다. 경전에는 '숙카 위빠사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 용어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만 해도 이러한 용어가 경전에 나와 있는지 확인하려면 용어가 나왔을 법한 경전을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뒤져야 간신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은 현대 사회의 장점입니다.

미얀마의 위빠사나 전통에서는 사념처 수행을 담고 있는 〈디가 니까야〉의 '대념처경'이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념처 수행이 위빠사나라고 주장하면서 사념처 수행은 삼매 수행보다 진전된 단계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사념처와 위빠사나

사념처 수행과 위빠사나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사념처 수행은 팔정도의 일곱 번째인 바른 마음챙김 수행입니다. 앞서 말했듯 열여섯 가지 단계의 호흡 수행은 사념처 수행의 네 가지 단계를 모두 충족시킵니다.

사람들은 제가 위빠사나는 가르치지 않고 사마타만 중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제만 해도 저는 종일 위빠사나의 지혜에 대해 법문했습니다. 지혜와 지혜의 원인, 그리고 지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강의하였습니다. 아잔 차 스님이 손등과 손바닥을 보이면서 사마타와 위빠사나의 관계가 이와 같다고 말한 것처럼 사마타와 위빠사나는 서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빨리어를 잘 아는 사람들이 사념처를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경전의 한 구절을 근거로 사념처 수행이 번뇌를 소멸하고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인 위빠사나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대념처경'의 '이 도는 한 갈래 길'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한 갈래 길'의 빨리어는 '에까야나 막고'입니다. 이 단어를 '한 갈래 길'이 아닌 '유일한 길'로 해석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까야나 막고'는 유일한 길이 아니라 '한 곳으로 가는 길', 즉 외길이나 한 갈래 길을 의미합니다.



사념처 수행은 열반으로 인도하는 한 갈래 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서 정서(正西) 방향으로만 직진한다면 결국은 바다에 이르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번뇌를 소멸하는 유일한 길, 열반에 이르는 유일한 길로 경전에 거듭거듭 언급되는 것은 다름 아닌 팔정도입니다. 〈법구경〉 274번 게송에는 팔정도를 설명하면서 견해의 청정으로 가는 데는 팔정도 이외의 다른 길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살이 알려준 지금 여기

수행에 필요한 자세를 가다듬는 데 매우 유용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어떤 나이 든 스님이 만행을 하며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스님을 어느 날 아침 작고 허름한 농가에 탁발을 갔습니다. 가난한 농부는 스님을 시봉하고 싶어 했고 결국 스님은 그 마을 부근에서 우기 안거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렇게 삼 개월의 안거가 끝나고 스님이 다시 만행을 떠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농부 가족은 스님과 헤어지는 슬픔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님은 가족을 위로하며 신통력으로 보물이 묻혀 있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는 시키는 대로 조금도 어김없이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집의 대문가에 서서 활을 들고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올라오는 순간에 태양을 겨눈 화살을 놓아라. 화살이 떨어진 곳을 파보면 보물이 나올 것이다."

사념처 수행과 위빠사나는 달라
잘못된 사념처 해석 바로잡아야
수행과정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집착 놓아버리고 바라지 않는 것

다음날 농부는 태양을 겨누어 화살을 쏘았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고 말썽만 일어났습니다. 그 땅이 법률가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사정을 설명하고 모든 것이 나이 든 스님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법률가도 불교도였습니다. 그래서 나이 든 스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 스님 말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농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날 새벽에는 법률가가 활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더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 땅의 주인은 장군이었습니다. 마찬가지 일이 벌어져서 다음날은 장군이 화살을 쏘았습니다. 화살은 정말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화살이 떨어진 곳에 보물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왕의 영지였습니다. 왕은 그들 모두를 감옥에 가둔 채 나이 든 스님을 찾도록 병사를 보냈습니다.

왕은 스님 때문에 이 모든 소동이 벌어졌다고 스님을 탓했습니다. 그러나 나이 든 스님은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양이 지평선 위로 막 올라오는 순간에 태양을 겨눈 화살을 놓아라."

왕은 스님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태양을 향해 활을 쏘는 대신에 손가락의 힘을 풀어 화살을 놓아버렸습니다. 화살은 왕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보물이 나왔습니다.

스님이 말한 보물의 진정한 의미는 보석이 아닙니다. 스님은 바람, 욕망, 집착의 화살을 놓아버리면 '여기 이 순간'이라는 보물을 찾을 수 있게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 이 순간이 바로 담마, 법이 머무는 곳입니다. 여기 이 순간이 니밋따와 선정 모두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저기 저 멀리가 아닙니다. 미래의 어느 순간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선정을 얻으려는 마음에서 미래를 향해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혹은 과거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착의 화살을 그저 툭 놓아버리고 있습니까?

내일 선정을 얻기 위해서 오늘 밤새워 수행하겠다는 수행자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이 미래를 향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은 미래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마음챙김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여기 이 순간뿐입니다.

애쓰지 말라

간혹 사람들은 수행에 대해 지나치게 많은 정보를 수집합니다. 지식이 많아지면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날 뿐입니다. 하나의 질문에 답을 얻으면 세 가지의 다른 질문이 떠오릅니다. 질문에 대답을 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제가 밤새워 질문에 대답한다고 해도 다음날이 되면 다시 또 다른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십시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므로 자애롭게 수용하고 진심으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수행이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천 겹의 꽃잎을 가진 연꽃'의 비유를 생각해보십시오. 연꽃의 꽃잎이 햇살을 받아 한 겹씩 열리듯 수행자의 마음도 자애로움과 마음챙김이 닿으면 한 겹씩 열립니다. 하지만 수행자가 자신의 수행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수행은 거기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더 이상 진전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을 받아들이면 수행은 깊어집니다.

수행의 과정은 이렇게 단순하고 쉽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지금 일어난 그것이 중요합니다. 피로를 느낀다면 피로가 중요합니다. 피로와 함께 머물겠다고 생각하고 피로한 느낌을 보살피십시오. 피로와 싸움을 벌이지 않으면 피로는 곧 사라집니다.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경우 욕망을 억누르려고 싸움을 벌이면 욕망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그렇게 싸움을 벌이다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환속한 스님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나이 든 스님의 말을 있는 그대로 따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발전시키려 하지도 말고, 얻으려 하지도 말고, 지금 상태를 있는 그대로 보살피십시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니밋따, 선정,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제가 수행을 지도했던 말레이시아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출가해서 비구니 스님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재가자일 때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도하는 열흘간의 명상 수련회에 참여하여 열심히 수행했지만 그분은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명상 수련회가 끝나고 그분은 택시를 기다리면서 그저 시간이나 보내려고 잠시 앉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정, 초선을 경험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포기하고 놓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노력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화살을 그저 놓아버리면 화살이 떨어진 그곳에서 보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보물은 지금 이 순간에 대한 마음챙김입니다.

이 글은 아잔 브람의 위빠사나 명상 강의 〈아무것도 남기지 않기〉(불광출판사)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피부 · 치아 건강제

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 원력으로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며,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치석, 잇몸출혈, 흔들리는 이, 입냄새, 담배냄새, 혀백태, 입안 건조, 임플란트 또는 틀니 하시고 윗몸 아프신 분, 탈모, 비듬, 소화불량, 스트레스(화병), 가슴통증, 수행시상기증, 얼굴모낭충, 얼굴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습진, 전신 잡티, 낭습진, 피부아토피, 알레르기, 벌레, 풀독, 모기 물리고 머리염색 후 가려움증, 상처, 비염, 화상 (즉시 여러번 사용 물집안생김), 백반증, 노화성 피부건조, 역류성 식도염, 위염, 대장염 등 피부 치아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010-6332-6070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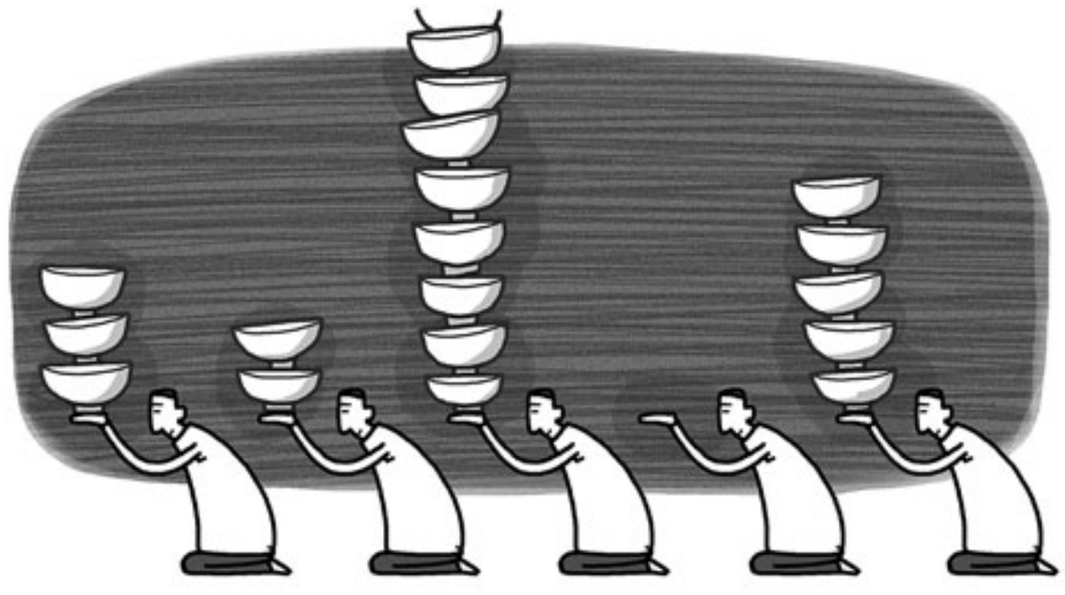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길을 묻는 이에게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놓는다면 그대로 인욕!


그림 · 최주현

오계를 어기지 않고 지키려면

질문 선원에 몇 달 다니지도 않았는데 수계가 너무 받고 싶어 이번에 기초 교육을 받고 수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계를 받고 나니 '계를 설하실 때 물으셨던 5가지 항목을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 괜히 공부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 자신과 부처님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오계를 어기지 않고 평생 동안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변 계율을 지킨다 하면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죠. 단 오계도 제대로 못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관념으로 계율을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는 생각을 다 놓고 욕심과 집착과 관습을 다 놓아 버리게 된다면, 놓고 가는 도중에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그냥 자연적으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계율 안 지키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닷물과 같고 허공과 같이 돼라. 바다에 별의별 물이 다 들어가도 그냥 한 바다의 물로 돌아가고, 이런 물 저런 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로 젖는다. 어떤 거든지 다 젖는다. 그래서 계율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탐심도 없고 집착도 없고, 남을 모함하지도 않고 둘로 보지 않기에, 일체를 내 아픔 같이 생각하고 내 몸같이 공심으로서, 계율을 지킨다 안 지킨다를 떠나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지 않는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에 지계바라밀과 인욕바라밀이 있는데, 인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일어나는 마음을 꾹꾹 눌러 참는 게 인욕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참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참는 것은 참다운 인욕이 아니죠. 놓는 것이 인욕이에요. 그 자체를 놓는 것이 인욕입니다. 그래서 찾으라고 하지 않고 놓으라고 그랬죠. 둘로 보지 않기 때문에 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찾는다면 둘이 되니까 그냥 놓아라. 너한테 보림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듯이 오계를 받고 둘로 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거를 놓는다면 그대로 그것이 인욕이요, 참답게 계를 지키는 겁니다.

대부분의 절에서 업을 강조하는데

질문 대부분의 절에서는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 하고 업의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고 소멸하는 조상님의 천도재가 너무 중요하다면서 대대적으로 벌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원에서는 업장을 소멸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마음공부만 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혼동이 옵니다.

답변 아이, 혼동할 거 없어요.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꼭 천도를 해야만이 좋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마음이 안심이 안 되는 그런 근기를 가진 사람 앞에는 잘 차려 드려야죠. 안 그래요? 또 그렇지 않는 사람은 밥 한 그릇 놓고도, 자기 먹는 밥 한 그릇 놓고도 천도를 하고 또 남아요. 아, 사람 근기에 따라서 있는 거죠. 그러니 이것도 잘못되는 게 없고 저것도 잘못되는 게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또 이것 보십시오. 사람이 상을 크게 차려 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뭐뭐 뭐뭐 비싼 걸 사다 놨는지 싼 걸 사다 놨는지 그걸 다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게 사다 놓은 것은 혼백도 다 알게 되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데 며느리가 돈이 많이 드니까 이거 안 되겠거든요. 남편이 돈 십만 원을 주는 걸 가지고 오만 원은 떼 놓고 오만 원 가지고 가서 장을 다 봐 왔단 말입니다. "여보, 장 봐 왔소? 어머님이 잘 잡수시던 것도 사오고?" 그러니까 "예." 그러기에 아들은 그런 줄로 알고 좋아서 인제 그랬는데, 상을 차려 놨어요. 싼 거를 사다가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도 그 아들은 그것을 의심 안 하고 그냥 지극한 마음으로 했고, 며느리는 그렇게 싼 거를 그만큼 해 놨다는 거를 알기 때문에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그만큼 차렸다는 거를 알고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 그날 저녁 꿈에 "얘야, 네가 싼 것만 요렇게 해다 놨으니 지금 너의 할아버지도 모두 계신데 내가 가져갈 것도 없느니라." 아, 그러거든요. 그러고 꿈을 딱 깼어요. 그래서 날더러 와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이런 꿈을 꿨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그러기에 허, 내가 웃었어요. 세상에 자기 마음먹는 대로 조상도 알게 돼 있고 우주간 법계에서도 알게 돼 있고 보살도 알게 돼 있고 부처님도 알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겁니다. 또 아직 진화가 되지 않은 어떠한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시각이나 촉각이나 후각을 통해서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그만큼 아는 사람이 이것을 통해 보면 그쪽에서 그때서야 '아하!' 하고,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 주니까 그쪽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영령들도 그래서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천도시킬 때 여러분이 상 하나 차렸다고 해서 그런 것만 생각지 마시고, 이 모든 걸 둥글려서 마음의 원을 그려서, 원으로서 그 원심력을 생각하면서 둥글려 놓는다면 이 원 속에는 다 있지 않습니까? 일체가 다 있는데 아니, 뭐 그리운 게 있겠습니까, 거기? 예? 아니, 이 세계뿐만 아니라 전체가 다 있는데 모자랄 게 뭐 있겠습니까, 원을 그려 놓으면. 그 원심으로서 제사를 지극하게 드린다면 아마 가게도 도매상이고 또 어느 호텔이고 음식점이고 뭐, 그런 데로 아니 다니는 데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마음 쓰는 자손들의 영령들, 조상들은 그냥 항상 뷔페식 하는 데 가서 잡숫고 상점에 가서 항상 자기 가지고 싶은 대로 갖고 또 상점에 가서 자기 입고 싶은 대로 입을 겁니다, 아마. 벽도 없고 봇장도 없으니까. 물도 없기 때문에 건너갈 것도 없고 오고 가고도 없이, 시간 공간도 없이.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을 넓게 쓰세요. 무슨 요거 하나 있다, 요거 차렸다 하면 영령들도 조상들도 요거 하나 차린 것만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좀 넓게 가지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질문하시는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지 업이 있다…, 내가 아까 얘기했죠. 생각을, 이 환상천을 훌쩍 뛰어넘고 또는 그러한 기복적인 생각에서 훌쩍 뛰어넘으세요. 과거도 없고 현실도 찰나 생활이니까 없고 미래는 안 왔으니까 없고, 아예 없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좋게 생각하라. 좋게 생각하면 그대로예요. 아시겠죠? 쓸 것도 없고 씌울 것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이 벗겨 주려고 애를 썼지 씌워 주려고 애쓴 건 아니에요. 그러니 우린 쓰지도 말고 누구 씌워 주지도 말고 그럽시다.

참다운 실천이 어떤 것인지

질문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학술적으로, 이론으로 따지고 예의만 지키고 도덕, 의리, 사랑 이런 것만 가지고 얘기했지 무(無)의, 즉 말하자면 근본을 모르고 산다면 진정한 마음공부를 할 수 없다." 하고 큰스님께서는 항상 강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룰 수 있는 참다운 실천이 어떤 것인지 가르침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가 지금 종교를 믿는다고 하면서 잘되자고만 빌러 다녀서는 안 됩니다. 잘되는 게 있어야 못되는 게 있고 못되는 게 있어야 잘되는 게 있는 까닭에,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만 있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낮은 곳에서만 있어서도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반 이렇게 걸쳐 놓고 교차로를 넘나들면서 고도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저 '나는 한마음선원에 그냥 다닌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내가 섭섭하죠.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몇 생을 두고 거듭거듭 태어나면서 마음 졸이고 모든 것을 버려서, 이렇게 고구마 같고, 난장이 같고, 또 하나도 보잘것없이 못난 이런 사람으로 태어나게 된 것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었다는 거를 여러분이 좀 더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상 사람은 마음대로 잘나게 태어날 수도 없고 못나게 태어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진해서 못나게 태어난 것도 재주덩어리 아닐까요? 허허허….

그전에도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진리도 하나요, 부처님 법도 하나니까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모두가 하나로 돌아가는 원리로 보면, 여기 여러분 수만 명이 다 깨친다 하더라도 일불(一佛)이며, 일법(一法)이며 바로, 차이 없는 도리인 둥근 원리입니다. 이런고로 우리가 좀 더 생각해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생각해서, 일을 할 때나 잠을 잘 때나, 또는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항상 자기 뿌리를 잊지 않을 것을 자기 뿌리에 맹세하는 반면에 자기 싹은 열심히 뛰어서 공부를 해야

☞ A18면으로 계속

한국불교 조계종 종도모집

한국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부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 사진 안, 밖 각 1매 (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증명서
- 승려증(법사증, 포교사)
- 사찰등록증
- 주지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 (간부스님에 한함)

■ 총본산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리 300번지 (오정산 백봉사)
■ 종무소 : 전국대표번호 1577-1016 / 054)571-6973 / 054)571-1030 / 054)571-7497 / 팩스 054)571-7498
■ 한국불교방송 :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107 예림빌딩 606호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

대한민국 불교종단 역사는 신라시대 5교9산의 선문(禪門)전통에 따라 비로서 종문(宗門)이 개창(開創)되고 고려시대에 이르러 천태, 조계종을 필두로 종파(宗派)가 설립되어 제종파(諸宗派)가 제각기 부종수교(扶宗樹敎)의 일념으로 불조(佛祖) 혜명(慧命)의 정법안장(正法眼藏)을 면면히 계승해 오다 조선조에는 선교양종(禪敎兩宗)으로 제종을 통합하여 오다가 그후로는 조계종(曹溪宗)만의 단일종만이 존재하게 되었다. 해방 이후 제종파 시대가 열리고 또한 1988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 불교 수 많은 종단이 창종되고 소멸되고 이제 그 실체를 파악하여 관계부처에 자료제공과 신문과 방송, 불교언론에 널리 홍포코자 하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종승(宗承)을 선양하니 해동대한민국에 불일(佛日)이 중휘하고 자비광명이 삼천리 강토에 비추리라. 이와같이 종지 종풍으로 일가를 성립할 수 있어 각기 종명을 세우고 이 땅에 불일중흥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한국불교 조계종 (사)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방송 ㈜한국불교방송신문사

대구시 달서구 새동네로 107 예림빌딩 606호 / 전화 1670-2012

한 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 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 A17면에서 계속

합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했죠? 부처님이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할 테니 너는 뛰어라." 이러셨다구요. 그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럭하고 가시는데요, 여러분은 패기가 없어요. 과감히 뛰어넘을 줄을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더 있다 죽으나 덜 있다 죽으나, 이따 죽으나 또 먼저 죽으나 죽는 것은 한 번, 똑같이 죽어요. 하늘이 무너져도요. 그런데 뭐가 두려워서 뛰어넘질 못합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인데 말입니다. 죽으나 사나 뛰는 마음 자체가 바로 피안으로 넘어서는 그런 도리입니다. 한 생 한 생을 이렇게 살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면 어쩌나, 저렇게 하면 어쩌나' 하기 때문에 넘지 못하는 분들이 아주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사적으로 이걸 해야 한다는 거, 결사적으로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 왜 그런가? 여러분이 각각 소임을 다 따로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교직이면 교직, 회사면 회사, 장사면 장사 이렇게 죄 제가끔들 다 가지고 있는 소임에 따라서 내가 자꾸 터득을 하면 그게 개척이고, 그게 계발이고, 그게 바로 나를 내가 승화시키는 길입니다. 억지로 높은 자리를 뺏어서 올라갈 양으로 애쓸 필요 없이, 자기가 맡은 소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과정에서,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해 나가셔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것은 마음의 발전을 말합니다. 마음의 발전이 되면 스스로 행도 발전하게 되므로 그것은 바로 여러 사람들에게 다 좋은 일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또 천차만별의 소임이 다 발전한다면 그 뒤에 발전을 못하고 가는 사람들도 덩달아 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몇 사람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면서 나간다고 해 봅시다. 그 연구진들이 제가끔들 연구하고 토론을 해서 그것이 이 세상에서 보람 있는 연구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열 사람이 열 가지를 연구했다면 그 열 가지 연구한 걸로 인해서 이 세계가 다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름이 종교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일체 만물만생이 모두 공생(共生)이면서, 공체(共體)면서, 공심(共心)이면서, 공용(共用)이면서 공식화(共食化)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그만 거든 큰 거든 한 번씩은 다 돼 봤다고 생각합니다. 돼 보지 않았으면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겠습니까? 계단을 하나 하나 딛고 올라오지, 그냥 밑에서 날아서 올라오는 법은 없습니다. 누구나가 그렇게 한 계단 한 계단 딛고 올라오셨을 겁니다. 이렇게 모두 첨단의 위치까지 다 그냥 한 발 한 발 딛고 넘어왔단 얘깁니다.

이렇게 한 걸음씩 여기까지 올라온 고등 동물로서 어떻게 실천을 해야만이 진짜 사람으로서 일체 만물을 다 먹일 수가 있고 되남게 할 수 있는가? 이 소리가 "떡 하나를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다 먹이고도 떡 하나가 되남더라." 하는 소리거든요.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마는 모두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실천을 하는 데는 유(有)의 법이나 무(無)의 법이나 똑같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똑같이 이 세상에 내놓을 수 있어야만이 그게 아주 옳은 법이라고 봅니다. 그게 실천이 되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그렇게 다짐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기복으로 원하고 있지는 않은지

질문 저는 이 마음공부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저 자신과 회사에 많은 도움이 되게끔 원을 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실천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에 맡겨서 하나하나 체험해 나가면서, 기복 신앙이라는 데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원하는 것이 과연 진짜 자성불에서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가 잘되게 해 달라고 기복으로써 비는 것인지 헛갈립니다.

답변 이 원이라고 하면 언뜻 둥근 것이 떠오르죠? 그래서 원심을 낸 거죠. 한마음이 된 거죠. 한마음으로 구성해서 통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공부하는 거 같지만, 이거는 심성의학이기도 하고, 과학이기도 하고, 천문학이기도 하고, 천체물리학이기도 합니다. 그건 왜냐? 내가 그 몸속에 있는 의식과 모두 합쳐 한마음을 냈습니다, 한마음으로. 원이라는 그 말이 한마음이란 뜻입니다. 그래 한마음을 냈는데, 한마음으로 내 가지고 보니까 바깥 경계도 한마음으로 되돌아가더란 얘기죠. 안에서 한마음이 다 이렇게 한다고 말을 할 땐, '원자에서 입자로 화해서 다 조절을 한다, 한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마음을 냈는데 그것이 어떻게 비는 겁니까? 이 내 마음속으로 하는 거는 비는 게 아니고, 바깥으로 찾는 게 비는 거고 기복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주인공한테 찾는다는 것은 한마음으로 중심에 그 원을 세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을 세운 그 마음 한생각이 입자로 화해서, 즉 말하자면 통신이 되면, 먼저 한 찰나에 대뇌를 통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되면 그 모든 입자들이 다 한마음으로 구성이 돼서 제각기 또 벌어집니다. 일을 할 때 똑같은 일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요거는 말을 해야 될 일, 요거는 또 사람의 마음을 움죽거려야 될 일 등, 이렇게 각각 나가서 자기 소임을 완수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천부적으로 일체를 다 구족하게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구족하게 가지고 있단 얘깁니다. 내가 그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구족한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일러 드리는 겁니다. 당신네한테 구족하게 있으니까, 그렇게 통신이 되게 해서 그렇게 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안 되고 배깁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지금 속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죽여 버려야겠다.' 이런다면, 벌써 저쪽에서 '흥!' 콧방귀 탁 뀌고 '네가 날 죽여?' 하게 됩니다.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몰라도 본래 자기 속에서는 벌써 알고 '흥! 날 죽여?' 그러고선 오히려 댑다 그리로 몽둥이가 들어가죠. 그러는 수도 있지만, 이쪽에서 자비스러우면, 또 그걸 알면서도 몽둥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이 오히려 실의에 되빠져 가지고, 그런 마음을 버리고 다시 올라오도록 자비를 베풀죠.

그러니까 그 도리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는 자기가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실천에 옮겨 보면서, 실험을 해 가면서, 체험을 해 가면서 자꾸자꾸 끝없는 길을 걸어야죠. 어떤 사람은 몇 년이나 해야 되겠느냐고 묻기도 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몇 년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몇 달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건 정해진 게 없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그릇에 따라서, 지혜에 따라서, 선천적인 자기의 그 착한 마음으로부터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습을 가지고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요 사는 동안에 세세생생을 건지느냐, 아예 그냥 구덩이에 빠지게 하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 한생각을 잘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부모를 건지고 자식을 건지고 세세생생 건질 수 있으려면은, 우리가 정말 똥을 누나, 잠을 자나, 밥을 먹을 때나 주인공 생각만 나면은 항상 거기다 놓는 작업을 안 하고는 아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 내가 "삼천배를 올려라. 기도를 하라. 정성을 들여라." 또는 "몇몇 일을 목욕재계를 하고 정성을 들여라." 이런 말 합디까?

여러분 사는 생활이 그대로 여여하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는 재료고, 여러분이 부처고, 여러분이 중생이니까 '한 생각을 잘 내면 부처고 한 생각을 못 내면 중생이다. 그러니 잘해 봐라.' 이거죠. '삼보에 귀의한다' 이런 것도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불(佛)·법(法)·승(僧)에 귀의할 줄도 안다. 즉 말하자면 자생중생에, 자생부처에, 자생삼보에 귀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과거에 살던 자기와 현재의 자기 한생각과 자기 한생각의 움죽거림이 자생삼보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기 무심과, 생각을 내는 마음과, 생각을 내면 몸이 움죽거리는 것이 바로 삼합이 한데 합쳐서 돌아가니까 그게 자생삼보에 귀의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자생삼보에 진짜로 귀의해서 그 도리를 알면은 바로, 불(佛)도 자기의 생명과 둘이 아니죠. 불이 생명이니까, 생명의 근본이 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배우는 게 교(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머리 깎은 사람만 믿게끔 되는 게 불교가 아니죠. 그냥 진리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인 불(佛)과 한생각인 법(法)과 스님들인 승(僧), 즉 불법승이 다 한데 합쳐서 내 자생삼보와 둘이 아니라는 얘깁니다. 둘이 아니죠. 생명도 둘이 아니요, 몸도 둘이 아니요, 만약에 생각도 둘이 아니라 한다면, 즉 그냥 모두가 삼보에 귀의했다 한다면, 자생이다 뭐, 부처님이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여기 법당에 와서 일정례(一頂禮)를 하든지, 삼정례(三頂禮)를 하든지, 칠정례(七頂禮)를 하든지 간에 '내 몸은 부처님 몸과 같고, 내 마음 낸 것도 부처님 법과 같고, 또 저렇게 앉아 있는 그 모습도 내 모습과 둘이 아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죠. 항상 그렇게 하면서, 여기 들어와서는 불상과 하나로 합치고, 나갈 때는 댁의 자신으로 한데 합쳐서 나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둘이 아니죠. 그러니 형상 부처님을 무시하지도 않게 되죠. 부처님 형상을 무시하면은 자기 형상이 무시가 되는 거니까. 모두가 그렇게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판단하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탄생을 안 했다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탄생을 했기 때문에 상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자랑스러운 게 있고, 즐거움이 있고, 모두 그런 거죠. 여러분이 없다면 없는 거죠. 전부 없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문제는 '너 하나로 인해서 생긴 것이다' 하는 얘기죠. 모두 각자, 너 하나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부처님이 어딨습니까?" 하니까 "말하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또 "번연히 이미 부처가 됐다고 하면서도 왜 부처를 깨닫지 못합니까?" 하고 물으니까 "네가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어떤 사람이든, 스님네든 스님네가 아니든 자기 그릇의 잣대에 대서 상대방을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내가 둥글게 그 쪽에 모자라게 들어가 주고, 크면 큰 대로 들어가 주고 아주 작으면 작은 대로 들어가 준다면, 항상 평등하고 항상 둥글지 않겠습니까? 어때요? 여러분이 보기에 '왜 저렇게 할까?' 하고 모자라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어허! 저게 내가 모르고 살 때의 내 모습과 같구나.' 이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내가 모자랐을 때의 바로 그 모습이로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부드럽게 말이 나가고 부드러운 행동이 나갈 겁니다. 자기이기 때문에, 전자에 모자랐던 자기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아예 자기 그릇에다가 맞추어서 생각을 하고선 '아휴, 저거는 그냥 천리만리 모자라.' 하고 생각을 했다면 아예 모가 나죠. 그리고 외면이 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랑을 할래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그러죠.

그러니 여러분이 심사숙고해서…, 그 자동적인 오신통의 제일 중심에 숙명통이라는 컴퓨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숙명통의 컴퓨터에 스스로,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입력되는구나. 그래서 스스로 거기다가 또 맡기면 입력된 게 그냥 전체 자꾸자꾸 없어지면서 새 물로 화하는구나. 그럼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자꾸 화해서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니까 새 걸로만 자꾸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니 얼마나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누구든지 이러한 경험 안 해 본 분들은 이렇게 좋다고, 정말 눈물까지 흘리면서 좋다고 생각하지 못하실 겁니다, 아마. 그거를 알면 자동적으로, 그 무너졌다는 빌딩에 들어가다가도 아마 튀어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이름이 종교지 사실은 어떻게 해야 인간으로 나올 수 있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무엇을 해야 미래에 모두 공덕이 될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현불 논단

'同事' 정신 필요한 사회



황수경
동국대 겸임 교수

한 건물주가 어려운 경제 감안해
임대료를 15~20% 감면해 '화제'
세입자 "열심히 장사할 것" 희망

중생과 동고동락하는 마음 '同事'
남을 위한 일은 곧 나를 위한 일
이기심, 결국 스스로를 불행케 해

甲들의 언행으로 시끄러운 현 시대
'同事' 의 정신을 중시하는 사회되길

현재 한국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 그런 가운데,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것은 자영업자라고 한다. 자영업을 하는 음식점, 가게 등이 문을 닫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종로의 한 건물주는 3000만 원이던 보증금을 무려 1억 원으로 올려달라고 하고 임대료는 4배 가까이 인상을 요구했다고 한다. 임대인은 올릴 수 없다고 하며 옥신각신하다가 끝내 건물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으로까지 번졌다.

흉흉해지는 인심 속에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건물주는 자신의 건물 세입자들에게 임대료를 1년간 15~20% 낮춰 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는 언론을 통해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서 상생차원에서 결심을 했다. 함께 고통을 부담하고자 임대료를 내렸다"고 했다. 그 건물 세입자 12명 모두가 혜택을 받았다고 한다. 그 중 떡볶이 가게를 운영하는 주인은 "월 100만원이 낮추어졌다"며 "10년 넘게 가게를 했지만 건물주가 자진해서 월세를 내려준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 역시도 운영이 어려워 업종을 바꾸어야 되나 고민 중이었다. 그런데 건물주가 월 100만원이나 자진해서 감면해 준다고 하니 "고마워서라도 계속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재미있는 것은 떡볶이 가게 주인의 주변 반응이다. 그가 임대로 감면을 지인에게 말했더니 "장난하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건물주가 스스로 월세를 낮추어 준다는 것을 믿을 수 없는 사회가 됐음을 말한다.

그러나 알려지지 않을 뿐, 그런 마음을 쓰는 분들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필자가 아는 한 보살님은 큰 부자는 아님에도 오래 전부터 세입자의 형편에 따라서 단 하나 뿐인 월세를 조정해주고 있다. 그 분 자신이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정말 어려울 때 임대인이 월세를 낮추어주었다는 것이다. 그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자기도 그렇게 한다고 한다.

형편이 어려울 때는 몇 만원이 아쉽고, 몇 십만원 이상은 큰 부담이 된다. 한번만 입장을 바꾸어보면 그 고통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다. 그러나 돈이 전부인 양 하는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금전적 이익을 포기하기란 쉬운 일은 아니다.

이 같은 일련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보살의 사섭법 중 '동사(同事)'가 떠올랐다. 동사는 중생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마음이다. 우리의 본성에는 본래 남의 아픔을 공감하는 연민심, 자비심이 있다. 부처님 말씀처럼 모든 존재는 연기법으로 연결되어 더불어 살고 있기에 상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며, 남을 위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한 일이 된다.

모든 건 '자리이타'다. 세입자들이 잘 되면 건물주도 좋을 것이다. 월세 부담이 덜어진 분들도 좋겠지만, 아마 건물주 자신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다. 자기만 생각하는 어둡고 이기적인 마음이 들 때는 결코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다. 건물주로서는 '내 이익만 챙기는 탐심'에서 오는 고통이 덜어졌을 것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내가 손해 본다, 희생한다'는 마음 없이 이루어질 때 더 큰 공덕이 될 것이다. 어디서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은 한결같이 "제 마음이 편해지고 제가 받는 것이 너무 많아요"라고 한다.

우리는 현재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타인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쓰고 있을까. 금전은 물론, 이익이 된다면 무엇이든 더 가지려고, 더 차지하려고 오히려 주변을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는지 돌아보았으면 한다.

모든 것은 공해서 지나갈 뿐 영원한 자기 것은 없다. 지혜롭게 무상을 생각하고, 탐진치로 인한 과도한 집착들은 놓아버렸으면 한다.

갑들의 언행으로 시끄러운 사회다. 진심으로 남을 생각하는 보살의 자비로운 마음과 실천으로 우리 사회가 따뜻해지고, 국민 모두가 자기만 생각하는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한다.

社說

조계종 17대 중앙종회 개원에 부쳐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개원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에서 개원법회를 봉행하고 제213회 정기회를 개최했다. 정기회에서는 4선의원인 범해 스님이 만장일치로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으며, 수석부의장과 차석부의장에는 장명 스님과 주경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중앙종회는 상임분과위원장과 위원 등을 선출·배정하며 원 구성을 마쳤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사회로 따지면 '국회'와 같다. 즉, 종헌 종법을 만드는 입법기구이면서 총무원 집행부를 견제하는 행정적 장치이기도 하다.

지난 제16대 중앙종회는 역대 어느 회기와 비교해 봐도 적지 않은 입법활동을 펼쳤지만, 논의만 하다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야무야 된 사안도 적지 않았다. 또한 굵진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제기된 종법 미비사항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점도 있다.

'입법기구'로서 제17대 중앙종회가 해야 할 일은 명증하다. 종법 미비사항들을 잘 정비하고 현재 종도들이 원하는 입법들을 이뤄야 한다. 특히 지난 회기보다 이번 중앙종회는 재선의원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서 활발한 입법활동을 기대하게 된다.

조계종은 지난 몇 년간 끊임없는 내외적 잡음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올해에도 잇단 악재로 총무원장이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진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아직도 그 여진은 남아있다.

이럴 때일수록 중앙종회는 집행부 견제기구로 화합할 부분은 화합하고, 비판할 부분은 날선 비판을 행해 종단이 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조계종 제17대 중앙종회가 어느 회기보다 입법기구이자 견제기구로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

장애인 전법에 사부대중 관심을…

불교계를 대표하는 장애인 전법단체 중 한 곳인 조계사 원심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다. 조계사 원심회는 1988년 원심회의 전신인 강남 원심포교원서 10명이 수화교육을 받으며 탄생했다. 초창기 사무실과 법당 없이 옮겨 다녔지만, 1992년 조계사불교대학 지하에 공간을 마련하며 지금에까지 이르게 됐다.

원심회의 30년은 재가불자들의 장애인 포교사를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원심회를 비롯한 많은 단체에서 불교 수화 영상 제작과 교재 보급 등에 적극적으로 나섰지만 아직 청각장애인 포교를 비롯한 장애인 전법에는 갈 길이 멀다.

그 무엇보다 인식 부족이 크다. 인식 부족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님의 참여다. 원심회에 따르면 전국불자 국가공인 수화통역사는 50명이지만 스님은 1명에 불과하다.

부처님 제자 중 천안제일로 불린 아나율 존자는 두 눈이 보이지 않은 장애인이었지만, 장애가 수행에는 아무런 걸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했다.

전법에 있어 장애의 벽이 없어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법을 전하는 이들부터 마음 속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다. 최근 종단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는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에 나서고 있고, 결국 이를 주도해야 할 이들이 스님들이란 점에서 스님들의 장애인 포교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장애인들의 아픔을 모르고서는 이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 스님들이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을 비롯해 다양한 장애인 포교 역량을 갖추고 현장에서 활동할 때 불교의 사회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다.

특별기고

추억과 함께 한 수능 격려엽서



민성화 동국대부속여고 미술교사

1학년 학생들의 첫 미술 시간, 올해도 새내기들을 맞이했다.

"다음시간에는 상반신 사진을 찍어줄 겁니다. 출력한 사진을 나눠주면 꾸며서 제출해 주세요. 2년 뒤 수능시험 전에 돌려주겠습니다."

찍기 싫다며 애교 섞인 반항을 하던 아이들은 정작 사진을 찍을 때 난리가 난다. 미술실 가득한 물감 냄새는 화장품 내음으로 바뀐다. 틴트, 마스카라 등 각양각색 화장품이 허공을 가르기도 한다. 좀 더 예쁘게 나오려는 학생들 모습이 귀여웠다.

갖가지 포즈에 다양한 각도로 열심히 촬영하건만 아이들은 계속 찍자고 했다. 1장만 더 찍자는 학생들의 아우성에 마지못해 찍고 나니 "제일 처음 것으로 뽑아주세요"란다.

우여곡절 끝에 아이들에게 출력한 사진을 나눠줬다. 학생들은 친구들과 비교하며 깔깔거리다가도 사뭇 진지한 태도로 사진을 꾸몄다. 미래의 희망과 꿈에 대해 적을까 싶었지만 실제로 쓰는 것은 'A대학, B대학 진학'이 대다수다.



동국대부속여고 전통으로 자리잡은 수능 격려엽서 전시.

각자 사진을 다 꾸미면 이제 엽서를 쓸 시간이다. "지금 여러분들의 사진은 2년 뒤에 빛을 볼 거예요. 나눠준 엽서에는 3학년 선배들에게 글을 쓰는 거예요. 내 가족에게 쓴다고 생각하고, 선배들의 힘들고 지친 마음이 위로받을 수 있도록 정성을 담아 써 봅시다."

아이들은 사진을 꾸밀 때보다 더욱 진지한 자세로 한 자 한 자 엽서를 채워나갔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수능 D-10일. 나는 미술반 친구들, 지도교사와 함께 엽서와 사진을 붙여 코팅 작업을 했다. 올해에는 교법사 선생님이 부처님 가피가 담긴 소원 실팔찌를 지원해주셨다. 엽서사진에 소원팔찌, 그리고 미술반 화담이 마련한 초콜릿까지 동봉해 포장하니 제법 알찬 선물이 됐다.

11월 5일, 학교 운동장 옆에는 '잘해왔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예요'라고 적힌 후배들의 진심이 담긴 현수막이 걸렸다. 한쪽 공간에는 붉게 물든 단풍나무 가지에 엽서와 사진들을 걸어 전시했다. 1교시가 끝난 종소리가 울려퍼지고, 3학년들이 우루루 운동장으로 쏟아져 나왔다.

"이런 행사가 있었나"라며 자기 얼굴을 찾던 학생들은 2년 전 자신들 모습을 보고 친구들과 손사래를 쳐가며 웃었다. 아이들 뒤로 잔잔한 미소를 머금은 교장, 교감 선생님이 보였다. 동국대부속여고 아이들아~ 내년 수능시험장에는 가지마라! 모두 파이팅!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박종수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삽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51)405-9402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대 구 지 사 : (053)768-8008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 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누가 집에 들어와서 음식에 약을 타서 먹지 못하게 한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한다거나 성격이 포악하고 욕을 잘하는 경우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 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악령귀신도 불법승으로 단 한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 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번이나 했는데 안되더라 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반드시 해결되는데 믿지못하고 의심하고 망설이는 것은 또 뭐꼬!!!

귀 대한불교 자비사 예약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

상처난 마음 찾아가는 '힐링 멘토'



마가 스님은… 1961년 전남 고흥에서 태어났다. 광주 금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9년 중앙승가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 2014년 한신대학교 종교문화학과 석사를 마쳤고, 현재 중앙승가대학교 실천승가학 박사과정에 있다. 1981년 월정사에서 출가했으며, 1982년 현성 스님을 은사로 도선사에서 정진했다. 법주사 복천암을 등에서 5안거를 성만했다. 2002~2005 마곡사 포교국장 재임시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개발 · 운영했으며, 현대자동차, 삼성, 우미건설, 신한은행 등에서도 진행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중앙대 겸임교수를 역임했고, 2013~2015 동국대 정각원 교법사를 지냈다. BBS불교라디오 '마가 스님과 함께하는 자비명상'을 비롯한 다수의 방송을 진행했고 〈내 안에서 찾는 붓다〉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했다.

산문 밖의 禪

마가 스님(57 · 현성정사 주지, 자비명상 대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천상천하유아독존" 부처님의 첫 설법. 말씀대로 우리는 각자 존귀한 존재이다. 그 존귀한 각자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안고 육도를 건너야 하는 고단한 존재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고단한 삶 속에 있다. 다행히도 우리에겐 부처님이 일러주신 '길'이 있어 '지금 이 순간'을 또 맞이한다.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지금 이 순간의 인연을 짓는 것으로, 마음 하나하나가 서로 무관하지 않다. 그 연기(緣起)에 일찍이 눈뜨고 대중의 마음을 살펴온 이가 있다.

시대의 화두가 되어버린, 아니 이제는 화두라고 할 것도 아닌 '힐링'을 일찍이 부처님의 글자로 시작한 이가 있다. '자비명상'이라는 수행법으로 대중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고, 그 마음에 불법(佛法)을 심고 있는 (사)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이다.

'자비명상'의 탄생

2005년 7월 1일, 장맛비가 내리는 마곡사에 28명의 대중이 모였다. 아픈 사람들이다. 마음이 아픈 이들이다. 그들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부처님을 찾았다. 그들을 맞은 이는 당시 마곡사 포교국장 마가 스님. 그들의 마음은 이제 마가 스님에게 달렸다.

연화당에 모여 앉은 참가자들에게 마가 스님은 각자의 이름을 새로 지어보라고 한다. '물망초', '무념무상', '허공' 등 참가자들은 새로 지은 이름으로 이름표를 고쳐 달았다. 그 이름 속에는 많은 사연들이 담겨있었다.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 온 사람들이다. 스님은 그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었고, 이름 하나로 그들은 새롭게 태어났다.

저녁 예불을 마친 후 스님은 법당에 마주앉은 참가자들을 두 줄로 눕힌 후 '김밥말기'를 제안한다. 적막이 흐른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의 몸 위를 구르는 것이다. 스님의 재촉에 참가자들은 서로의 몸 위를 구르기 시작한다. 상처 없는 상처를 안고 온 이들, 서로의 상처 위를 구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참가자들의 눈빛은 분명 달라지기 시작했다.

어둠이 깔리자 스님은 참가자들을 절 밖으로 내보낸다. 두 명씩 짝을 지어 절 근처를 걷게 했다. 한 사람은 눈을 감고 상대방의 손에 의지해 걸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마가 스님의 '이심'은 무엇이고, 길을 걷는 참가자들의 '전심'은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것은 그 짤막한 길이 결코 짧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지난날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는 것, 일 초 일 초가 가볍지 않은 일이다. 산책을 끝으로 첫째 날의 일정인 '마음 열기'가 마무리됐다.

새벽 3시, 새벽예불이다. 그리고 108배. 참가자들은 잠이 채 가시지 않은 몸으로 예불을 올리고, 집전 스님의 죽비에 맞춰 절을 시작했다. 누구를 위한 절이며 무엇을 위한 절인가. 아직 가야 할 길은 멀다. 일 배 또 일 배, 문 밖의 어둠처럼 일 배 일 배는 그저 어둠일 뿐이다. 하지만 잠시 후 달라지기 시작한다. 가쁜 숨과 숨 사이에 '나'가 서서히 들어서기 시작한다. 상처와 관련된 시간들이 거친 호흡을 타고 들락거린다. 이제 절은 각자의 몫이다. 참회의 시간, 용서의 시간, 성찰의 시간이다. 미움, 원망, 그리움, 안타까움 등 번뇌들이 몰려온다.

아침 식사 후 '가족 긍정 명상'이 이어진다. 가족을 생각하는 시간이다. 역시 시간이 흐르자 참가자들은 많은 감정들로 흔들리기 시작한다. 미움과 용서, 원망과 사랑이 교차한다.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온다. 참가자들은 맨발로 젖은 산길을 걷는다. 상처가 각자의 몫이듯 길은 각자의 것이다. 치유를 향해 걷고 있다.

저녁 공양 후 참가자들은 노래에 맞춰 온갖 몸짓으로 망가진다. 마음껏 망가진 '나'를 통해 '상처'는 또 한 번 출렁인다. 그 출렁임으로 각자는 어딘가에 가 닿고 있는 듯했다.

한바탕 난리를 치르고 난 후 이제 '유서'를 쓰는 시간이다. 20분 후에 죽는다는 가정 아래 참가자들은 유서를 써야 한다. 그 동안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상처'는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 얼마나 단단한 것이었던가. 하지만 죽음 앞에서 마주한 그 상처들은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유서를 써내려가던 참가자들은 하나 둘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눈물 속엔 용서와 화해, 믿음과 사랑, 참회와 새로운 서원이 들었다. '물망초' '무념무상' '허공' 그들은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마지막 셋째 날 일정은 '다시 일상으로'이다. 지금의 생은 지나온 생의 인과에서 온 것이며, 다음 생 역시 지금의 인과에서 비롯될 것이다. 어제 죽음을 체험함으로써 참가자들은 지난 생을 기억할 수 있고, 지난 생을 기억할 수 있는 덕분으로 새로운 오늘과 내일을 생각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지금 이 순간의 '나'를 보게 된 참가자들은 이 세상에서 단 하나의 존재인 '나'를 깨닫는다. 각자는 존귀하고, 내가 존귀한 만큼 모두가 존귀함을 깨닫는다. 이제 모두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은 참가자들은 서로에게 삼배를 올린다. 그리고 존경과 자비의 마음으로 서로를 안아준다. 2005년 현대불교신문사와 마곡사가 공동으로 주최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은 그렇게 세상에 첫 선을 보였다.

불연으로 다시 살다

20세 때 부친 원망 자살 기도
3일 후 깨어나 월정사서 출가
인도 순례서 화두 안고 돌아와
화두 들고 선지식 찾아 나서
태안사서 청화 스님 만나
"너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느냐?"
스승의 물음에 화두 풀리고
부친에 대한 미움 용서로 변해
부처님 가피 보답 보살행 원력

출가, 그리고 원력의 시작

마가 스님은 스무 살 때 월정사에서 출가했다. 스무 살의 청년은 삶에 미련이 없었다. 그 뿌리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과 원망이었다. 스님은 일찍부터 아버지와 멀었다. 힘겹게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자아를 가지기 시작한 청년은 삶보다는 죽음 쪽으로 기울었다. 스님은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제일 먼 곳이라고 생각한 오대산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삶을 버렸다. 하지만 청년은 삶을 떠나지 못했다. 약을 먹고 쓰러져 있는 청년을 월정사 노스님이 보았다. 청년은 3일 만에 깨어난다. 그 인연으로 청년은 그 자리에서 출가한다.

스님은 월정사를 나와 합천 해인사, 부산 범어사를 거쳐 서울 도선사에 바랑을 풀었다. 그리고 현성 스님을 은사로 모셨다. 군복무를 마치고 도선사로 돌아와 계를 받은 스님은 속리산 복천암을 시작으로 문경 봉암사, 부산 해운정사, 예산 수덕사 정혜사 등에서 다섯 철을 난다. 하지만 특별한 '소식'은 없었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선원총림과 차(茶)

B5 문화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B6 학술 · 문화재
금석문 탁본 조사학술대회

“자비명상, ‘선업 쌓는 법’ 깨닫는 수행”



11월 5일 서울 동국대에서 ‘자비명상’ 지도자 과정으로 최근 새롭게 출시한 프로그램 ‘마가 스님의 마음카드’에 대해 강의 하고 있는 마가 스님.



2005년 본지와 마곡사가 공동 주최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서 명상지도를 하고 있는 마가 스님.

이 시대 힐링 포교사

마곡사 인연으로 ‘자비명상’ 시작

2004년 중앙대 교양 과목 채택

〈내 마음 바로 보기〉로 큰 반향

정원 150명서 1500명으로 늘어

9년 동안 총 2만여 명 수강해

2005년 본지와 마곡사 공동 주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첫 선

마음 충전소 등 쉼 없는 보살행

새 프로그램 ‘마음카드’ 출시

강연 · 방송 · 출간 다양한 활동

“저는 부처님께 위로 받아요”

‘마가 스님’ B1면에서 계속

선방생활에 지친 스님은 도반들과 인도로 성지순례를 떠났다. 출가한 지 십 년째였다. 성지순례는 원만하지 못했다. 서로 뜻이 맞지 않은 도반들은 각자 순례의 길을 나서기로 했다. 게스트하우스에 홀로 남은 스님은 일주일 동안 게스트하우스 밖으로 나서지 못했다. 낯선 땅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스님은 일주일 동안 홀로 있으면서 자신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된다.

“내 가슴 깊은 곳에서 살고 싶어 발버둥치는 ‘나’를 보았어요. 그 순간 환해지더라고요.”

스님은 다섯 철 안거에서도 경험하지 못했던 공부를 일주일 동안 타국의 게스트하우스 작은 방에서 경험한다. 작은 ‘소식’이었을까. 가슴이 뛰었다. 출가자로서 처음으로 무언가와 만난 스님은 점검과 지도를 위해 스승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귀국한 스님은 제방의 어른스님을 찾아 나섰고, 마침내 곡성 태안사에서 청화 스님을 만난다.

“자네는 출가 전에 어떻게 살았나?”

그 순간 스님은 숨이 탁 막혔다. 큰스님의 물음에는 큰 가르침이 들어있었다. 스님은 큰스님의 질문을 받자마자 출가전의 삶이 가슴 깊숙한 곳에서 다시 화산처럼 터져 나왔다. 그 안에는 다시 ‘아버지’가 있었다. 이름과 옷만 바뀌었지 아직도 지난날을 끝내지 못한 것이다.

“어느 날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아버지 고맙습니다. 청화 스님 고맙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고 가슴 속에서 말이 터져 나왔어요. 그렇게 일주일을 울었어요.”

스님이 청화 스님 곁에서 머문지 한 달 반이 지났을 때였다. 스님은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하고 있던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걷어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청화 스님은 “이제 자네는 됐네.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원 없이 보살행을 하게”라고 했다. 그때부터 마가 스님은 세상에서 대중과 나눌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못난 놈을 부처님이 받아주시고, 많은 시주은혜들이 있어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혜 다 갚지 못하고 간다면 큰 벌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번 생에 밥값 다하고 가기로 발원했죠.”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은 본인의 삶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한 아픔과 그 아픔에서 벗어난 경험이 녹아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님은 “수행은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의 응어리를 푸는 작업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자비명상’ 태동… 중앙대 교양과목 채택

2002년 마가 스님은 어머니의 병환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찾는다. 노모는 불편한 몸으로 머리를 깎고 찾아온 아들을 위해 밥을 짓는다. 밥상을 받은 아들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흐른다.

“출가하고 난 후 처음으로 ‘주지’에 대한 생각을 품었어요. 어머니를 모시고 싶었어요.”

마곡사와의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당시 소임 대중이 필요했던 마곡사가 구인공고를 냈다. 2년 동안 소임을 맡아주면 절을 주겠다는 조건도 있었다. 스님은 마곡사로 달려갔다.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은 스님이 마곡사 대중이 되면서 시작됐다.

“일과가 너무 무료했어요. 그래서 법공양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마곡사를 찾은 대중에게 〈법구경〉 한 구절씩을 적어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자비명상’의 시작은 바로 그 〈법구경〉에서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다. 〈법구경〉 한 구절에서 감화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마곡사를 찾았다.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무리’가 되었고, ‘자리가’ 필요해졌다. 그래서 처음엔 찻자리를 만들어 함께 했고, 새벽예불체험, 범종타종체험 등 작은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졌다. ‘자비명상’은 그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스님은 모여드는 사람들을 모아서 템플스테이를 시작했다. 찾아오고 머물다보니 템플스테이가 된 것이다. 스님은 그 때부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살아온 삶으로 대중의 마음을 읽기 시작했다. ‘이혼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실직자를 위한 템플스테이’, ‘60대를 위한 템플스테이’ 등 마가 스님의 템플스테이는 하루하루 진화했다. 그때였다. 2004년 마가 스님의 이름이 산문 밖으로 알려지게 된다. 중앙대학교 관계자가 마가 스님의 템플스테이를 보고 학교 교양 선택 과목으로 채택한 것이다. 종립대학도 아닌 일반대학에서 3학점 짜리 정규과목으로 채택한 것이다. 교과제목은 ‘내 마음 바로 보기’이다. ‘자비명상’의 다른 이름이라고 할 수 있다. 스님은 ‘자비명상’으로 하고 싶었지만 학교 측에서 종교적이라는 의견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다. 만약 학교 측에서 이름을 바꾸지 않았다면 ‘자비명상’의 탄생은 좀 더 앞당겨졌을 것이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정원 150명의 수강신청이 10분 만에 마감됐다. 지원자가 많아 야간강좌까지 개설됐다. 정원 150명으로 시작된 강의는 9년 후에 1500명으로 늘어났다. 스님 7명이 투입됐다. 9년 째 강의를 마지막으로 강의는 종료됐다. 그 동안 스님의 강의를 들은 학생은 약 2만 명에 달한다.

쉼 없는 프로그램 개발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은 자신에 대한 자비심을 바탕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심을 확장시켜 이타적이고 평온한 마음에 이르게 하는 명상이다. 또한 자비명상은 명상과 상담의 장점을 살려 한국인의 정서에 맞게 개발한 명상법이다. 삶과 어우러지며 소중한 나를 찾아가는 마음치유명상이다. 마음을 열고, 알고, 나누는 명상으로, 화와 불안을 다스리고 건강하게 터트리는 방법과 자기 안에 깊숙이 내재된 긍정심과 자신을 사랑하는 법,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을 기르는 법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비명상은 이 순간 선업공덕을 짓고 있는지 불선업을 짓고 있는지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지금 이 순간 깨어있음을 알아차리게 하는 역할과 인과법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과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세상이 복잡해진다고 생각해요. 부처님의 인과법을 안다면 좀 더 조심스럽게 살 것 같아요. 연기법의 핵심은 계를 잘 지키는 것이죠. 그리고 수행은 지금 이 순간 선업공덕을 쌓는 것이고요.”

스님은 언제부턴가 이 시대의 ‘힐링 멘토’로 불리고 있다. 2013년부터 매일 아침 인연지인들에게 ‘오늘의 명상’을 발송하고 있고, 2015년부터는 ‘53선지식을 찾아 떠나는 선재동자의 명상여행’을 이끌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문화관광부가 인증한 ‘청소년을 위한 EGG 깨뜨림’, 2018년부터는 ‘나를 바꾸는 100일’ 수행 법회를 현성정사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 초부터는 상처입고 지친 청춘들에게 직접 다가가기 위해 노량진 고시촌에 ‘마음충전소’를 열었다. 단 하나뿐인 자신을 소중히 하고 사랑하는 방법, 자신을 아껴주는 주변을 돌아보는 여유, 그리고 이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베푸는 방법을 널리 알리기 위한 프로젝트이다. 그렇게 쉼 없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마가 스님은 최근 또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마음카드’이다. 49장의 그림 카드로 구성된 ‘마음카드’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중간 역할로서 자신의 내면 통찰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이다. 더불어 자신을 둘러싼 관계와의 조화로운 관계형성을 위해 지혜를 주는 수단으로 제작되었다.

스님은 이 밖에도 다수의 방송프로그램과 저서를 통해 힐링 멘토로서의 길을 걷고 있다.

힐링 멘토도 아프다

국민의 힐링 멘토로 불리는 마가 스님이지만 스님 역시도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스님도 아플 때가 있다.

“부처님 전에 무릎 꿇고 앉는 거죠. ‘부처님, 이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묻죠. 그렇게 묻는 것이 저의 위로죠. 출가자로서의 힐링은 그것뿐이죠. 부처님께 묻는 것.”

스님의 힐링 멘토는 부처님이다. 결국 우리 모두는 부처님으로부터 위로 받고 있는 것이다.

“제가 하는 모든 노력들은 이미 부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종교가 양적인 팽창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수행이 철저해야 다른 사람을 제도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진리입니다.”

스님은 자기 수행을 ‘너무나도 쉬운 진리’라며 강조했다. 일주일 동안 눈물을 쏟아내고 난 후 가슴 속의 모든 것을 비워낸 힘겨운 시간이 있었기에 마가 스님은 대중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다. 점점 마음을 쓸 수 없는 세상이다. 함께 사는 일이 내가 사는 일이다. 더 많은 일정으로 마가 스님이 쉴 틈이 없기를 바란다.



禪과 茶의 만남… '茶禪一如' 시대 열어

〈다선일여〉



윤창화의
중국 선원 생활과 철학

㉑ 선원총림과 차(茶)



차를 달이는 소임을 '다두(茶頭)'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한다.

'조주끽다(趙州喫茶)' 새 공안
가람에 다료(茶寮) 다실(茶室) 등장
'벽라춘' 등 명차 모두 선승이 제조
'다두(茶頭)' – 차 달이는 소임

1. 차(茶)와 선, 끽다거(喫茶去)의 의미

선(禪)이 중국 천하를 석권하고 있던 중당(中唐 · 766-835), 만당(晩唐 · 835-907) 때가 되면 차(茶)는 더욱 선(禪) 속으로 깊이 들어와 '차와 선은 하나'라는 다선일여(茶禪一如)의 세계를 형성한다. 기호식품의 하나에 지나지 않았던 차를 선의 세계 속으로 끌어 들인 것은 선승들이었다. 차는 선을 만나서 그 세계를 확장했고, 선은 차를 만나서 문화적 지평을 넓혔다고 할 수 있다.

송대가 되면 차문화는 선원총림 뿐만이 아니고 일반에서도 크게 유행했다. 차는 드디어 사찰과 황실, 사대부의 가정을 벗어나서 도심 한 가운데로 진출했다. 그 결과 다관(茶館)이 음식점이나 주점(酒店)보다도 더 많을 정도였고, 심지어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도 차를 파는 다방이 있을 정도였다.

중국 선종사에서 처음으로 차(茶)를 공안(公案 · 선문답) 속으로 끌어들인 선승은 구자무불성화로 유명한 조주 선사(趙州禪師 · 778~897)이다. 그의 선을 구순(口脣皮禪 · 뛰어난 선법문)이라고 하는데, 아주 일상사(日常事, 尋常事)에 불과한 '끽다거(喫茶去)'라는 다어(茶語) 하나로 구도 행각으로 바쁜 납자들의 발목을 잡았다. 그가 주는 무심한 차 한 잔을 받아먹고 허우적 거리지 않는 납자들이 없었다. 그의 끽다거는 통상적인 단순한 끽다거가 아니고, 선의 진의(眞義)를 묻는 '여하시 조사서래의(如何是 祖師西來意)'와 같은 말이 되어 '조주끽다(趙州喫茶)'라는 공안을 낳았다.

어느 날 한 납자가 조주 선사를 찾아왔다. 조주 선사가 물었다. "혹시 전에 여기에 와 본 적이 있소이까?" "네, 온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소. 차나 한잔 마시시오." 다음 날 또 다른 납자가 찾아왔다. "여기 와 본 적이 있소" "아니 처음입니다." "아, 그렇소? 차나 한잔 마시시오" 원주가 답답해서 여쭈었다. "선사, 어째서 와 본 적이 있다는 납자 에게도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하시고, 온 적이 없다는 납자에게도 '차나 한잔 마시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러자 조주 선사가 "원주"하고 불렀다. 원주가 "예"하고 대답하자 "자네도 차 한 잔 마시게."라고 하였다.

조주의 차는 무슨 차인가? 조주의 차는 일체 사량 분별을 절단시켜 버리는 희귀한 차(茶)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는 역사상 일찍이 없던 차였다. 언설(言說)과 분별이 미치지 못하는 차(茶)로서, '덕산방(棒)', '임제할(喝)'과 같은 차이고, '살인도(殺人刀)', '활인검(活人劍)'의 차(茶)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선종사원에서 '끽다(喫茶)', '끽다거(喫茶去)'는 심상사(尋常事)이고, 일상의 하나이다. 즉 '선'이란 행주좌와(行住坐臥, 일상의 거동), 착의끽반(着衣喫飯, 옷을 갈아입고 밥 먹고), 아시송뇨(屙屎送尿, 소대변 보는 일), 그리고 대인접화(對人接話, 객승과의 대화)의 일상에서 벗어난 특별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중국 선승들은 차를 매우 애호했다. 선종사원에서는 눈을 뜨면 차 한 잔으로 부터 하루가 시작되는데, 차(茶)는 좌선 중에 쏟아지는 수마(睡魔)를 쫓고 신심(身心)을 청정하게 해주며, 소화기능을 돕고, 구취(口臭) 등 몸의 냄새를 제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주(禁酒)의 도량에서 빈객을 접대할 수 있는 격조 있는 유일한 식품도 차였다. 또 차는 대화의 매개체이자 담론의 주제이기도 했다.

2. 차(茶)의 대화, 설봉과 암두

당말의 유명한 선승 설봉의존(雪峰義存 · 822~908)과 암두전활(巖頭全豁 · 828~887), 흠산(欽山) 선사가 함께 강서 지방을 지나가다가 어느 찻집에서 차를 마시게 되었다. 〈전등록〉 17권 '흠산문수(欽山文邃)' 장(章)에 나온다.

흠산이 말했다. "전신통기(轉身通氣)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오늘 차를 마실 수 없도록 합시다." 암두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는 차를 마시지 않겠소." 설봉이 말했다. "나도 그렇소." 이에 흠산이 말했다. "두 노인네가 말 귀도 못 알아듣는 군!" 하고는 일어섰다.

재미있는 대화다. 여기서 차(茶)란 반야지혜 작용의 하나로 등장한다. 흠산은 정신적 질병에 걸려서 전신통기(轉身通氣)를 할 줄 모르는 자는 차를 마실 자격이 없다고 법거량을 한 것이다. 이에 암두와 설봉이 사실로 받아들여서 "차를 마시지 않겠다."고 했으니, 여기서 행각은 의미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흠산은 말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핀잔을 준 것이다.

〈전등록〉 '흠산문수' 장(章)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미 당말(唐末)의 중국 거리에는 차를 파는 다점(茶店), 즉 찻집이 있었다. 그것은 중국 차문화의 발전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당말에 이르러 차는 선이라는 매개체를 등에 업고 곧 다가올 송대를 향해서 문호를 확장하고 있었다.

3. 선종사원의 차(茶)

선종의 끽다문화는 송대에 이르면 가람 구성에도 영향을 주어 법당(法堂, 설법당)과 방장 사이에 차를 마시는 다료(茶寮, 茶室), 다당(茶堂), 다실(茶室)이 세워진다. 이로 인하여 종래 승당이나 중료(衆寮, 큰방, 대중방)에서 마시던 차(茶)가 한층 더 격조를 갖추게 되었고, 다선일여(茶禪一如)는 선종사원의 생활 속으로 깊이 들어왔다. 선승들의 생활에서 끽다(喫茶)와 음다(飮茶)는 불가분의 깊은 관계가 되었다.

선종사원에는 전문적으로 차밭, 즉 다원(茶園)을 가꾸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다. 제다(製茶) 기술도 뛰어났고, 명차(名茶)의 재배와 생산, 그리고 전다(煎茶) 솜씨도 우수했다. "명차(名茶)는 사찰에서 나온다."는 말과 같이, 몽산차(蒙山茶 · 한나라 普慧 스님이 만듦)와 벽라춘(水月茶), 무이암차에서도 명성이 높은 수성미(壽星眉) · 연자심(蓮子心) · 봉미용수 등 명차는 모두 선승들이 만든 차(茶)였다. 선승들은 모두 차(茶)의 명인(名人)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차를 달이는 소임을 '다두(茶頭)'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다각(茶角)'이라고 하는데(우리나라에서만 쓰는 말), 하위직으로 주로 법랍이 얼마 되지 않는 신참승들이나 행자들이 맡는다. 그러나 수행에는 다두(茶頭) 소임이 제격이다. 다두가운데는 승당(선당)의 다두, 방장실의 다두, 수좌료(首座寮, 수좌실)의 다두, 유나실의 다두, 지객료의 다두, 고사(庫司, 원주실)의 다두 등 각 요사마다 다두가 있다. 승당의 다두와 방장실의 다두는 주로 신참승이 맡고, 기타 다두는 행자들이 맡는다.

송대 선원총림에서는 다석(茶席, 찻자리), 다탕(茶湯, 찻자리)이 많았다. 다석에는 거의 모든 대중들이 참석한다. 많은 대중이 참석하므로 법도와 질서가 정연해야 하고 고요[寂靜] · 정숙해야 한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면 그날 다석은 망친다. 그래서 각자 앉는 자리가 정해져 있는데, 명패를 붙인다. 100명 이상이 함께 차를 마시지만 발우공양처럼 아무런 소리가 나지 않아야 한다. 방안에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야 한다. 선의 마음으로 차를 마시는 것이므로 소란스러워서는 안 된다. 말을 해서는 더욱 안 된다. 그것이 선이고 선차(禪茶)이다.

특히 주지는 일 년에도 수십 번 찻자리를 마련하는데, 총림의 4절(四節)인 하안거 결제일과 해제일 · 동지 · 정월 초하루 날에는 대중 전체가 함께 마시는 대좌탕(大坐湯) 자리를 마련한다.

또 선종사원에서는 '특위차(特爲茶)'라고 하여 특별히 누구누구를 위한 다석이 많았다. 방장이 대중들을 위하여 내는 차(堂頭煎点), 방장이 새로 입방한 납자들을 위하여 내는 차(方丈特爲新掛搭茶), 주지가 신구(新舊) 지사와 두수를 위하여 내는 차, 지사와 두수들이 대중에게 내는 차(茶), 새로 입방한 신도승(新到僧)이 내는 차(茶) 등 〈선원청규〉와 〈칙수백장청규〉에 나오는 것만 해도 20여 종이나 된다.

4. 선원총림의 다탕(茶湯)과 다석(茶席)

선종사원에서는 끽다(喫茶)에 따르는 법식, 다법(茶法), 다례(茶禮)를 매우 중시했다. 그래서 괘탑(掛塔, 입방)하고자 하는 납자들은 안거 15일 전에 입방을 완료해야 한다. 다법(茶法), 다례(茶禮)를 익히기 위해서였다.

행각승(객승)이 하안거 결제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월 전(半月, 15일 이전)에 괘탑(입방)하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다탕(茶湯,차)의 인사(人事)를 창졸(倉卒)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다. '다탕(茶湯)의 인사(人事)'란 다법(茶法), 즉 끽다의 법도를 말한다.

총림의 찻자리(茶席, 茶湯)는 그 종류만도 20여 종 이상 되었고, 또 차를 마시는 장소나 공간, 좌석 등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새로 입방하는 납자가 이를 숙지(熟知)하자면 15일 정도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나라 선종사원의 경우는 특별히 법도를 갖춘 다석(茶席)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이런 이야기는 부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당송시대 중국 선원의 다석, 다탕의 법도는 매우 중요했고, 일본 선종사원의 다도(茶道)도 선원 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장로종색의 〈선원청규〉에는 객실에서 곧 입방 예정인 객승도 다탕(茶湯, 찻자리)에 참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만치 다법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또 〈선원청규〉 1권 '판도구(辦道具)' 편에는 "총림에 입방하고자 하는 납자는 삿갓, 주장자, (……) 발낭, 정병(淨甁), 욕의(浴衣) 등을 갖추라. 그리고 다기(茶器) 등은 재정 형편에 따르라"고 나온다. 개인용 찻잔을 준비하되 굳이 비싼 찻잔을 준비할 필요는 없고, 형편에 따라 갖추라는 것이다.

5. 다선일미(茶禪一味), 다선일여(茶禪一如)

선종사원에서 다탕(茶湯, 찻자리), 다석(茶席), 끽다(喫茶), 음다(飮茶)에 따르는 다례와 행다(行茶) 등은 그야말로 다법(茶法) 가운데서도 고준한 다법이다. 그 법도와 격식 등은 전인적 인격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선원의 다석(茶席)은 현실 속의 불국토, 곧 선의 세계였다.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말을 처음 쓴 이는 〈벽암록〉의 찬자인 원오극근(圓悟克勤 · 1063~1135)이라고 한다. 원오극근은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유명한 묵적(墨跡)을 남겼는데 이 묵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전설처럼 일본에 전래되었고, 현재는 교토(京都) 다이도쿠지(大德寺)에 소장되어 있다고 한다. 다이도쿠지는 무로마치(室町)시대의 유명한 다승(茶僧) 잇큐(一休, · 1394~1481)가 주지로 있었던 곳이다. 그런데 현재 이 글씨가 다이도쿠지에는 물론 일본 안에는 없다는 설도 있다.

조선 후기의 명필이자 불교를 좋아했던 추사(秋史) 선생은 차를 매우 좋아했다. 그는 차(茶)에 대한 시문을 적지 않게 남겼는데, 그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수많은 차인(茶人)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글이 '정좌처 다반향초(靜坐處 茶半香初), 묘용시 수류화개(妙用時 水流花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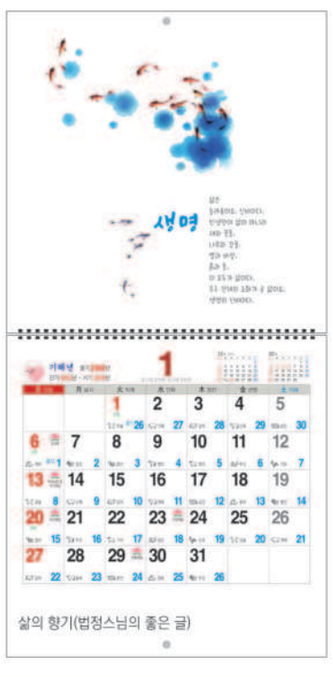
송대 선종사원에서는 대중 전체가 차료(茶寮)에서 차를 마실 때는 향을 피웠다. 점차(點茶)에서 차와 향은 하나의 세계였다.

〈민족사 대표〉

착한 가격 높은 퀄리티의 2019년 불교카렌다 품질이 확실히 다르다!!
삼보불교카렌다 임시 할인가 보급 단행
500부 이상 6절 1400원 12절 1100원 보급기간 2018.8.16~10.15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으로 카렌다 내용을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6절 (305 × 306)	정가 1,800원	1,4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6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500원 2,000부 주문시 1,300원
12절 (255 × 260)	정가 1,600원	1,100원(500부 이상) 100부 주문시 1,300원 200부 이상 주문시 1,200원 2,000부 주문시 1,000원
미니스프링 (90 × 98)	정가 800원	할인가 600원
미니 수첩 (90 × 130)	정가 1,000원	할인가 700원
비닐캡 (90 × 160)	정가 800원	할인가 400원
탁상카렌다 (260 × 190)	정가 2,500원	할인가 1,800원(금박인쇄)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록(E-Book) 보는 법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에 오셔서 아래 eBook 바로보기를 클릭
삼보불교 BUDDHISM CALENDAR
삼보 2019년 불교카렌다 카다로그
새창에서 eBook 바로보기
바로보기를 클릭하시면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향기(법정스님의 좋은 글)


부처님과의 소통(사찰의 옛 다리)


동승의 행복


지혜동자


연꽃향기


동승이야기


민족의 산하


법음이 깃든 산사

위 카렌다 외에도 총16종의 카렌다가 있습니다.
성 안내는 그 얼굴 미소 / 우리말로 풀어 쓴 반야심경 / 세계불교 명찰 / 심우도 사구게 / 관음응신도 / 운봉스님의 달마도 / 산사에 피는 야생화

삼보불교카렌다 T. (031) 732-9905 F. (031) 732-8972 www.samboca.co.kr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카다로그를 보시기 힘드신 분들은 카다로그나 샘플 발송을 요청하시면 보내드겠습니다.

아동, 청소년도 명상 할 수 있을까?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호흡, 한 컵 물, 얼음 한 조각, 별 등 이용
쉽고 재밌는 놀이로 6가지 삶 기술 전달
"자신 마음 다루는 능력 배양" 부모 자산



마음챙김놀이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 지음
이재석 역
불광 펴냄
1만 4800원

마음챙김 놀이는 아이들이 주의 집중하고 감정을 조절하며, 어떤 상황에도 침착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응대하는 능력을 키우는 좋은 방법이다. 이 책서 소개한 총 60가지 놀이들은 호흡, 그림책, 우리 몸, 바람개비, 한 컵의 물, 바람, 별 등 우리 일상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삶 속에서 마음챙김을 쉽고 재미있게 실행하도록 도와준다. 이 즐거운 놀이 책은 아이들을 위한 것이지만, 부모가 먼저 익히고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아이들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부모에게서 보고 배운 것은 아이들 마음에도 영원히 각인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명상이 좋다는 건 많이 들어서 알겠는데 가만히 앉아서 하는 명상을, 한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아이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 취지야 좋지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에 대한 흔한 편견이다. 수잔 카이저의 이 책은 이런 편견의 벽을 깨뜨린다. 변호사였지만 개인적인 경험이 계기가 되어 어린이 명상 프로그램 연구에 열정을 다해 연구한 저자는 풍부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쉽고 재미있는 놀이 명상 책을 펴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공립학교서 진행한 현장 경험과 유명 심리학자와 의사, 교육가, 티베트 스님들의 조언과 자문을 받아 과학적인 명상 놀이 책으로 구성했다.

마음챙김(명상)은 이미 서구의 많은 사람들이 일상서 지혜와 자비로 삶을 돌보는 데 유용한 도구로 쓰인다. 예술가, 스포츠인, 기업인, 학생, 성직자 등 널리 활용되면서도 유독 아동과 청소년은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명상은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그래서 아이들은 못할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은 단지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걸 못 견딜 뿐이다. 명상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생각(지혜)들을 심어 주고 나와 세상을 주의깊게 바라보게 한다.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 이것은 호기심 왕성한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이 아니라 가장 좋아하는 일이다. 실제로 저자는 교육 현장서 자신이 계발한 명상 놀이를 통해 아이들이 놀랍도록 잘 적응하고 나아가 일상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했다.

이 책 〈마음챙김 놀이(Mindful Games)〉는 이 삶의 기술들 가운데 여섯 가지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이 기술들은 집중하기(Focusing), 고요하게 하기(Quieting), 보기(Seeing), 새롭게 보기(Reframing), 돌보기(Caring), 연결하기(Connecting) 등 모두 여섯 가지이다.

현재 순간의 경험(호흡의 느낌, 주변의 소리 등)에 주의 집중할 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더 명료하게 볼 수 있는 머릿속 공간이 만들어진다 → 자기 몸과 마음서 일어나는 일을 알아차리게 되면 몸의 감각("나는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어"라든가 "가슴이 두근거려" 같은)이 일어날 때 곧바로 말과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고 멈추어 돌아보는 신호로 삼을 수 있다 → 이 과정을 통해 자신의 신체 감각에 말과 행동으로 즉각 반응하는 이른바 '자동 반응성'이 줄어들고, 이로써 자기 안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더 또렷하게 의식할 수 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지혜와 자비로써 너그럽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 아이들이 모든 순간은 연결되어 있으며, 그물망처럼 서로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일어나는 것임을 알 수 있다면 돌보기와 연결하기라는 마음의 성질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 책은 이 6가지 삶의 기술을 60가지 놀이로 만들어 체험하도록 했다. 궁극적으로 저자가 마음챙김과 명상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자유에 이르는 길'이다. 그것은 '승리, 성취, 과시'에 관한 길이 아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성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어려움) 생기를 잃지 않는 것. 또 삶의 어떤 순간에라도-숨을 한 번 쉬고 걸음 한 번 내딛을 때조차도 신비와 기쁨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이다. '아동기, 청소년기'라는 인생의 소중하고 중요한 시기에 부모와 양육자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자신과 세상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저자 수잔 카이저 그린랜드는?

마음챙김 명상 지도자인 그녀는 1997년부터 티베트 불교 전통의 스승들에게 명상을 공부했다. 1988~2005년까지 기업 변호사로 일했다. 이 시기에 비종교적 마음챙김을 공립학교서 가르치며 '이너키즈(Inner Kids)'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는 고전적 마음챙김 명상 수련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응용시킨 훈련 프로그램으로, 교육 영역 최초의 마음챙김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수잔과 그녀의 남편 세스 그린랜드는 이너키즈 재단이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2001~2009년에 걸쳐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 지역의 학교 및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서 비종교적 마음챙김을 가르쳤다. 결국 그녀는 변호사를 그만두고 어린이, 교사, 학부모를 상대로 하는 마음챙김 수련을 전업으로 삼았다. 현재 UCLA 매텔 소아병원 소아통증클리닉의 임상 연구팀 소속으로, 교육 영역에서 마음챙김이 주는 영향에 관한 UCLA 조사 연구의 공동연구자이다. 또 아동과 양육자를 위한 마음챙김 먹기에 관한 조사의 협력 연구원이기도 하다. 이너키즈 초등학교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 결과는 〈응용 학교심리학 저널Journal of Applied School Psychology〉에 발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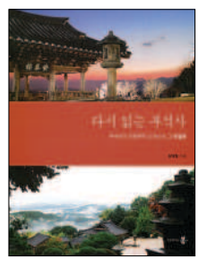
지금까지 알던 부석사는 잊어라

무량수전에서 바라 본 소백산맥의 장쾌한 풍경과 일몰은 '국보 0호'라고 할 정도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명찰 중의 명찰인 영주 부석사. 그러나, 정작 우리는 부석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혹여 알고 있더라도 그것이 얼마나 정확한 것일까?

무량수전은 다른 사찰의 대웅전과 같은 구조가 아닌 항마촉지인을 한 아미타불을 서쪽에 홀로 봉안하고 동쪽을 향하는지, 부석사 명물 중 하나인 거대한 석축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으며, 어떤 원리로 가람을 배치하였는지 등등 의문점에 대해 명쾌하게 해석한 책이 나왔다.

저자는 이 책서 부석사성보박물관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여 동안 학예연구사로 근무하면서 부석사를 속속들이 파헤쳐 사라진 부석사 역사를 복원하고, 그동안 잘못 알려진 오류들은 구체적 증거를 들어 바로잡으려 했다.

무량수전은 '강당', 부석사 금당 따로 있어
저자 "원융국사 부석사 중창설 잘못" 주장
부석사 가람배치는 연화장 세계 구현 한 것



다시읽는 부석사

김태형 지음
상상창작소 봄 펴냄
1만 9천원

이 책은 총 5장으로 구성됐으며, 제 1장에서는 부석사와 관련된 잘못 알려진 설과 주장에 대해 관련 자료의 고증을 통해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팩트 체크'로부터 시작된다. 2장과 3장은 부석사 창건부터 현재까지의 역사를 자세히 수록했다. 특히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자료들이 소개돼 있어 주목된다. 이어 4장은 대한민국 고건축을 대표하는 국보 제18호 무량수전을 비롯하여 국보 5건, 보물 6건, 경상북도유형문화재 2건 등 부석사에 남아 있는 문화유산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아름다운 사진이 실려 있다.

마지막 5장은 저자가 직접 독자들을 부석사로 안내하면서 부석사 구석구석 남아 있는 문화유산과 숨은 이야기를 들려준다. 아울러 부록으로 부석사 1300여 년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연표와 조선후기 부석사의 법맥(法脈)을 도표로 실어, 그 어떤 부석사 관련 자료보다 풍부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저자가 부석사서 4년 여 동안 직접 찍은 경내 풍경은 책을 보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그렇다면 저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석사의 어떤 것을 보았을까. 또한 이 책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을까? 이 책 처음에 등장하는 '팩트 체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원융국사의 부석사 중창설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현재 문화재청 홈페이지 '문화유산 통합 검색'에서 찾은 국보 제18호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설명문에는 "신라 문무왕(재위 661~681) 때 짓고 고려 현종(재위 1009~1031) 때 고쳐 지었으나, 공민왕 7년(1358)에 불에 타 버렸다"고 했다. 이 설명문에서 '고려 현종(재위 1009~1031) 때 고쳐지었다'는 내용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팩트 체크'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던 새 자료도 소개한다. 이는 현재 부석사성보박물관에 소장된 사명당 유정의 '부석사 안양루 중창기' 현판 뒷면에 있는 1578년 작성된 시주록으로, 여러 차례 관련 유물 조사과정서도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이외에도 저자는 기존에 알려진 무량수전의 역사를 기록한 '봉황산 부석사 개연기'에도 1608년 작성된 묵서(墨書)가 있다는 사실도 새롭게 밝혀내고 그 중 일부를 본문에 소개한다.

한편 '팩트 체크'서 주목된 부분은 그동안 무량수전이 부석사 금당(金堂)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금당은 따로 있었다는 주장이다. 저자가 금당이라고 지목한 곳은 현재 부석사 경내 자인당에 봉안된 보물 제220호 북지리 석조여래좌상이 본래 있던 터로, 일부서 동방사지(東方寺址)로 알려진 곳이다. 저자는 이에 대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절 이름이 '동방사'가 아니라 과거 부석사 동쪽에 있던 절터라는 뜻이었다고 바로잡았다. 특히, 이곳은 현재 확인된 바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비로자나 삼신불(三身佛)이 봉안된 곳으로 확정하고 있어 향후 학계의 논란이 예상된다.

이 책서 가장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전성기 부석사 가람배치는 의상대사의 〈화엄일승법계도〉와 의상대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진 〈투사례(投師禮)〉를 근거로 연화장세계를 구현한 것이라고 했다고 보았다. 본문서는 이에 대해 "의상 스님의 〈화엄일승법계도〉가 부석사의 가람배치를 이해할 수 있는 기본 배경이 된다. 즉 봉황산 자락에 남북으로 펼쳐진 산줄기와 그 사이에 배치된 각 전각과 그리고 이를 다시 동서로 이어주는 통로는 그대로 법계도의 도상을 그대로 펼쳐놓은 것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던 무량수전에 봉안된 아미타불좌상이 서쪽에 앉아 동쪽을 향하게 된 이유에 대해 "무량수전을 찾는 모든 이들이 성문과 보살로서 아미타불의 보처가 되므로 아미타불 설법을 듣는 대상이다. 따라서 이들은 아미타불에 대한 예경으로 우요삼잡(右繞三匝:부처님의 오른쪽 방향으로 세 번 돌며 예를 올리는 예법)의 예를 올리게 된다. 이때 무량수전에는 아미타불 한 분만 교실서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로 자리하게 되므로 우요삼잡의 예를 행하고 설법을 위한 구조로 합리적 동선과 공간 배치를 위해서는 아미타불이 서쪽에 배치돼 동쪽을 향한다. 이것이 무량수전에 아미타불이 서쪽에 배치돼 동쪽을 향하게 된 가장 주된 이유다"라고 밝혔다.

김주일 기자

밝은사람들 총서

불교와 사회의 상생적 소통을 위한 길잡이!



욕망, 삶의 동력인가 괴로움의 뿌리인가
정준영 외/A5양장/396쪽/20,000원

나, 버릴 것인가 찾을 것인가
권석만 외/A5양장/504쪽/23,000원

마음, 어떻게 움직이는가
미산 외/A5양장/396쪽/20,000원

몸, 마음공부의 기반인가 장애인가
우희종 외/A5양장/424쪽/20,000원

행복, 채움으로 얻는가 비움으로 얻는가
미산 외/A5양장/416쪽/20,000원

죽음, 삶의 끝인가 새로운 시작인가
정준영 외/A5양장/348쪽/18,000원

믿음, 디딤돌인가 걸림돌인가
오강남 외/A5양장/300쪽/18,000원

괴로움, 어디서 오는가
정준영 외/A5양장/326쪽/18,000원

깨달음, 궁극인가 과정인가
정준영 외/A5양장/388쪽/20,000원

자비, 깨달음의 씨앗인가 열매인가
미산 외/A5양장/376쪽/20,000원

분노,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구병수 외/A5양장/376쪽/20,000원

소유, 행복의 터전인가 굴레인가
권석만 외/A5양장/416쪽/2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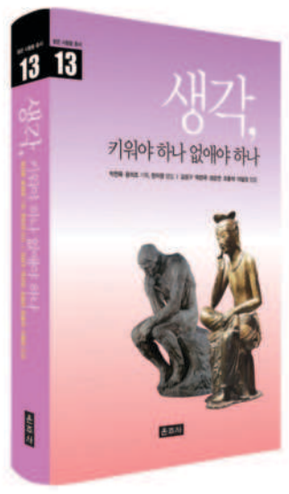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학술연찬회
주제: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
일시: 11월 24일(토) 10시-18시
장소: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김성구 외/신국판양장/392쪽/22,000원

생각은 어떻게 생겨나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생각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이다. 인간은 매순간 생각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기불교와 선불교, 서양철학, 자연과학, 심리학에서 바라본 '생각의 본질, 특징, 구조 등에 대한 성찰'이다.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주문 (02) 3672-7181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충남에 남겨진 고려 흔적들

국립공주박물관 특별전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1245년 간행 〈사아함모초해〉
수덕사 〈묘법연화경〉 최초 공개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충청남도에 남겨진 고려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하는 전시가 열린다. 국립공주박물관(관장 김규동)은 11월 6일부터 2019년 1월 13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특별전 '충청남도의 고려를 만나다'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수덕사 무이당에서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7을 비롯해 국보 110호 이제현 초상 등 225건 280여 점이 전시된다.

918년 건국 후 936년 통일까지 고려는 견훤의 후백제와 충청남도 일대에서 치열한 전투를 벌였을 만큼 충청남도는 고려의 전략적 요충지였다. 왕건이 고려 건국 후 천안과 홍성에 도시를 세우고, 통일 후 개태사를 창건한 것 등도 충청남도가 지닌 의미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교통의 요충지로 전라도에서 개경으로 가는 길목이었다. 따라서 조운과 운하가 발달한


영탑사 금동비로자나삼존불좌상.

곳이기도 하다. 그리고 관촉사 석조미술보살입상과 같은 거석불의 원류가 되는 곳이다. 특히 고려 후기가 되면 이제현, 이곡, 이색으로 이어지는 성리학의 학문적 토대가 된 곳이다. 총 5부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고려를 이야기한다.

△제1부 '왕, 중세도시와 불사'와 △제2부 '인물, 역사의 선구자들'에서는 충청남도에 남겨진 고려시대 왕들의 행적과 충청남도 출신 인물들의 활약상을 만나볼 수 있다.

△제3부 '개경으로 가는 길, 조운과 운하'에서는 충청남도에 있었던 고려시대 조창과 굴포운하, 서해 안흥량에서 침몰한 고려시대 선박과 고려청자를 살펴볼 수 있으며, △제4부 '생산과 소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발견 〈묘법연화경〉.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 발견 〈사아함모초해〉.

비 청자와 금속기의 대중화'에서는 충청남도에 남아있는 고려시대 사찰과 불교미술, 매향 활동 및 이 지역 불교미술의 특징을 조명한다.

△제5부에서는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에서 발견된 최이(?~1240)의 발문이 있는 〈묘법연화경〉 권7과 1245년 대장도감에서 간행한 〈사아함모초해〉가 최초로 공개된다.

최근 발견된 〈묘법연화경〉 권7은 1240년 당시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있던 최이가 간행한 것으로 발 무늬가 없는 두터운 닥종이로 제작된 점, 글자 획이 살아있고 상하 곽선에 손상이 없는 점 등을 미뤄 볼 때, 인출 후 바로 복장에 넣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아함모초해〉는 〈사아함경〉의 의의를 분류하고 해석한 책으로 1245년 대장도감에서 간행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전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재미있게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학술 세미나도 진행된다. QR코드로 퀴즈를 풀어보면서 전시 문화재를 감상할 수 있으며, 가족이 함께 체험활동에 참여하면서 문화재를 이해할 수도 있다. 또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를 통해서도 전시의 이해를 돕는다.

고려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고려문화유적 탐방'으로 충청남도의 고려시대 문화유적 답사를 진행한다.

11월 9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과 공주시가 주최하는 '고려시대의 충청남도' 학술세미나가 개최된다. (041)850-6364.

고려 단차 복원과정 한 눈에

'아름다운 차 문화, 고려시대를 만나다' 展
부산문화회관서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소장 박동춘)는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제14회 부산국제차어울림문화제에서 같은 기간 특별 전시 '아름다운 차 문화, 고려시대를 만나다'를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는 고려건국 1100주년을 맞아 고려인들이 지향했던 차문화의 격조와 가치를 살펴보고자 문헌과 유물 연구를 토대로 고려 단차를 복원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고려 단차 복원과 차 마시는 전 과정을 기록한 사진들이 전시되며, 하빈 이명균 도공이 복원한 청자 찻그릇도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고려 단차를 복원한 박동춘 소장.

전시는 1부 '단차 만들기', 2부 '차 끓이기', 3부 '현대 도공이 복원한 청자 찻그릇'으로 구성되어있다. 전시와 연계하여 11월 24일(오후 2시~4시)에는 고려시대 점다법을 재현하는 행사도 마련되어 있다.

박동춘 소장은 지난 7월 17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고려시대 단차의 특징' 특별 강연을 통해 복원된 고려 단차에 대해 강연한 바 있다. 박 소장은 강연에서 "고려시대는 불교의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로인해 차 문화도 발달하게 됐습니다. 고려인들이 즐겼던 차는 바로 단차(團茶)입니다. 이는 매우 섬세하고 감미로운 색과 향, 맛을 지닌 극품의 차입니다. 우리는 단차 복원을 통해 고려인들이 지향한 문화의 격조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고 했을만큼 고려 단차의 복원은 한 시대의 문화를 복원한 것이며, 불교의 시대가 그 배경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날 박 소장은 고려 단차의 복원 과정도 대중에게 공개했다. 찻잎 따기부터 △찻잎 고르기 △시루에 찌기 △식히기 △고(膏) 짜기 △돌절구에 찧기 △청자 다연에 갈기 △틀에 넣고 찍어내기 △무쇠가마솥에서 건조 △온돌 건조로 이어지는 제다 과정은 손이 많이 가는 섬세한 공정이다.

이처럼 고려시대 차 문화가 융성할 수 있던 점에 대해서는 '불교'를 가장 큰 요인으로 꼽았다. 실제, 〈고려사〉에 따르면 국왕이 직접 찻잎을 갈아 차를 만들어 불단에 공양한 '공덕재'의 기록이 나올 정도다. 또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차를 마시는 '다시(茶時)'가 제도화되기도 했다. 박 소장은 "불교가 교세를 확장하면서 사찰경제가 발전했고, 차를 수행의 일환으로 활용한 선종이 활발해지면서 차 문화 융성이 이뤄졌다"면서 "이는 왕실 귀족과 관료 문인들이 차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정신음료로서 차를 음용케 하는 요인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려 단차를 복원한 박 소장은 올해로 39년째 차 이론과 제다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초의, 범해, 원응, 응송으로 이어지는 한국 전통 제다법을 잇고 있다. 박재완 기자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 특별전

12월 14일까지 국립경주박물관
10월 2일 보물지정 기념
국내 기와 문화재 지정 처음

국립경주박물관(관장 민병찬)은 10월 19일부터 2018년 12월 14일까지 '신라의 미소, 얼굴무늬 수막새'를 특집 진열한다.

이번 특별 전시는 10월 2일 보물로 지정된 것을 기념하여 열리는 특집진열이다. 국내 기와가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이번 전시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는 신라의 미소로 널리 알려진 신라의 기와다. 일제강점기 경주 영묘사 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한다.

이 수막새는 1934년 골동상점에서 거래된 뒤 일본으로 반출되었다가 故 박일훈 前 국립박물관 관장이 그 소재를 수소문하여 일본 후쿠오카현 키타규우슈우시의 타나카 토시노부 씨가 소장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1972년 10월 14일에 기증받아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경주 얼굴무늬 수막새.

얼굴무늬 수막새는 틀[와범 · 瓦范]로 찍어낸 것이 아니라, 세부 모습을 손으로 빚어 만든 것으로, 정교하고 자연스런 솜씨의 숙련된 장인의 작품으로 추정되며, 신라의 기와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학계에서는 얼굴 전체적 모습이나 분위기가 남산 장창곡 출토 삼존석불의 협시보살상과 유사한 점과 황룡사지 출토 망새의 얼굴무늬와 흡사한 것으로 보아 삼국시대 말 무렵 즉 7세기에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석문에 기록된 고려불교 문중 형성

불교중앙博, 8일 금석문 탁본 조사 학술대회서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경북 지역 고승비문 탁본을 통해 나타난 고려시대 승단 구조와 형성 등을 확인한 연구가 발표됐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송하)은 11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석문 탁본 조사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했던 경상북도·대구 지역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북 지역 금석문 탁본조사를 통한 연구 논문들이 발표됐다.

특히 한기문 경북대 사학과 교수는 '경북지역 고려 고승비 음기의 문도 검토'를 통해 고려시대 승단 구조의 변화를 살펴 눈길을 끌었다.

한기문 교수가 살핀 고승비문은 탁본 조사가 된 경북 고승비 중 △선봉사대각국사비 △운문사원응국사비 △중수용문사기 △인각사보각국존비 4기의 음기다.

이를 통해 한기문 교수는 4기의 비문마다 문도직명이 달랐음을 확인했다. 실제 법손 대사 이상만 기재된 비문이 있었고, 비직자·법리주지중대사·법리명공·기계명공 등의 직명을 쓴 비문도 존재했다. 또한 사법제자와 집사제자로 분류하거나 대선사·수좌·산림·입선 등을 기재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한기문 교수는 "고려 초기 고승비에는 문도에 대한 상세한 명단이 없이 상족·수제자만 기록했지만 사원 강회가 활발해지고 예비·본고시 등 승정제도가 갖춰진 정종 대부터는 교단이 정비되면서 문도 승계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문도 형성에 승정이 개입되고 문도 이동과 분열이 나타났다"면서 "고려 중기에 이르러서는 승속일체(僧俗一體) 결사운동의 반영으로 세속 제자 명단이 기재되고 법계와 함께 소속 사원이 명시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고승 문도의 형성은 종단을 구성하는 바탕이 되지만 승정에 고승이 깊이 개입함으로써 문도가 이동, 분열하기도 해 종단의 안정을 흔드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남동신 서울대 교수가 '조선 후기 금석첩 편찬과 대동금석서'를, 김용선 한림대 명예교수가 '경북 지역의 일반석문 조사와 의의'를, 김민규 박사(동국대)가 '경상북도의 묘비 건립과 양식 연구'를 발표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들은 불교중앙박물관의 금석문 탁본조사가 있기에 가능했다. 불교중앙박물관은 2014~2017년 대구 268건, 경북 1204건 가운데 자문위원회를 거쳐 불교 금석문 61건, 일반 금석문 139건 등 200건을 탁본해 조사했다. 이 같은 조사를 통해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이 진행하는 2018년도 금석문조사사업의 책임연구원 흥선 스님이 고성 건봉사에서 열린 현장설명회에서 사명대사사적비편의 탁본을 진행하고 있다.

대각국사비 등 4기 음기 분석
승정제도 등 문도 형성 살펴
고려 정종 이후 문파분열 조짐
경북 탁본 조사 성과들 발표도

2017년 조사의 경우 포항 석남사지 남파대사비·성주 시문용 유허비 등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비문을 수집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석남사지 남파대사비의 탁본을 통해 시문이 뛰어났던 계오스님의 필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불교중앙박물관은 "기존 탁본들은 공개돼 있는 자료가 적고, 접근성도 떨어졌다. 하지만 박물관의 금석문 탁본조사 사업은 주기적으로 탁본을 전시하고 조사결과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금석문에 관심을 갖는 학자와 일반인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관련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 함께 불교중앙박물관은 내년 1월 25일까지 경북 지역 금석문 탁본들을 총망라한 테마전 '금석문 탁본전-경북 역사를 두드리다'를 개최한다.

불교중앙박물관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문화재청과 함께 진행한 '전국 금석문 조사 사업' 중 대구·경북지역의 금석문 200건을 정리해 마련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2건, 보물 3건, 경북 유형문화재 4건을 포함한 총 34개 비의 탁본이 전시된다.

남북 '겨레말큰사전'과 '불교사전'

동국대 불교학술원, 15일 불교인문학특강

강연자 한용운 편찬실장 초청
남북 불교용어 교류 방안 제안

북한의 불교용어와 경전 번역을 통한 교류 방안을 소개하는 강연이 마련된다.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정승석)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ABC)사업단은 2018년도 제15회 '불교인문학특강'을 오는 11월 15일 오후 3시 동국대 중앙도서관 전순표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불교인문학 특강은 '남북한 〈겨레말큰사전〉 편찬 의미와 〈불교사전〉'을 주제로 한용운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편찬실장이 강연자로 연단에 오른다.

〈겨레말큰사전〉은 남북한의 언어통일을 목적으로 분단 이후 국어학자들이 함께 편찬하는 첫 사전으로 남북의 언어 이질화 극복 및 민족동질성 회복, 통일 후 언어생활 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에서 뜻이 달라진 낱말의 뜻을 풀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공통으로 쓰는 말', 차이 나는 것은 남과 북이 합의하여 '단일화한 말', 기존 남북 사전에 수록되지 못했던 '지역어 및 문헌어'를 광범위하게 조사해 수록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년 동안 총 20회의 남북공동편찬회의와 네 차례의 공동집필회의를 했으나, 5·24 대북제재 조치로 공동 작업을 멈췄다. 2014년 7월에 잠시 재개했지만 2015년 12월 중국 다롄에서 제25차 공동편찬위원회회의를 끝으로 다시 중단됐다. 최근 남북한 사이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올해 안에 제26차 편찬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 불교인문학 특강은 〈겨레말큰사전〉의 편찬사업의 의미와 더불어, 북한의 종교에 대한 인식 변화, 북한의 〈현대조선말사전(1981)〉과 〈조선말대사전 증보판(2006)〉에 실린 불교 설명 및 남북 국어사전의 불교 용어 수록 현황 등을 소개한다. 또한 경전 번역과 관련한 남북한 불교 교류에 대한 방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신성민 기자

조선 왕실원찰 흥천사의 모든 것

한국미술사硏 등 11월 17일 학술대회

조선 왕실의 원찰이었던 서울 흥천사의 불상과 문화재 등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사)한국미술사연구소와 한국불교미술사학회는 오는 11월 17일 오후 1시 국립중앙박물관 교육관 제1강의실에서 '600년 왕실원찰 서울 흥천사 불상'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의 시작은 동국대 명예교수인 문명대 한국미술사연구소장의 '흥천사 불상의 성격과 1701년 목조 수월관음보살 삼존상 및 복장품 연구' 기조발표로 알린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로는 △심주원 조계종 호계원 팀장의 '흥천사 목조 아미타불상과 대세지보살상 연구' △주수완 고려대 前 교수의 '흥천사 명부전 석조 지장·시왕상 연구'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의 '흥천사 노전 약사·아미타·지장보살 연구' △문무왕 동명대 교수의 '흥천사의 불교사상' 등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손영문 문화재청 상임전문위원, 고승희 동국대 교수, 신선혜 고려대 연구교수가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는 것인가

밝은사람들 24일 학술연찬회

밝은사람들연구소(소장 박찬욱)는 11월 24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공연장에서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를 주제로 제17회 학술연찬회를 개최한다.

연찬회에서는 △생각의 이중성, 수행을 통한 통합의 가능성 모색(이필원, 동국대) △병 속의 새는 어떻게 자유를 꿈꾸는가(오용석, 원광대) △어떻게 생각의 주인이 될 것인가(박찬국, 서울대) △정보처리적 관점에서 본 선과 생각(김성구, 이화여대) △생각, 나를 살게 하는 길은 있는가(성승연,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등이 발표된다.

발표 교재인 〈생각, 키워야 하나 없애야 하나〉는 연찬회에 앞서 도서출판 운주사가 발행할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명진관 '문화재' 됐다

문화재청, 등록 공고… 부산 대통령 관저 사적 지정

동국대 구 본관 건물인 명진관(석조관)이 문화재로 등록됐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서울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 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했으며,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를 사적으로 지정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 등 2건은 문화재로 등록 예고했다.

등록문화재 제735호로 지정된 '서울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은 1958년 건립됐으며, 당시 우리나라를 대표한 건축가 중 한 사람인 송민구가 설계했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고딕풍 건물로 "중앙부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성을 강조한 평면구성과 석재로 마감한 외관 등은 당시 대학 본관으로서의 상징성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등록문화재 제736호로는 대전 충남대 구 문리과대학이 지정됐다. 충남대 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건물로서 건축가 이천승이 설계해 1958년 건립됐다.



등록문화재 제735호로 지정된 동국대 구 본관(석조관) 전경.

이번에 사적 제546호로 지정된 '부산 임시수도 대통령관저'는 한국전쟁 기간 중 피란수도인 부산에서 대통령 집무실 겸 관저로 사용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와 함께 등록 예고된 문화재는 항일독립 문화유산인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과 대학교 건물인 '서울 경희대학교 본관' 등 2건이다.

특히 '대한민국임시정부 건국강령 초안'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가인 조소앙(본명 조용은, 1887~1958)이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하여 독립운동과 건국의 방침 등을 정리한 국한문 혼용의 친필문서이다. 조소앙이 기초한 건국강령은 1941년 11월 28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약간의 수정을 거쳐 통과됐으며, 1948년 제헌헌법의 기본적 바탕이 됐다. 신성민 기자

한국불교사硏 '인문학자 불교학자' 세미나

11월 17일, 동국대 만해관서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11월 17일 오후 1시 동국대 만해관 대강의실 253호에서 '대한시대 인문학자 불교학자 탐구Ⅱ'를 주제로 제22차 집중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는 △영호당 정호의 학문과 사상(김상일, 동국대) △퇴경 권상로의 학문과 사상(김경집, 진각대) △무호 백성욱의 학문과 사상(고영섭, 동국대) △범산 김법린의 학문과 사상(김순석, 안동국학진흥원) △현곡 김잉석의 학문과 사상(임상희, 前 고려대)이 발표된다. 토론자로는 오대혁(서울교대), 이재헌(금강삼종대), 최원섭(위덕대), 문광 스님(동국대) 등이 참여한다. 신성민 기자

불교건축의 HOT 뉴스!
이제는 스틸공법 입니다



HOT
스틸공법 선두주자로 인기몰이 하고 있는 사찰건축 전문업체.
친환경적이며 단열효과가 탁월하고 구조변경이 용이 합니다.
목조건축물보다 시공비 1/5정도 대폭절감, 단청까지 3~4개월.
습기에 강하고 내구성이 우수합니다.
☎ 문의 : 민성기업(구,대진기업) 010-2628-9944

九龍 의 소원...
❑ 사찰의 모든 장소 장식 가능, 분수 가능
❑ 소원당(소원지, 소원패등) 주작품
❑ 작품 소장사찰 : 여수 향일암, 강화보문사 등
❑ 크기 : 4,200(가로)×1,000(세로)×1,300(높이)mm
❑ 가격 : 상담 후 결정
기획불사상담문의
승원아트조형 010-9195-1044
네이버 : 승원아트조형

박재완의 PhotoEssay



아침 공안

온 산엔 차가운 안개
온 하늘엔 울음 한 점
이 순간의 인연은 그것뿐

산새의 작은 눈에도 세상은 끝이 없고
산새의 작은 날개는 끝없이 하늘을 기다리니

어디부터가 절이고
어디부터가 나인가
어디까지가 어제고
어디까지가 오늘인가



정지천의
가족이 건강해지는 비법
⑭ 중풍 전조증과 예방법

중풍, 예방과 전조증 조기 인식 중요

중풍은 아무리 잘 치료해도 대부분 후유증이 생겨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당연히 오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동의보감을 비롯한 한의서에는 손가락이 저리고 뻣뻣하며 감각이 둔한 증상이 나타나면 3년 내에 중풍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손발이 저리면 무조건 중풍을 의심해야 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저림증은 외과적으로 경추나 요추의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 잘 생기고, 내과적으로는 혈관 장애, 알코올성 신경증, 다발성 말초신경염 등의 질병에서도 잘 나타난다.

손발이 저린 사람 중에서 중풍을 의심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연세가 많고 비만이면서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경우이다. 실제로 손발 저림은 고혈압, 동맥경화증이나 고지혈증이 오래 되었거나 혹은 당뇨병이 오래 되어 신경합병증이 생긴 경우에 잘 나타나는데, 모두가 중풍을 유발하기 쉬운 질병이다. 한의서의 내용은 내부적으로 중풍이 태동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몸속에 습기가 많아져 담이 되고 이어서 열이 생겨나 중풍이 유발되기 때문이다.

중풍 전조증이란?

중풍이 발생하기 전에 부정기적인 증상들이 일시적이거나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얼굴과 팔다리에 힘이 없어지거나 떨리거나 벌레가 스멀스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감각이 이상해진다거나, 일시적으로 말하기가 어렵거나 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거나 이유 없이 머리가 심하게 아프다거나 하는 등이다.

눈꺼풀이 실룩거리거나 얼굴근육이 떨리는 것도 전조증이긴 하지만, 중풍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경우가 훨씬 많다. 안면신경이 혈관에 눌려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로, 수면부족이 있으면 쉽게 나타난다. 과도한 운동 뒤에도 생길 수 있고, 카페인이 들어 있는 음식을 많이 먹은 경우에도 '흥분성 신경전달물질'이 많이 분비되어 떨리게 한다.

중풍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추운 곳에 오래 있거나 갑자기 추운 곳에 나오는 것을 피하고, 과로와 근심, 걱정, 짜증을 피해야 한다.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소금이나 기름진 음식을 줄이며 술과 담배를 끊어야 한다. 기와 혈의 소통을 잘 되게 하고 체중도 줄이려면 운동이 필수적인데, 새벽 찬 공기에서는 피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장의 음기와 양기의 부족을 보충하고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허약해지면 중풍이 오기 쉽기 때문이다.

중풍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는?

풍의 성질은 잘 돌아다니며 변화가 많다. 그래서 중풍은 갑작스레 발작이 일어나고 변화무쌍한



기와 혈의 소통을 잘 되게 하고 체중도 줄이려면 운동이 필수적인데, 새벽 찬 공기에서는 피해야 한다.

손저림 등 다양한 중풍 전조증
기와 혈 소통 잘 되게 해야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초기에는 무엇보다 절대 안정이 중요하고, 특히 머리를 될수록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숨을 잘 쉴 수 있도록 옷을 느슨하게 해 주고 목을 뒤로 젖혀주며, 경우에 따라 혀를 깨물지 않도록 아래위 이빨 사이에 작은 수건을 끼워야 한다. 그리고 연하장애가 와서 음식물을 잘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이나 물을 억지로 먹이면 안 된다. 숨이 막히거나 기도로 넘어가서 폐렴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빨리 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중풍의 한방치료는?

발병 직후부터 1, 2주까지의 응급기에는 의식상태 회복, 혈압 및 뇌압 조절, 음식 섭취와 대소변 정상화에 중점을 두고 폐렴, 욕창, 요로감염 등의 합병증을 방지하는 치료를 한다. 대개 2주 정도 지나면 회복기인데, 마비된 상하지의 운동기능 회복에 중점을 두고 치매를 예방하는 치료와 재활 · 운동요법을 병행하게 된다. 침, 뜸 치료는 혈액순환과 신경회복을 촉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그리고 한약은 중풍이 발생된 원인과 체질에 따라 처방하여 신경세포를 회복시키고 보호하기 때문에 운동력 회복에 효과적이다. 뇌경색은 물론이고 뇌출혈 수술 뒤의 후유증에는 어혈을 풀어주는 치료법이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데 지네, 전갈, 누에 등의 약재가 활용된다.

중풍환자에게 좋은 음식은?

중풍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고 체질도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원인과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중풍에는 습기나 담을 비롯한 몸속의 노폐물을 잘 배출시키는 효능을 가진 음식이 적합한데, 대변과 소변 혹은 땀을 잘 나오게 하며 체중을 줄여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차가운 성질로서 열을 내리고 기를 아래로 가라앉히는 효능이 있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열이 오르고 기가 치밀어 오르면 뇌에 압력이 오르면서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우면서 중풍이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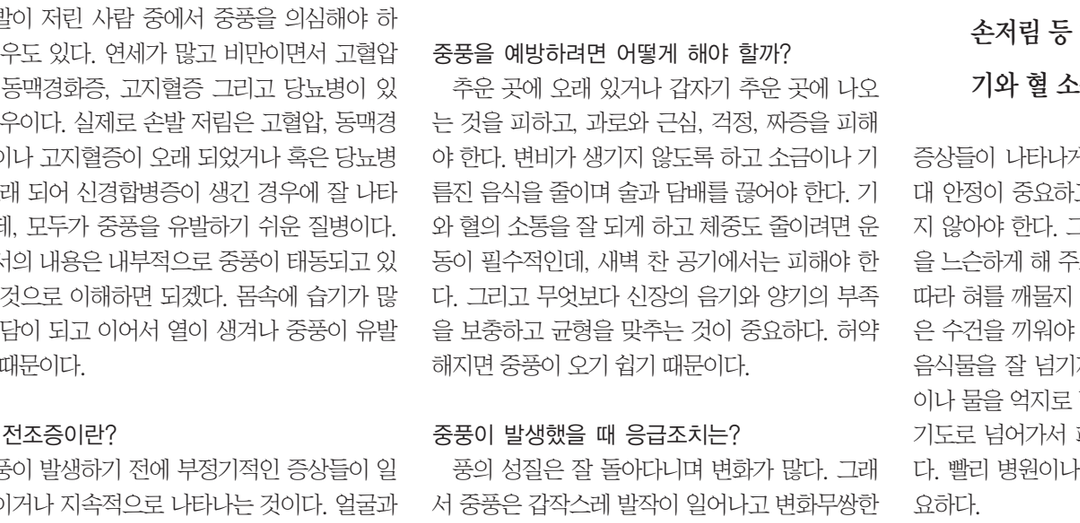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으로는 보리 · 메밀 등의 곡류, 표고버섯 · 고사리 · 콩나물 · 연근 · 가지 · 미나리 · 시금치 등의 채소류, 사과 · 바나나 · 수박 등의 과일이다. 미역 · 김 · 다시마 등의 해조류도 좋다.

중풍 환자에게 해로운 음식은?

소금을 비롯하여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인스턴트 식품, 고추와 후추 같은 맵고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커피와 진한 차, 탄산음료가 해롭다. 담배는 동맥경화를 비롯하여 뇌혈관, 심장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피해야 한다. 물론 술은 한두 잔 이상은 안 되고, 기름진 음식, 밀가루 음식도 해롭다. 그러나 살코기는 적당히 먹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동국대 일산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서울매장 서울시 종로구돈의동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 기 도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www.yangjikukak.com